

헨리 로웰 - 고고학 교수 솔로몬과의  
대화에 기반하여

# 시간 이전의 울림



ECHOES BEFORE TIME

잃어버린 문명의 주기와 우리 시대를 위한  
메시지

# 시간 이전의 울림

(ECHOES BEFORE TIME)

잃어버린 문명의 주기와 우리 시대를  
위한 메시지

저자:

미국의 명문 대학에서 오랜 현장 경험을 쌓은 한 고고학자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아, THE LIVES MEDIA 소속 기자 **헨리 로웰** (Henry Lowell)이 집필함.

---

Copyright © 2025 THE LIVES MEDIA. 모든 권리 보유.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 편집부의 주석

이 책은 실존하는 이야기와 사건, 실제 배경을 바탕으로 집필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특정 인물에게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등장인물의 이름과 일부 식별 가능한 세부 사항은 변경되거나 단순화되었으며, 문학적 형식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책의 일부 내용은 실제 인물의 개인적인 시각에서 서술되며, 이는 당시 그들이 체험하고 인식한 바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반드시 THE LIVES MEDIA 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체에 있어, 편집부는 필요한 최소한의 수정을 가하였지만, 원래 인물의 진솔한 말투와 이야기의 생동감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편집부



\* \* \*

# 서문

역사와 고대 문명을 다루는 기자로서, 나는 과거의 파편들을 따라 이동하는 삶에 익숙해져 있었다. 무너진 성벽 앞에 서고, 고대 문자를 더듬으며, 학계에서 활발히 논의되는 가설들을 듣기도 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은 어떤 의미에서 ‘안전한 틀’ 안에 있었다. 인류의 역사는 약 5 천 년에서 7 천 년 정도라는, 널리 받아들여진 시간의 틀 안에서 말이다.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비행기 안에서 솔로몬 교수님을 우연히 만난 이후, 나는 인류의 먼 과거에 대한 나의 모든 관점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우리의 대화는 처음부터 거창한 질문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우리 둘 다 역사는 그림에서 느꼈던 어떤 ‘이상한 조각들’—갑작스럽게 등장한 듯한 거대한 유적들, 모든 연대를 뒤흔드는 유물들, 그리고 전 인류의 기억 속에 반복되어 나타나는 문명 순환의 전설들—에 대한 공감에서 비롯되었다.

솔로몬 교수는 평범한 고고학자가 아니다. 수십 년간의 현장 연구와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한 그는, 오랜 시간 수

행해 온 정신적 수련을 통해 얻은 깊은 통찰을 함께 지니고 있다. 이 독특한 결합 덕분에 그는 기존 학계가 피하려는 질문들을 던질 수 있었고, 다른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해답을 찾기 시작했다.

이 책은 나와 교수님 사이에 이루어진 세 차례의 심도 있는 대화를 바탕으로 탄생했다. 우리는 어떤 ‘최종적인 진실’을 주장하거나 새로운 세계관을 강요하려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목적은 훨씬 더 소박하면서도 절실할 수 있다. 그것은 증거, 논리적 분석, 그리고 때로는 영적 체험을 통해 얻은 ‘보는 인식’을 바탕으로, 독자와 함께 근본적인 질문들을 다시 던져보는 것이다. 인류의 역사는 정말 직선적인 진화의 길인가? 지금 우리가 사는 문명이 과연 유일한 정점인가?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된 과거로부터 울려오는 ‘메아리’는 지금 우리에게 어떤 말을 전하려 하는가?

우리는 기자와 학자의 시선으로, 기자의 질문과 교수의 응답을 통해, 고대 피라미드와 아틀란티스, 수정 해골, 전 세계적인 대홍수의 기억 같은 오래된 수수께끼들을 다시 살펴볼 것이다. 또한 사하라의 눈, 거대한 사막들 같은 지구적 규모의 흔적들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조명할 것이다. 그리고 그 여정 전체에 걸쳐, 교수님의 딸 라우라—초

감각적 인식을 지닌 젊은 여성—의 이야기가 함께한다. 그녀의 ‘보는 인식’은 특별한 참고 자료가 되었고, 오랜 시대를 넘어온 ‘살아 있는 메아리’로 등장한다.

이 책은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 쓰인 것이 아니다. 오히려 마음을 일깨우기 위한 책이다. 질문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 학교에서 배운 역사 속에 여전히 빠진 조각이 있다고 느끼는 이들, 그리고 과거의 진실이 우리의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믿는 이들을 위한 책이다.

나와 함께 이 여정을 떠나보자. 시간 이전에서 올려오는 그 메아리에 귀 기울이기 위해.

**헨리 로웰** (Henry Lowell)

\* \* \*



# 제 1 일차

---

**헨리 로웰:**

좋은 아침입니다, 솔로몬 교수님!

파리에서 뉴욕으로 가는 비행기에서 약속드린 대로, 오늘은 교수님께서 고고학적, 과학적, 그리고 영적인 관점에서 과거 문명에 대해 자세히 들려주시는 날입니다.

**솔로몬 교수:**

(온화하게 미소 지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인다. 그의 서재는 책과 작은 유물들, 고지도들로 가득 차 있으며, 학구적인 분위기 속에 약간의 신비함이 느껴진다)

좋은 아침입니다, 헨리. 이곳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 비행기는 참으로 흥미로운 인연이었죠. 저 또한 우리가 나눴던 주제들에 대해 헨리 씨가 보여준 열정과 깊은 이해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지난 수년간 축적해온 것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느끼고 깨달았던 것들을 기꺼이 나누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고고학자로서 제가 내린 결론들이 항상 정통 학계의 서술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인류의 역사와 과거에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층위가 숨겨져 있다고 믿습니다.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을 정리하는 듯한 눈빛을 보인다)

그리고 이 여정에서—제가 예전에 살짝 언급했을지도 모르겠네요—때때로 저는 제 딸, 로라로부터 꽤 특별한 참고를 받기도 합니다.

그 아이는 일반적인 오감으로는 느낄 수 없는 것들을 ‘느끼고 보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요, 옛사람들은 이를 '천목(天目)'이라 불렀습니다. 물론 이건 만능의 능력이 아니고, 언제나 또렷한 것도 아닙니다. 어떤 때는 아주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느껴지지만, 또 어떤 때는 그저 암시나 힌트처럼 모호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 늘 이런 감지들을 고고학적 증거, 역사 기록, 그리고 더 보편적인 규칙성 있는 해석과 함께 신중히 비교하며 참고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드리는 이유는, 저의 접근 방식이 단순히 과학적 분석만이 아니라 때로는 직관적 감각과도 함께 작동된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해서입니다. 그런 다차원적 시각이 있어야만 우리가 놓치고 있던 어떤 면들을 비로소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헨리 씨. 그럼 오늘은 어디서부터 시작해볼까요? 궁금하신 것이 있다면 편하게 질문해 주세요.

**헨리 로웰:**

교수님께서서는 단순한 고고학자이실 뿐 아니라, 불법(佛法)을 수련해 오신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 배경이 교수님의 고고학 및 역사 연구에 훨씬 더 다차원적인 통찰을 가져다주었을 것 같습니다.

**솔로몬 교수:**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눈빛에는 사색이 담겨 있으면서도 따뜻함이 묻어난다)

맞습니다, 헨리 씨.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제가 마음을 닦는 수행의 길—헨리 씨가 ‘불법’이라고 부른 그 길, 또는 더 넓게 말해 고대의 원칙에 따라 자신을 수련하는 길—을 걷게 된 것은, 역사와 고고학을 바라보는 시각에 정말 다른 깊이를 가져다주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전통적인 고고학은 발굴, 유물 분류, 그리고 현재의 과학적 방법을 통한 연대 측정에 집중합니다. 이 모든 작업은 매우 중요하며, 연구의 기초이기도 하죠. 하지만 거기서 멈추게 되면, 때때로 우리는 고대 유적이거나 문명이 전하려 했던 더 깊은 의미, 메시지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는 책상 위의 오래된 책 한 권을 집어 들고, 소중히 몇 장을 넘긴다)

수련의 길은 제게 역사가 단순한 우연한 사건들의 나열이거나 일직선상의 ‘진화 과정’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더 큰 법칙에 따라 움직이며, 고대 문화들이 언급했던 하나의 ‘순환’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이 덕분에 저는 문명의 흥망성쇠를 단순한 물질적 관점뿐 아니라, 도덕적·정신적인 관점에서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고대 유적 앞에 서 있을 때, 저는 단지 돌이나 도자기 조각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장소가 간직하고 있는 ‘흔’과, 그 안에 스며 있는 이야기들—그것이 전하려는 무언가—를 느껴보려 노력합니다. 수련은 제 마음을 더욱 고요하게 해주었고, 아마도 그 덕분에 공간과 시간 속에 남아 있는 미세한 ‘정보’나 흔적들과 더 쉽게 연결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항상 주관적인 느낌이 과학적 증거를 덮지 않도록 매우 신중하려 합니다. 이 두 측면은 서로를 보완하며,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하죠. 수련을 통해 얻은 통찰은 저에게 새로운 질문을 던지게 하고, 고고학적 증거를 더 넓은 관점에서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순수한 과학이 해결하지 못했던 부분에 실마리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기자 피라미드(Giza)의 거대한 구조물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가 고대 이집트인의 기술 수준만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질문들이 쏟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야를 확장하여, 그 이전에 더 높은 수준의 문명이 존재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 혹은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어떤 지성체의 개입이나 인도가 있었다는 가능성을 받아들인다면, 많은 것들이 비로소 말이 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 딸 로라의 ‘보는 인식’—그것이 절대적인 증거는 아니지만—은 때때로 이 퍼즐 속의 흥미로운 한 조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 아이는 그 능력을 비교적 이른 나이에 갖게 되었는데, 아마 열 살 무렵이었던 것 같고, 가장 또렷하게 나타났던 때는 우리가 이집트 기자 피라미드를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그때 아이는 열두 살쯤이었고, 마치 그 거룩한 장소에서 아주 강한 ‘개시’가 일어난 듯했습니다. 그녀가 묘사한 피라미드 건설 과정은 너무나 생생하고 구체적이어서, 저로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다른 장소들에 대한 그녀의 인식은 그렇게 선명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냥 어떤 감정이나 스쳐 지나가는 이미지일 뿐이기도 합니다.

저는 항상 아이에게, 그리고 저 자신에게도 상기시킵니다. ‘보이는 것’ 역시 각자의 인식 수준에 의해 제한될 수 있고, 때로는 신이 그 일부만을 드러낼 뿐, 모든 것을 한 번에 알려주지는 않는다는 것ですよ. 이것은 어느 정도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존중해야 할—‘천기 누설은 하지 않는다’는—원칙이기도 합니다.

헨리 씨, 이 주제는 정말 방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더 구체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그쪽부터 말씀해 주세요.

### **헨리 로웰:**

예전에 비행기에서 교수님과 나눈 대화 기억나시죠? 사실 저도 종교 경전들을 읽는 걸 아주 좋아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종교의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보려면, 신의 존재를 인정함과 동시에 인간이 때때로 과학적 분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 역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교수님의 따님, 로라 같은 경우 말이죠...

하지만 THE LIVES MEDIA 의 독자분들이 이런 내용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려면, 먼저 고고학이나 과학적인

관점부터 접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언급하셨던 이집트 피라미드 말인데요, 그 기원의 정체에 대해 어떤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솔로몬 교수:**

(집중해서 듣고 있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의 뜻을 보낸다)

헨리 씨, 정말 핵심을 찌르셨네요. 맞습니다. 역사의 더 깊은 층위를 이해하기 위해선 때때로 ‘신’과 같은 개념이나 실증 과학을 넘어서는 어떤 능력에 대해 열린 마음이 필요하죠.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더 많은 독자들이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으려면 익숙한 영역, 즉 고고학과 과학적 분석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기차 피라미드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이 구조물은 언제나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도전 과제였습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설은, 이 피라미드가 제 4 왕조 파라오의 무덤이며 약 20 년 동안 인력과 원시적인 도구만으로 지어졌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주장은 세부적으로 들어갈수록 많은 모순을 드러냅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책장으로 가서 오래된 문서 뭉치를 꺼낸다. 그 안에는 피라미드의 사진과 도면들이 가득 들어 있다)

첫째, 연대에 대한 문제입니다. 정설에 따르면 이 피라미드는 기원전 2589 년에서 2566 년 사이에 건설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천문학적 증거들 중에는 정말 흥미로운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자에 있는 세 개의 주요 피라미드가 오리온 자리의 세 별과 거의 완벽하게 정렬되어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 정렬이 가장 정확했던 시점은 기원전 약 10,500 년경으로 추정되며, 이 시점은 기존 학계의 시간표보다 너무 이른 시기라 논의조차 꺼려지는 주제입니다.

둘째, 건축 기술입니다. 우리는 수백만 개의 석재—하나는 약 2.5 톤에서 많게는 80 톤이 넘는—를 완벽에 가까운 정밀도로 절단하고, 틈 하나 없이 조립해낸 구조물을 보고 있습니다. 당시 이집트인들이 사용했던 도구가 구리나 부식돌에 불과했다면, 이 무게의 석재들을 어떻게 채굴하고, 운반하고, 수십 미터 높이로 쌓아올릴 수 있었을까요? 수천 명의 노예들이 끈으로 돌을 끌고 있다는 벽화는 단지 하나의 가설일 뿐이며, 실제로 그런 대규모 인력이 오랫동안

안 기사에서 일했다는 고고학적 증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셋째, 이 피라미드에 담긴 수학적·천문학적 지식입니다. 예를 들어, 대피라미드의 바닥 둘레에 43,200 을 곱하면 지구의 적도 둘레와 거의 일치하고, 높이에 43,200 을 곱하면 지구의 극반지름이 나옵니다. 이 숫자 43,200 은 지구의 세차 운동과 관련된 수치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초기 문명이 이처럼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었을까요? 또한, 원주율( $\pi$ )과 황금비(Phi) 역시 이 피라미드의 비율 구조 속에 매우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는 헨리를 바라보며, 목소리가 다소 낮아진다)

그렇다면, 만약 파라오 시대의 이집트인들이 이 구조물을 건설한 것이 아니라면, 혹은 적어도 그들이 주체가 아니었다면, 도대체 누가 지었을까요? 이 질문이야말로, 우리가 과거의 또 다른 문명 주기를 상상하게 만드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로라의 ‘보는 인식’이 다시 흥미로운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기사에 있었을 때, 그녀는 열두 살 째이었고, 당시 그녀가 묘사한 내용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곳에서 돌을 옮기던 사람들은 지금의 인간보다 훨씬 큰 키—5 미터가 넘

는—를 가졌으며, 외형상으로는 단순히 인력으로 작업을 하는 것 같았지만, 그 배후에는 신적인 힘이 덧붙여졌다는 느낌이 들었다고요. 또한, 어떤 형태의 에너지를 사용했는데, 그것이 소리일 수도 있고, 우리가 아직 모르는 기술일 수도 있으며, 그것을 통해 돌을 가볍게 만들거나 쉽게 움직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빛을 내는 도구도 보았고, 그것을 사용해 밤낮없이 작업을 했으며, 그 현장은 고요하면서도 매우 신성한 분위기였다고 해요. 노예들의 고된 현장이 아니라, 무언가 제의적이고 숭고한 작업의 장소처럼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는 어린아이의 묘사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말한 내용은 놀라울 정도로 일관되었고, 매우 구체적이었으며, 우리가 방금 분석한 물리적 증거들과도 어느 정도 맥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보면, 기자 피라미드는 단순히 파라오 시대의 산물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앞선, 보다 고등한 문명의 유산일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아마도 그 구조물을 ‘상속받았거나’, 다시 사용했거나, 혹은 흉내 내보려 했던 것일지도 모르죠.

자, 헨리 씨. 지금까지의 분석을 보면, 우리는 기자 피라미드에 대한 정설을 진지하게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헨리 로웰:**

남아 있는 고대 유적들을 보면, 겉보기와는 전혀 다른 복잡성과 정교함이 있다는 걸 자주 느낍니다…

교수님께서 아까 언급하신 그 숫자 말인데요, 제가 언젠가 어렵פות이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12 시간 × 60 분 × 60 초 = 43,200 초… 이 숫자가 과연 우연일까요?

그리고 피라미드가 세워진 위치도 뭔가 특별한 위도나 경도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한, 교수님의 따님 로라가 '본' 것들이 정말 사실이라면—그 이미지들이 구체적인 무언가를 암시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솔로몬 교수:**

(헨리의 날카로운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며, 눈빛에 흥미가 번뜩인다)

헨리 씨, 정말 깊이 있는 질문을 해 주셨네요. 피라미드의 신비를 더 깊이 파고들기 위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 들입니다.

먼저, 43,200 이라는 숫자에 대해 말씀드리죠. 12 시간을 초 단위로 환산한 것과 같다는 점을 짚어내신 건 아주 예리한 관찰입니다. 이것이 정말 우연일까요? 저는 연구를 하면서, 특히 피라미드처럼 탁월한 지혜가 담긴 고대 구조물 앞에서는 '우연'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지 않게 됩니다. 특정한 숫자가 반복적으로, 그리고 다양한 체계 속에서 의미를 가질 때, 그것은 종종 어떤 의도를 가진 '암호화'일 수 있습니다.

43,200 이라는 수는 제가 앞서 언급한 지구의 세차운동 주기(약 25,920 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숫자는 고대의 시간 단위를 기준으로 보면 그 주기의 1/600 이 되거나,  $21,600 \times 2$  로도 볼 수 있습니다. 2,160 은 지구가 황도대의 한 별자리를 통과하는 데 걸리는 시간으로 계산되기도 하죠. 그런데 이 숫자가 12 시간의 초 단위와도 일치한다는 사실은, 고대인들이 자신의 지식을 우리에게 익숙한 시간 단위 속에 담아 전하고자 했던 일종의 '동기화' 혹은 '암호'였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단순히 천문 현상을 알고 있었던 수준을 넘어

서, 우주의 다양한 주기들이 서로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를 통찰하고 있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이제 피라미드의 지리적 위치에 대해 이야기해 보죠. 이건 정말로 놀라운 부분입니다.

아시겠지만, 기자의 피라미드는 지구 대륙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거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 지구의 위도와 경도를 기준으로 대륙을 균등하게 나누었을 때, 그 교차점이 바로 기자 근방에 위치하게 되죠. 이런 정렬이 우연이라고 보기엔 어렵습니다. 이는 지구 전체에 대한 지리적 이해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고대 이집트 문명에겐 그런 능력이 있었다고 보긴 어렵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이 있습니다. 많은 연구자들이 주목한 사실인데요, 대 피라미드가 위치한 위도는  $29.9792458^{\circ}$  북위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진공 상태에서의 빛의 속도—299,792,458 미터/초—와 거의 일치합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미터'나 '초'라는 단위 자체가 현대의 개념이기 때문에 고대인들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피라미드에 내재된 천문학적·수학적 지식들을 함께 고려해 보면, 이런 일치가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어쩌면 고대의 어떤 단위 체계가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방식으로 우주의 상수들과 연결되어 있었을 수도 있고, 혹은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메시지—즉, 먼 미래의 문명(바로 우리)이 그 메시지를 해독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암호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대피라미드는 동서남북 네 방향을 거의 완벽하게 정렬한 채 지어졌습니다. 그 오차는 고작 0.05 도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걸 현대 기술로도 쉽지 않은 정밀도입니다. 이 말은 곧, 그들은 놀라운 수준의 천문 지식은 물론이고, 매우 정교한 측정 도구와 기술을 갖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나침반도 없던 시절에, 어떻게 그들은 '진북'(자북이 아님)을 그렇게 정확히 찾을 수 있었을까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며 로라의 말을 떠올리는 듯한 표정을 짓는다)

이제, 만약 우리가 영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본다면—즉, 로라가 ‘보았다’고 한 것들이 실제 건설 당시의 모습이었다면—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는 걸까요?

첫째, 고도의 문명 수준입니다. 건설자들이 훨씬 큰 신체를 가지고 있었고, 소리나 빛, 혹은 우리가 아직 모르는 형태의 에너지를 활용해 석재를 이동시키고 다루었다는 것

은, 이들이 단순한 노동자들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장인들이자 기술자였고, 놀라운 지식과 능력을 가진 존재들이었습니다.

둘째, 신성한 목적입니다. 로라가 느꼈던 그 엄숙하고 경건한 분위기는, 이 피라미드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닌 어떤 영적인 목적을 담고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그것은 왕의 무덤이 아니라, 천문 관측소이거나 에너지 센터, 혹은 중요한 의식을 거행하던 장소였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것 자체가 어떤 '메시지'를 담은 표식이었을지도 모르죠.

셋째, 더 높은 존재들의 개입 또는 인도입니다. 만약 이들이 그러한 능력과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들은 과연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을까요? 혹은 전혀 다른 종족이었을까요? 아니면, 신이나 더 높은 차원의 생명체들에게 인도를 받았던 존재들이었을까요? 로라가 말했던 '빛을 발하는 도구'나 '돌이 가벼워졌다'는 묘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초자연적' 혹은 '외계적'이라 부르는 능력이나 기술과도 닮아 있습니다.

이러한 '보는 인식'과 고고학적, 과학적 증거들이 결합될 때, 우리는 기차 피라미드가 단순한 고대 이집트 문명의 결과물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앞선 시대—즉, 이미 잊힌 선문명—의 유산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더욱 강하게 느끼



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어떤 ‘봉인된 메시지’ 같아서, 우리가 충분히 지혜롭고 열린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해독할 수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자, 헨리 씨. 이 모든 연결고리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멀게만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오히려 훨씬 더 웅장하고 복잡한 역사의 실체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되시나요?

**헨리 로웰:**

교수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여러 증거들을 보면, 고대 이집트인들이 그 정도의 기술력이나 지리, 천문, 우주, 시간, 수학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고등 지식을 갖고 있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 43,200 이라는 숫자, 그게 12 시간의 초 단위와 같잖아요. 그런데 중국 고대에서는 하루를 정확히 12 시간(時辰)으로 나눴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서로 다른 시대와 공간을 넘나드는 무형의 연결 고리가 존재하는 건 아닐까요?

**솔로몬 교수:**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인다)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헨리 씨! 저 역시 자주 그 부분을 곱씹곤 합니다. 43,200 이라는 숫자가 피라미드와 지구의 비율 속에 담겨 있는 것과, 고대 중국에서 하루를 12 시진(한 시진은 현대 기준 2 시간)에 나눴다는 사실 사이에는 분명 주목할 만한 유사성이 있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동아시아의 간지 체계에는 ‘원(元)’이라 불리는 대주기가 존재하는데, 그 길이는 129,600 년입니다. 이건  $43,200 \times 3$  과 같습니다. 또 인도 고대 경전에서는 마하 유가(Maha Yuga), 즉 ‘대격’ 하나가 4,320,000 년에 달하며, 이는 네 개의 소유가(Yuga)로 나뉘고 각각 특정한 비율을 따릅니다. 여기도 ‘432’라는 숫자가 기본 요소로 등장합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사색하듯 헨리를 바라본다)

그렇다면 정말, 다른 시공간에 존재했던 여러 문명과 지식 체계 사이에 어떤 보이지 않는 연결 고리가 존재했던 걸까요?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이건 몇 가지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첫째, **공통된 지식의 원천**입니다. 어쩌면 과거 아주 먼 시절, 아틀란티스나 레무리아처럼 불리는 어떤 ‘모 문명’이 있었고, 그 문명은 우주에 대한 포괄적 지식을 갖추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문명이 몰락하거나 사라진 이후, 그 지식의 조각들이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인도, 중국, 마야 등 후속 문명들에 흩어져 전해졌고, 각 문명은 그 조각들을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해석하고 표현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는 연결되어 있지 않아 보이는 문화들에서 유사한 상징, 수치, 구조 등을 발견하게 되는 지도 모릅니다.

둘째, **지식의 전파**입니다. 고대에는 진정한 지혜를 지닌 존재들—철인, 성자, 수련자들—이 세계 곳곳을 여행하며 이 지식을 전파했을 수도 있습니다. 역사에는 다양한 이주와 교류가 기록되어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더 미세하고 깊은 ‘지식의 흐름’이 존재했을 수도 있죠. 우리에게 아직 포착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셋째, **동시적 계시(啓示)**입니다. 이걸 보다 영적인 해석인데요, 이러한 지식들이 각 시대, 각 문명의 특별한 사람들에게 ‘동시적으로’ 계시되었을 가능성입니다. 우주가 일정한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면, 여러 문화권의 사람들이 명상이나 관찰, 직관 등을 통해 같은 원리를 깨달을 수도 있겠

죠. 현대 과학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서로 다른 과학자들이 동일한 이론을 독립적으로 발견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 가지 가능성이 모두 일정 부분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딘가에 존재했던 고대의 지식 원형이 있었고, 그것을 지닌 이들이 그것을 지키고 전달하려 했으며, 동시에 후세의 통찰력 있는 이들이 그것을 다시 ‘깨닫거나 계시받는’ 과정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432 또는 그 배수들은 고대의 신성한 건축물들(예: 피라미드), 우주의 주기(세차운동, 유가), 고대 시간 측정 체계, 그리고 음악(예:  $A=432\text{Hz}$  튠닝 등)에서도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단순한 우연이라 보기 어려운 이 반복성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바로 우주적 조화, 기본 진동 주파수, 인간과 우주의 ‘동조’ 가능성에 대한 깊은 이해 말이죠.

헨리 씨께서 언급하신 ‘보이지 않는 실’이라는 표현—그건 어쩌면 우주의 불변 법칙일지도 모릅니다. 고대 문명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그 실을 붙잡으려 했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단서처럼 남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역할은, 그 조각들을 연결해 전체 그림을 다시 복원하는 일이겠죠. 그것이야말로 인류가 과거로부터

터 계승받은 지혜의 유산을 다시 이해하고 재발견하는 여정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역사를 단지 유물이나 유적의 물질적 잔재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수와 상징, 문화 간의 연결성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그건 과거를 원시적이라고 여겨온 기존 인식을 무너뜨리고, 고대인들의 성취 앞에서 우리가 더 겸허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줍니다.

### **헨리 로웰:**

만약 우리가 영적이고 신비로운 관점을 미신이 아니라, 매우 현실적인 가능성으로 받아들인다면, 수많은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만약 이집트 피라미드를 아득히 먼 문명의 유산으로 본다면... 그 연대는 언제쯤일까요? 그 당시 피라미드 주변 지역도 오늘날처럼 미래로 뒤덮여 있었을까요? 누가 이 피라미드 건설을 결정했을까요? 왕이었을까요, 아니면 당시의 사제나 과학자들이었을까요? 그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런 질문들은 꽤 구체적이고 호기심을 자

극하는데요… 혹시 교수님 따님이 본 것이 조금이나마 실마리를 줄 수 있을까요?

**솔로몬 교수:**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기억과 통찰의 창고를 뒤지듯 목 소리가 차분하게 가라앉았다)

헨리 씨, 정말 중요한 질문들을 하셨습니다. 피라미드의 진정한 기원을 알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품었을 법한 질문들이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만약 우리가 현대 과학이 '신비롭다'고 부르는—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아직 다 발견하지 못한 자연법칙일 수 있는—요소들까지 포함하는 관점을 과감히 열어젖힌다면, 역사의 그림은 훨씬 더 명확해질 겁니다.

피라미드의 연대에 관해서 말하자면, 만약 우리가 그것을 선사시대 문명의 유산으로 받아들인다면, 제가 언급했던 기원전 10,500 년이라는 숫자는—오리온자리와 피라미드들의 정렬 및 일부 지질학적 증거에 근거한—우리가 잠정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시점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중요한 재건 사건이 있었던 시기이거나, 혹은 훨씬 더 오래전에 존재했던 건축물들을 계승한 문명이 그것을 다시 사용하거나 '활성화'했던 연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로라의 말에 따르면, 피라미드는 아주아주 오래전, 대략 7 천만 년에서 8 천만 년 전에 지어졌다고 합니다... 정말 아득히 먼 숫자이지요...

헨리 씨께서도 넌지시 말씀하셨고, 이는 연구계의 더 심오한 가설과도 일치하는데, 피라미드가 여러 차례의 거대한 지각 변동 주기를 거치면서, 심지어 깊은 바닷속에 잠겼다가 다시 솟아오르기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것들의 실제 연대는 수십만 년, 심지어 수백만 년 전으로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이는 주류 역사학이 받아들이는 시간의 규모를 훨씬 뛰어넘지만, 길고 긴 문명의 주기와 장대한 지각 운동이라는 개념에는 완벽하게 부합합니다.

그 당시가 기원전 10,500 년이든, 8 천만 년 전 혹은 그보다 더 먼 과거이든, 피라미드 주변 지역은 오늘날처럼 모래로 뒤덮여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많은 고기후학 연구들은 북아프리카가 과거에 초원과 풍부한 강이 있는 더 습한 시기를 겪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아는 오늘날의 사하라 사막은 지질학적 역사에서 비교적 '젊은' 현상일 뿐입니다. 따라서 피라미드는 훨씬 더 풍요롭고 푸른 땅이 내려다보이는 고원 위에 세워졌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헨리 씨의 좀 더 구체적인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그리고 제 딸 로라가 '본' 것이 과연 어느 정도 실마리를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피라미드 건설을 누가 결정했는가와 같은 질문들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기자에 갔을 때 로라가 '보고' 들려준 이야기는 정말 특별했습니다. 아이의 묘사에 따르면, 가장 큰 피라미드의 건설을 시작한 이는 젊은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세속적 권력뿐만 아니라 깊은 영적 지혜와 연결을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로라가 본 이미지에 따르면, 이 피라미드들을 짓는 과정에는 그의 여동생인 공주도 지휘에 참여했는데, 그녀 역시 오빠와 비슷한 자질을 지녔으며, 왕위를 계승하여 그 사명을 이어받아 인접한 두 번째 피라미드의 건설을 주관했다고 합니다.

이는 건설 결정이 단지 한 개인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후세를 위해 정신을 이끌고 지식을 보존할 책임을 부여받은 한 혈통의 사명이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들은 세속적인 의미의 개인적 명성을 위해 지은 것이 아니라, 아마도 에너지의 '땃'을 만들거나, 우주와 연결하는 도구를 만들거나, 혹은 격변의 주기를 거치며 지식을 보존할 보고를 만들기 위한 더 숭고한 목적을 위해 지은 것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로라가 느낀 바로는, 건설에 참여한 사람들은 강제로 동원된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기술과 이해를 갖춘 사람들이었으며, 헌신적이고 장엄한 정신으로 일했습니다. 아이는 사람들이 자연과 가깝게 지내고 우주의 법칙에 대한 경외심을 가졌던, 질서 있는 사회를 느꼈다고 합니다.

특히, 거대한 석판들을 옮기고 조립하는 것과 같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그들이 어떻게 해냈는지에 대해 로라가 느낀 바는, 원시적인 도구에 기반한 설명들에 대한 제 회의감을 더욱 굳혀주었습니다. 아이는 그들이 일종의 특별한 능력을 사용했다고 봤습니다. 수련계에서 때때로 언급하는 '운반 공능(運搬功)'과 같은 것이라고 상상해볼 수 있겠습니다. 즉, 의지나 소리 에너지, 혹은 오늘날 우리 과학이 아직 파악하지 못한 미세한 형태의 에너지로 무거운 물체를 옮기는 능력을 말합니다. 로라는 '소리가 돌을 진동시켜 더 가볍게 만들었다'거나, 단순히 빛을 비추는 것뿐만 아니라 물질에 영향을 미치는 '빛을 내는 도구들'에 대해 묘사했습니다.

이는 그 시대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가 '초자연적'이라고 여기는 에너지의 형태와 마음의 능력을 다룰 줄 알았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삶은 복잡한 기계 장치에 덜

의존하고, 자연과의 조화와 인간의 내재된 잠재력을 개발하는 데 더 많이 의존했을 겁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헨리를 바라보았다)

헨리 씨, 로라의 이런 '얕'은 비록 현재의 과학적 방법으로는 증명하기 매우 어렵지만, 과거를 들여다볼 수 있는 매우 흥미로운 문을 열어줍니다. 이것은 고고학 연구를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며, 우리가 정해진 틀을 넘어서는 질문을 과감히 던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피라미드는 그 모든 신비와 웅장함으로, 우리에게 잃어버린 역사, 비범한 사람들과 심오한 지식의 역사에 대해 속삭이고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우리가 지성과 가슴 모두로 귀를 기울일 때에만, 비로소 그 '메아리'들을 이해하기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 **헨리 로웰:**

방금 교수님께서 그들이 피라미드를 개인적인 목적, 즉 무덤으로 사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숭고한 목적을 위해 지

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데요… 그렇다면 그 "숭고한" 목적이란 무엇입니까?

**솔로몬 교수:**

(헨리를 바라보며, 잠시 놀란 듯하다가 이내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헨리 씨, 정말 심오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피라미드 미스터리의 바로 그 심장부를 꿰뚫는 질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방금 나눈 이야기로 미루어 볼 때, 건설자들의 동기는 무덤을 짓는 것과 같은 개인적인 계산이나 평범한 세속적 목적을 훨씬 뛰어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숭고한"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을 때…

(교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먼 곳을 응시했다. 그의 목소리는 경외심과 감동이 섞인 듯 나직하게 가라앉았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딸 로라에게서 피라미드의 진정한 목적에 관해 아이가 '본' 것—특히 저희가 기자에 있을 때 아이가 목격했던, 제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어떤 장면들과 이미지들—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정말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들은 너무나 거대하고 심오해서, 순수한 고고학자로서의 제 모든 추측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숨을 깊게 들이마신 후, 헨리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것은 제가 헨리 씨와 상세하게 나누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아마도 우리는 이 질문을 잠시 접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에 그 목적의 거대함을 진정으로 느끼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의 근본적인 지점, 즉 주류 과학계가 여전히 인정하기를 주저하는 한 가지 진실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자의 피라미드가, 전 세계의 다른 수많은 경이로운 고대 건축물들과 마찬가지로, 어쩌면 우리 현문명의 산물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들은 역사가 잊어버린, 훨씬 더 아득한 연대의 문명들이 남긴 유산입니다.

만약 우리가 피라미드를 그것의 올바른 시간적 배경에 놓지 않는다면, 그것의 시간을 초월한 신성한 목적에 대해 논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게 될 겁니다. 이 점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우리 함께 이 건축물들의 비범한 고대성을 보여주는 증거들을 먼저 살펴본 다음, 그때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시 돌아와 로라가 그 진정한 목적에 대해 '본' 것, 바로 역사와 인간의 조건에 대한 제 모든 이해를 재고하게 만든 그 목적에 대해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헨리 로웰:**

그렇군요. 그럼 그 질문은 나중에 다시 하기로 하고요...

만약 이 지구에 정말로 여러 문명 주기가 있었다면, 피라미드 외에 교수님께서서는 다른 고고학적 증거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제가 아주 유명한 책인 『전법륜』에서 읽었던 한 구절이 기억나는데요, 저자가 수억 년 전의 삼엽충 사체 위에 찍힌 신발 자국이나, 페루의 작은 돌에 새겨진 약 3 만 년 전의 천체 관측하는 사람의 모습에 대해 언급했었습니다... 이런 고고학적 증거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솔로몬 교수:**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눈에 흥미가 어렸다)

네, 헨리 씨, 아주 시의적절한 질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문명 주기의 가능성을 받아들인다면, 기자의 피라미드가 유일한 사례일 수는 없겠죠. 그리고 실제로, 흔히 "오파츠(ooparts)"—out-of-place artifacts, 즉 시대에 맞지 않는 유물—라고 불리는 수많은 고고학적 발견물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마치 흩어진 퍼즐 조각처럼 우리가 익히 아는 역사의 연대표에 도전장을 내밉니다.

헨리 씨께서 언급하신 그 책에서 읽으셨다는, 아주 유명하고 실제로 과학계에서 논란이 많은 사례들을 말씀해 주셨군요.

첫째로, 삼엽충 화석 위의 신발 자국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이 발견은 만약 절대적으로 검증된다면 정말 충격적인 일입니다. 삼엽충은 5 억 4 천만 년에서 4 억 8 천 5 백만 년 전인 캄브리아기에 살았던 생물입니다. 신발 자국, 즉 신발을 제작하고 사용할 수 있는 인간 또는 인간형 생명체의 존재를 암시하는 흔적이 삼엽충과 같은 시대에 나타난다는 것은, 지구상 지적 생명체의 존재를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아득한 과거로 되돌려 놓게 됩니다. 주류 과학계는 보통 회의적이며, 그것이 우연히 신발 자국처럼 보이는 형태로 만들어진 자연 현상이거나, 연대 측정에 착오가 있었거나, 심지어는 조작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 표본이 진짜이고 그 흔적이 정말로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면, 생명의 역사에 대한 우리의 모든 이해는 다시 쓰여야 할 겁니다.

둘째로, 페루 이카의 조각된 돌들에 대해서입니다. 하비에르 카브레라 박사가 수집했다고 알려진 이 돌들에는 매우 놀라운 장면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공룡과 함께 살고, 복잡한 외과 수술(심장 이식, 뇌 이식 등)을 시행하

며, 망원경으로 은하를 관측하는 등, 뛰어난 의학과 천문학 수준을 보여주는 여러 이미지들이죠. 만약 이 조각들이 일부 사람들이 주장하듯 수만 년 또는 그 이상(헨리 씨가 언급하신 3 만 년이라는 연대도 그 추정치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의 고대에 만들어진 것이라면, 그것들은 주류 관점에서 본 그 시대 인류의 발전 수준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카의 돌들의 진위 역시 큰 논란의 대상이며, 많은 이들이 현대의 위조품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헨리를 바라보았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가 단지 현재의 이론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 모든 '시대에 맞지 않는' 발견들을 성급하게 기각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각각의 사례는 열린 마음과 동시에 과학적인 냉철함을 잃지 않고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합니다.

헨리 씨가 드신 두 가지 예 외에도, 생각해 볼 만한 다른 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클렉스도르프 구체가 있습니다. 남아프리카에서 발견된, 돌레에 평행한 홈들이 규칙적으로 파여 있는 금속 구체들인데, 약 28 억 년 전으로 추정되는 선캄브리아기 암석층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인공적으로 제작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연대가 너무나 오래되었죠.

그리고, 오클로의 천연 원자료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가봉에서, 약 17 억에서 20 억 년 전에 가동되었던 천연 원자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과학계에서는 이것을 희귀한 자연 현상으로 설명하지만, 그것이 발생하기 위해 필요한 극도로 복잡한 조건들을 고려할 때, 지구가 과거에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에 대해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런던 망치라는 것도 있습니다. 일부가 화석화된 나무 손잡이가 달린 철제 망치인데, 1936 년 텍사스 런던의 사암 덩어리 속에 완전히 파묻힌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이 암석층은 오르도비스기(4 억 년 이상 전) 또는 백악기(6 천 5 백만 년 이상 전)의 것으로 추정됩니다. 망치의 합금 품질 또한 매우 특별합니다.

(교수는 의자에 등을 기댔고, 그의 목소리는 사색에 잠겨 낮아졌다)

이 유물들은 각각 따로 떼어놓고 보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설명되거나 반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들을 기자의 피라미드와 같은 거대한 건축물들과 함께 하나의 집합체로 바라볼 때, 그것들은 하나의 가능성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바로 우리의 역사가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나아가는 단순한 직선적 진화가 아니라는 가능성 말입니다. 오히려 수많은 문명 주기가 있었고, 그중 일부



는 매우 높은 발전 수준에 도달했다가 어떤 이유로 쇠퇴하고 사라져, 우리가 지금 해독하려 애쓰는 희미한 흔적, 미약한 '메아리'만을 남겼을지도 모릅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이 유물들은 바로 우리가 과거 앞에서 더 겸손해져야 하고, 이미 확립된 듯한 '진리'에 대해서도 기꺼이 질문을 던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을 일깨워주는 존재들입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것보다 훨씬 더 광대하고 복잡한 역사의 그림을 암시하는, 희미하게 빛나는 섬광과도 같습니다.

### **헨리 로웰:**

저는 영국에 있는 꽤 유명한 유적인 스톤헨지에 대해 알고 있는데요, 교수님께서도 그것에 대해 연구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혹시 그것에도 이해하기 어려운 숫자나 세부 사항들이 담겨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 역시 아주 먼 옛 문명의 산물일까요?

### **솔로몬 교수:**

(고개를 끄덕이며, 입가에 의미심장한 미소가 떠올랐다)  
스톤헨지! 네, 유럽에서 가장 신비롭고 매혹적인 건축물 중 하나이며, 틀림없이 아주 흥미로운 연구 대상이죠. 저

도 그것에 대해 알아볼 시간을 가졌었는데, 실제로 스톤헨지 역시 그것의 진정한 기원과 목적에 대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게 하는 요소들을 담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스톤헨지가 기자의 피라미드에 비해 규모나 석재 가공의 정교함 면에서 훨씬 '소박'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파고들면, 우리는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연대와 건설자에 관해서는, 주류 고고학에 따르면, 스톤헨지는 기원전 3000 년경부터 시작하여 기원전 1600 년경에 완성되는 등 여러 단계를 거쳐 건설되었습니다. 건설자들은 영국의 신석기 및 청동기 시대 부족들로 여겨집니다. 이는 매우 긴 기간이며, 그동안 건축물의 구조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점들과 더 먼 옛 문명에 대한 암시를 보자면,

첫째로, '블루스톤' 운반에 관한 것입니다.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는 각각 2 톤에서 5 톤에 달하는 작은 청석(bluestones)들의 운반입니다. 이것들은 스톤헨지에서 서쪽으로 240 마일(거의 400km) 이상 떨어진 웨일스의 프레슬리 산맥에서 왔습니다. 원시적인 도구를 가진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그토록 멀고 험난한 지형을 거쳐 이

돌들을 운반할 수 있었을까요? 인력으로 나무 굴림대를 이용해 끌거나 뗏목으로 강을 따라 운반했다는 가설은 여전히 설득력이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이는 우리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어떤 수준의 기술이나 운송 방식이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둘째로, 천문학적 지식에 관한 것입니다. 스톤헨지는 무작위로 세워진 돌무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중요한 천문 현상을 표시하기 위해 높은 정확도로 배치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동지와 하지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건축물의 주축은 하지(일 년 중 낮이 가장 긴 날)의 일출 방향과 동지(일 년 중 밤이 가장 긴 날)의 일몰 방향과 일치합니다. 유명한 '힐 스톤(Heel Stone)'이 바로 이 위치에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달의 주기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오브리 홀(Aubrey Holes)'이라는 구멍들과 다른 돌기둥들이 월식을 포함한 복잡한 달의 주기를 예측하는 데 사용되었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여러 세대에 걸친 지속적인 천문 관측과 정교한 기록 및 계산 체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건설의 정확성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비록 기자의 피라미드처럼 절대적인 정확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거대한 사암(sarsens) 덩어리들—가장 큰 것은 50 톤에 달합니다—을 가공하고 조립한 것 또한 대단한 업적입니다. 가로로 놓인 상인방(lintels)은 수직 기둥 위에 장부와 장부 구멍(mortise and tenon joints) 기법으로 올려졌는데, 이는 석조 건축보다는 목공에서 더 흔히 볼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는 존경할 만한 정교함과 구조에 대한 이해를 보여줍니다.

그것의 진정한 목적에 관해서는, 왜 그토록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 스톤헨지와 같은 건축물을 지어야 했을까요? 가장 일반적인 가설은 천문대, 종교 의식 장소, 또는 치유의 중심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일까요?

제럴드 호킨스와 같은 일부 연구자들은 스톤헨지가 고대의 '천문 컴퓨터'였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과학적으로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현지 전설에서는 스톤헨지가 마법사나 거인들에 의해 지어졌으며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더 먼 옛 문명의 산물일까요?

이것은 현재의 고고학적 증거만으로는 명확하게 답하기

매우 어려운 질문입니다. 하지만, 아주 먼 거리에서 청석을 운반한 점, 유목이나 초기 농경 부족의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보이는 복잡한 천문학 지식, 그리고 끈질기게 이어져 온 전설들 때문에 일부 연구자들은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기합니다.

혹은, 스톤헨지의 건설자들이 잊혀진 그 이전의 더 정교한 문명으로부터 지식을 계승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우리가 기자의 피라미드에 대해 추측하는 것처럼, 더 높은 지식을 가진 이들의 '지도'나 '도움'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피라미드에 비하면, 스톤헨지에서 극도로 오래된 연대(수만 년 이상)에 대한 증거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의 복잡성과 미스터리들은 그것을 만든 이들이 우리가 그 시대 사람들에 대해 흔히 상상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우주에 대한 이해와 건설 기술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기에 충분합니다.

그것은 피라미드처럼 크고 분명한 '메아리'는 아닐지 몰라도, 스톤헨지는 여전히 과거로부터 온 신비로운 속삭임이며, 역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단순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일깨워 줍니다. 그것은 또한 이집트에 있든, 영국에 있든, 페루에 있든, 천문학 지식과 자연의 주기에 대한 지

식이 많은 고대 문화의 영적, 사회적 삶에서 중요한 부분이었음을 보여주는 예이기도 합니다.

이런 점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헨리 씨? 이것이 문명 주기에 대한 가설을 더욱 뒷받침해 주지 않나요?

**헨리 로웰:**

네, 저희가 이야기 나눈 각 유적들은 그것이 다른 먼 옛 문명의 산물이라고 볼 때 쉽게 이해가 되는군요...

그렇다면 아시아에는 이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주목할 만한 유적이 있을까요? 중국이나 인도에 5 천 년이 넘는 연대의 고대 건축물이 있는지요? 그리고 최근에 인도네시아에 있는 한 피라미드에 대해, 과학자들이 최소 3 만 년의 연대로 확인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솔로몬 교수:**

(고개를 끄덕이며, 아시아, 즉 수많은 고대 문명과 깊은 영적 전통의 요람을 언급하자 그의 눈에 사색의 빛이 어렸다)  
헨리 씨, 정말 중요하고 역사적 유산이 풍부한 지역을 언급하셨군요. 바로 아시아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선사시대 문명 주기의 흔적을 찾는다면, 아시아는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곳입니다.

중국과 인도에 관해서는,  
중국과 인도 모두 수천 년에 걸친 역사 기록과 전설을 가지고 있으며, 심지어는 그보다 더 먼 시대를 암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자의 피라미드나 스톤헨지와 비슷한 규모를 가지면서 5,000 년을 확실히 넘는 연대의 물리적인 건축 구조물을 찾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더 큰 도전입니다.

첫째, 건축 자재 때문입니다. 아시아의 많은 고대 건축물들은 돌보다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쉽게 부식되는 목재나 다른 유기 재료를 사용했습니다.

둘째, 문명의 연속성 때문입니다. 문명이 지속적으로 발전한 곳에서는 오래된 건축물 위에 새로운 건축물이 덧씌워지거나, 개조되거나, 혹은 새로운 건축물을 위해 철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원래의 연대를 특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셋째, 지질 및 기후 변동 때문입니다. 아시아는 또한 지질 변동, 홍수, 지진이 많은 지역으로, 많은 고대 유적을 쓸어버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흥미로운 단서가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중국을 언급해 보겠습니다.

시안 근처에는 수십 개의 거대한 흙무덤 군집이 있는데, 이는 고대 중국 황제와 귀족들의 능으로 여겨지며, 일부는 한나라 시대(기원전 206 년 - 서기 220 년) 또는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공식적인 연대는 5,000 년을 넘지 않지만, 이 흙무덤들 중 일부의 크기와 배치, 그리고 전설적인 '백색 피라미드'에 대한 현지 전설 때문에 일부 서양 연구자들은 그 아래나 근처에 더 오래된 구조물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에서의 고고학적 발굴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홍산 문화(Hongshan culture)도 있습니다. 기원전 4700 년 - 2900 년경 중국 동북부에서 나타났으며, 매우 정교한 옥 공예품과 '여신묘' 및 대형 고분군을 포함한 석조 제례 건축물로 유명합니다. 비록 5,000 년의 틀 안에 있지만, 이 문화의 복잡성과 예술적 수준은 그 이전에 발전된 기반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인도를 보면,

인더스 계곡 문명(하라파 문명)이 있습니다. 기원전 2600 년 - 1900 년경에 번성했으며, 모헨조다로와 하라파 같은



매우 잘 계획된 도시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는 세계 최초의 도시 문명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드는 질문은, 이처럼 복잡한 문명이 어디에서 발전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아직 다 발견하지 못한 더 오래된 선(先)하라파 시대가 있었을까요?

인도 전역에 흩어져 있는 고인돌(dolmens), 환상열석(stone circles)과 같은 거석 구조물들은 정확한 연대 측정이 매우 어렵지만, 일부는 기원전 수천 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헨리 씨가 언급하신 인도네시아의 피라미드 – 구농 파당(Gunung Padang)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것은 정말 매력적이고 최근 몇 년간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사례입니다! 구농 파당은 인도네시아 서부 자바의 한 언덕 꼭대기에 있는 고고학 유적지로, 여러 층으로 배열된 현무암 기둥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년 동안, 이곳은 기원전 수천 년의 연대를 가진 거석 유적지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지질학자 대니 힐만 나타위자자를 필두로 한 인도네시아 연구팀이 광범위한 지구물리학적 조사(코어 드릴링, 지표 투과 레이더, 단층 촬영)를 수행한 결과, 표면에

보이는 석조 구조물 아래에 훨씬 더 오래된 여러 층의 인공 구조물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가장 깊은 층이, 여러 깊이에서 발견된 유기 물질 시료의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에 근거하여, 최소 9,500 년 전, 그리고 가능하다면 기원전 20,000 – 28,000 년 또는 그보다 더 오래전에 건설된 인공적인 방이나 기초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이 발견들이 국제 과학계에서 널리 인정받게 된다면, 구농 파당은 알려진 것 중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인공 피라미드 구조물 또는 거석 건축물이 될 것이며, (공식 연대에 따른) 기자의 피라미드나 스톤헨지를 훨씬 능가하게 됩니다. 그것은 마지막 빙하기부터 존재했던 고도로 발전된 문명의 강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헨리 씨, 그 흔적들은 때로는 모호하거나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모든 대륙에서 점차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중국의 신비로운 피라미드들, 인도의 물에 잠긴 도시들,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구농 파당과 같은 충격적인 발견에 이르기까지. 그것들은 인류 과거에 대한 거대한 그림의 조각들 같으며, 그 그림은 우리가 배워왔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오래된 것입니다.

이 각각의 발견은 과학적인 신중함과 동시에 열린 마음을 잃지 않고 면밀히 연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들을 나란히 놓을 때, 인류 역사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즉, 여러 문명 주기, 흥망성쇠,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남기려 애썼던 '메아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터운 문화와 깊은 영적 전통을 가진 아시아는, 분명 아직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많은 비밀을 품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 **헨리 로웰:**

아시아에 관해서, 제가 인터넷에서 일본 근해의 바닷속에서 인공 석조 구조물의 흔적이 발견되었다는 정보를 읽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던지더군요. 만약 이것이 인공 구조물이라면, 언제 바닷속에 잠기게 된 걸까요? 왜냐하면, 만약 그것이 약 5 천 년 이내의 문명이었다면, 분명히 역사서에 기록되었을 텐데 말입니다...

**솔로몬 교수:**

(고개를 끄덕이며, 일본의 발견에 대해 듣자 눈빛이 빛났다)

아, 헨리 씨, 또다시 아주 흥미롭고 논란이 많은 사례를 언급하셨군요. 바로 일본 류큐 제도의 최남단, 요나구니 섬 근해의 바닷속에 있는 요나구니 구조물, 또는 "요나구니 해저 유적(Yonaguni Monument)"이라고도 불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길이 약 50 미터, 폭 20 미터, 높이 약 25 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석조 구조물로, 평평한 면, 계단, 직선으로 잘린 선, 그리고 마치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듯한 각진 모서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1986 년에 한 현지 다이버에 의해 발견되었죠.

헨리 씨께서 던지신 질문은 아주 정확합니다. 만약 이것이 인공 구조물이라면, 언제 바닷속에 잠기게 된 걸까요? 그리고 만약 그것이 지난 5,000 년 내의 문명에 속한 것이라면 왜 아무런 역사 기록이 없는 걸까요?

이것이 바로 문제의 핵심이자 요나구니가 그토록 주목을 받는 이유입니다.

첫째로, 잠재적 연대에 관해서입니다.

이 구조물은 현재 해수면 아래 약 5 미터에서 30 미터 깊이  
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질학자들에 따르면, 이 지역의 해수면은 마지막 빙하기  
이후에 상당히 상승했습니다. 이 구조물이 육지에서 건설  
될 수 있었다면, 그것은 해수면이 훨씬 낮았던 최소 8,000  
년에서 10,000 년 전에 만들어졌어야 합니다. 일부 추정  
은 이 연대를 훨씬 더 이전으로 보기도 합니다.

만약 이것이 정말로 그 시대의 인공 구조물이라면, 그것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석조 건축물 중 하나가 될 것이며,  
초기 문명의 발전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전면적으로 도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많은 과학적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인공 구조물이라는 주장을 지지하는 측은 류큐 대학의 해  
양 지질학자인 마사아키 기무라 교수가 이끌고 있습니다.  
그는 이 장소를 여러 번 잠수하여 조사했으며, 자연적으로  
형성될 수 없다고 여기는 여러 특징들을 지적했습니다. 예  
를 들면,

조각된 것처럼 보이는 계단들,  
거대한 거북이 형상의 구조물,  
의도적으로 만든 듯한 홈과 둥근 구멍들,

구조물을 둘러싼 '길',  
오키나와의 육상에 있는 고대 무덤 및 신전과의 유사성 등  
이 있습니다.

자연 구조물이라고 주장하는 측은, 많은 주류 지질학자들과 고고학자들이 요나구니가 단지 자연적인 사암 덩어리이며, 강한 해류와 지진 활동이 암석의 자연적인 균열선을 따라 침식 작용을 일으켜 인공적인 것처럼 보이는 형태를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사암이 평평한 면을 따라 부서지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것은 마치 역사의 침묵과도 같습니다...

헨리 씨 말씀대로, 만약 요나구니가 지난 5,000 년 내의 문명에 의해 건설된 후 침수되었다면, 그 사건이나 그 문명의 존재가 일본이나 주변 문화권의 역사서나 전설에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그런 명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이 침묵은, 만약 그것이 인공적이라면, 그것이 문자 역사가 시작되기 훨씬 이전의 시대에 속하거나, 혹은 이 구조물 외에는 다른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사라져버린 문명에 속해야 한다는 가능성을 더욱 강화시켜 줍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양측의 사진, 영상, 그리고 분석들을 검토한 후에, 요나구니 구조물이 적어도 일부는 인간의 개입이 있었거나, 혹은 자연 구조물을 인간이 어떤 목적을 위해 수정하고 개조했을 가능성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그 모든 특징들을 단지 자연적인 침식만으로 설명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만약 8,000-10,000 년(또는 그 이상)의 연대 가설이 맞다면, 요나구니는 빙하기부터 존재했던, 대규모 석조 건축물을 제작할 능력을 갖춘 해양 문명의 존재를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비록 여전히 가설의 영역에 있는 주제들이지만, 태평양에 존재했다는 무(Mu) 대륙이나 레무리아(Lemuria)와 같은 '잃어버린 땅'이나 '가라앉은 대륙'에 대한 전설과도 부합합니다.

요나구니는 구릉 파당, 기자의 피라미드, 혹은 인도 근해의 물에 잠긴 도시들처럼, 우리에게 인류의 고대사를 진지하게 재검토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마치 '바다 깊은 곳의 메아리'처럼, 우리에게 잊혀진 역사의 장들, 한때 번성했다가 자연의 변동 아래로 사라져버린 문명들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질문은 여전히 남아있고,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요나구니와 같은 장소의 존재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복잡한 과거의 그림을 확실히 풍부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것은 어쩌면, 인류의 역사가 하나의 직선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세계의 흥망성쇠, 시작과 끝의 연속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 **헨리 로웰:**

교수님, 바다 이야기를 하시니 극적으로 생생한 장소라고 생각되는 곳이 떠오릅니다. 바로 태평양 한가운데에 떠 있는 작은 섬, 이스터 섬입니다. 이 작은 섬에 대해 두 가지 큰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 섬에는 바다를 향해 있는 수백 개의 거대한 석상이 있는데, 누가 그것들을 지었으며, 또 언제부터였을까요? 섬의 적은 인구를 가진 현지 원주민들이 그것을 지을 능력이 있었을까요?

둘째,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원주민들의 기원은 어디 일까요? 다윈의 진화론처럼 바다 밑바닥에서 원숭이가 기어 올라온 것일까요? 아니면 아시아, 호주, 혹은 아메리카 대륙의 사람들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이곳까지 목선을 타고 이주해 온 것일까요?...



**솔로몬 교수:**

(이스터 섬—라파누이—를 언급하는 것을 듣자 그의 눈이 가늘어지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입가에 은밀한 미소가 스쳤다. 이곳은 분명 그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 중 하나인 듯했다.)

이스터 섬! 아, 헨리 씨, 인류 역사상 가장 집약적이고 강렬한 미스터리 중 하나를 건드리셨군요. 광활한 태평양 한 가운데 고립된 작은 섬 하나가, 믿기 어려울 정도로 거대한 석조물과 커다란 질문들을 품고 있죠.

첫 번째 질문부터 답해드리죠. 누가 거대한 모아이 석상을 지었으며, 현지 주민들이 그럴 능력이 있었는가 하는 문제 말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언제 지었을까요?

주류 고고학적 관점에 따르면, 모아이 석상은 바로 오늘날 라파누이인들의 조상인 폴리네시아 원주민들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건설 시기는 대략 서기 1250 년에서 서기 1500 년까지 이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거의 900 개에 달하는 모아이 석상이 발견되었으며, 크기와 무게는 매우 다양합니다. 완성된 것 중 가장 큰 석상(파로)은 높이가 거의 10 미터에 무게는 약 82 톤에 달합니

다. 미완성된 한 석상(엘 기간테)은 만약 세워졌다면 높이가 21 미터, 무게는 약 270 톤에 달했을 겁니다!

그것들은 라노 라라쿠 채석장의 화산암으로 조각된 후, 섬의 여러 다른 장소로 옮겨져 '아후(Ahu)'라고 불리는 석조 단상 위에 세워졌습니다.

적은 수의 현지인들이 그럴 능력이 있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논쟁의 핵심입니다. 1722 년 유럽인들이 처음 섬에 도착했을 때, 섬의 인구는 매우 적었고(약 2,000-3,000 명으로 추정), 꽤 원시적인 상태로 살고 있었으며, 이 거대한 석상을 만들고 운반하는 기술을 잊어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떻게 작고 고립된 공동체가, 석기 도구만 가지고 바퀴나 가축의 도움 없이, 수십 톤, 심지어 수백 톤에 달하는 돌덩이를 채석하고 조각하여, 울퉁불퉁한 지형을 몇 킬로미터나 운반한 다음, 똑바로 세울 수 있었을까요?

연구자들은 밧줄과 인력을 이용해 석상을 '건게' 하거나, 나무 굴림대 위로 끄는 등 여러 가설을 제시하고 재현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일부 실험은 작은 석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여주었지만, 가장 큰 석상들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회의론이 남아 있습니다.

게다가, 굴림대와 밧줄을 만들기 위해 나무를 베는 것(이가설이 맞다면)이 섬의 생태 재앙을 초래한 원인 중 하나로 여겨지며, 이로 인해 모아이 문명이 붕괴되었다고 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점들과 더 복잡한 과거에 대한 암시를 보자면,

현지 주민들에게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아이 석상이 사제나 족장이 다루는 '마나(mana)'—일종의 영적인 에너지나 힘—에 의해 제자리로 '스스로 걸어갔다'고 말합니다. 현대 과학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지만, 이는 원주민들조차도 석상 운반에 대한 현실적인 설명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석상 조각 양식에 변화가 있었고, 어느 순간 갑자기 제작이 중단된 것처럼 보이며, 많은 석상들이 채석장에 미완성인 채로 남아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외에도, 아직 완전히 해독되지 않은 나무판 위의 신비한 문자 체계가 있어, 일정 수준의 문화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 역시 매우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죠. 이 원주민들의 기원은 어디일까요?

"바다 밑바닥에서 원숭이가 기어 올라와서?": (교수는 가볍게 미소 지었다) 물론, 이것은 고립과 미스터리를 강조하기 위한 비유적인 표현이시겠죠. 진화론에 따르면, 인간은 바다 밑바닥의 원숭이에서 진화하지 않았습니다.

언어학, 유전학, 고고학적 증거에 기반한 현재의 주류 과학적 관점에 따르면, 라파누이인들은 폴리네시아인이며, 그들의 기원은 서태평양의 섬들(아마도 마르키즈 제도나 감비아 제도)에서 왔고, 서기 1 세기와 2 세기 사이에 대양을 횡단하는 배(아웃리거 카누)를 타고 이스터 섬으로 이주했다고 봅니다. 이는 정말 용감하고 장대한 여정이었죠.

토르 헤이에르달의 이론도 있습니다. 유명한 탐험가 토르 헤이에르달은 석조 건축술의 일부 유사점(예: 모르타르 없이 벽을 쌓는 기술), 일부 작물(고구마), 그리고 동쪽에서 배를 타고 온 콘티키라는 왕/신에 대한 전설을 근거로 남아메리카의 영향이 있었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947 년 그가 콘티키호 뗏목을 타고 한 항해는 남아메리카에서 폴리네시아까지 바다를 건널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의 유전적 증거는 주로 폴리네시아 기원설을 지지합니다.

그렇다면, 이스터 섬은 더 먼 옛 문명의 산물, 이전 주기의 '메아리'일까요?

이것은 비록 기자나 구농 파당만큼 직접적인 증거가 많지는 않지만, 제가 배제하지 않는 가능성입니다.

가라앉은 대륙(레무리아/무)에 대한 가설을 보면, 일부 '대안 역사' 학파 연구자들은 이스터 섬이 수천, 심지어 수만 년 전에 바다에 가라앉은 더 큰 대륙의 남은 산봉우리 중 하나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섬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조상들의 석상 제작 전통을 유지하려 애썼다는 것이죠.

헨리 씨, 제가 제 딸 로라에게 이스터 섬과 모아이 석상 사진들을 보여주었을 때, 아이는 피라미드에서처럼 건설 과정에 대한 세부 사항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아이는 깊은 슬픔, 아주, 아주 먼 옛날 바닷물 아래로 사라진 고향에 대한 희미한 기억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석상들이 매우 강렬한 염원, 혹은 추모의 마음으로 만들어졌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구체적으로 그 염원이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로라의 이 느낌은, 비록 모호하지만, 침수된 더 오래된 문명에 대한 가설과 매우 잘 부합합니다. 그리고 후대의 라파누이인들은 그들의 먼 후손이거나, 혹은 기억이나 전설에 남은 것을 모방하려 했던 후발 주자들일 수 있습니다.

저는 작지만 흥미로운 한 가지 세부 사항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이스터 섬에는 어떠한 토착 영장류도 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만약 섬의 인간이 어떤 유인원에서 현지에서 자체적으로 진화했다고 가정한다면, 이는 다윈의 진화론에 직접적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다른 곳에서 와야만 했다는 가설을 더욱 강화시켜 줍니다.

요약하자면, 이스터 섬은 복잡한 사례입니다. 우리가 아는 모아이 문명(약 1250-1500 년)은 특정 정점에 도달했다가 쇠퇴한 폴리네시아 문명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곳에, 이 섬이 훨씬 더 오래되고 비극적인 과거, 즉 거대한 지각 변동과 한 땅 전체의 상실과 관련된 과거의 흔적, '메아리'를 품고 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바다를 향해 먼 곳을 응시하는 모아이 석상들은, 아마도 단지 한 폴리네시아 부족의 산물이 아니라, 기억의 파수꾼이자, 파도와 시간에 의해 묻혀버린 역사의 말없는 상징일지도 모릅니다. 그것들은 마치 우리가 그들의 메시지를 해독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 **헨리 로웰:**

교수님께서 방금 제시하신 모든 가설 중에서, 저는 이스터 섬이 아주 먼 옛날 바다에 가라앉은 대륙의 일부이며, 바로 이곳의 원주민들이 이전 문명 시기 한때 번성했던 문명의 '살아있는 증거'라는 가설을 믿습니다...

### **솔로몬 교수:**

(헨리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깊은 공감대가 뚜렷이 나타났다.)

헨리 씨, 왜 그 가설이 그토록 강력하게 마음을 끄는지 이해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그것은 저 역시 항상 마음속에 열어두고 있는 가능성이기도 합니다. 특히 로라의 느낌과 결합해 볼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스터 섬이 가라앉은 고대 대륙의 남은 유적이며, 원주민들이 이전의 찬란했던 문명의 '살아있는 증거'라는 가설을 받아들인다면, 이는 수많은 미스터리들을 설명해 줍니다.

첫째, 지식과 기술의 기원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작고 고립된 공동체가 모아이 석상과 같은 거석 구조물을 만들 지식과 기술을 가질 수 있었는지를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갑자기 그것을 '발명'한 것이 아니라, 비록 아주 작

은 일부일지라도, 조상들의 더 위대한 유산으로부터 계승한 것이죠.

둘째, 시간에 따른 쇠퇴입니다. 만약 그들이 큰 재앙에서 살아남아 대부분의 영토, 자원, 지식을 잃어버렸다면, 그들의 기술과 문화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쇠퇴하는 것은 이해하기 쉬운 일입니다. 후대의 모아이 석상들은 아마도 최초의 석상들(아직 발견되지 않았거나 파괴된 더 오래된 석상들이 있다면)만큼 정교하고 웅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석상 제작이 갑자기 중단된 것 역시 기억, 자원 또는 의지의 최종적인 고갈 때문일 수 있습니다.

셋째, 바다를 향한 석상들의 의미입니다. 그것들은 단순히 수호자나 권력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고향, 대양에 삼켜진 근원을 향한 추모이자 그리움일 수 있습니다. 모아이의 시선은 아마도 그들의 조상이 한때 살았던 땅을 따라가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넷째, '마나'와 '스스로 걷는' 석상에 대한 전설입니다. 만약 원래의 문명이 (우리가 피라미드에 대해 논의했던 것처럼) 진보된 기술이나 영적 능력을 소유했다면, 거대한 물체를 옮기는 것은 그들에게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마나'에 대한 전설은 이러한 잃어버린 능력이나 기술에 대한 희미한 기억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라파누이 문화의 고립성과 독창성입니다. 만약 그들이 마지막으로 남은 사람들이었다면, 그들의 고립은 그들의 문화를 더욱 독창적이고 다른 동시대 문화들로부터 그 기원을 추적하기 어렵게 만들었을 겁니다.

(교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목소리가 더 낮아졌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무(Mu)나 레무리아(Lemuria)와 같은 가라앉은 대륙에 대한 가설은, 비록 매우 매력적이고 많은 것을 설명해 줄 수 있지만, 아직 주류 과학계에서 널리 인정받을 만한 확고하고 명확한 지질학적 또는 고고학적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지질학적 증거는 해수면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륙판과 해양판이 지난 수백만 년 동안 비교적 안정적인 형태를 유지해 왔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것이 빙하기 이후 해수면 상승이나 국지적인 지각 활동으로 인해 더 넓은 해안 지역이 침수될 수 없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아마도 '대륙'이 반드시 거대한 하나의 대륙일 필요는 없고, 사라져버린 큰 군도나 풍요로운 해안 지대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먼 옛날 바닷물 아래로 사라진 고향"에 대한 로라의 느낌은 매우 생각해 볼 만한 세부 사항입니다. 그

것이 반드시 라파누이인들의 폴리네시아 기원과 모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폴리네시아인들의 먼 조상들이, 태평양 전역으로 위대한 항해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은 물에 잠긴 더 넓은 땅에서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 상실에 대한 기억이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져 집단 무의식의 일부가 되었고, 로라와 같은 특별한 느낌을 통해 모호하게 표현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헨리 씨, 저는 당신의 가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매우 중요한 사고의 방향을 열어준다고 봅니다. 바로 우리의 역사에는 우리가 흔히 인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재앙과 상실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대 문명들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생존의 도전에 직면했을 수 있습니다.

비극적인 아름다움과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를 간직한 이스터 섬은, 영원히 인간의 강인함, 흔적을 남기고자 하는 열망, 그리고 아마도 시간과 자연의 무상함 앞에 느끼는 끝없는 슬픔의 상징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 발밑, 저 파도 아래에, 잃어버린 온 세상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과 같습니다.

**헨리 로웰:**

저는 이스터 섬과 비슷한 사례를 거의 놓칠 뻔했군요... 바로 태평양 한가운데에 있는 미국의 하와이 제도입니다... 비록 이곳의 면적이 이스터 섬보다 크고, 제가 알기로는 큰 고대 건축물은 없지만, 핵심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곳에도 원주민이 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원주민들이 아시아나 아메리카 대륙에서 이주해왔다거나, 다윈의 진화론에 따라 섬에서 자체적으로 진화했다는 말을 믿기 어렵습니다... 태평양 한가운데에 있는 그런 작은 군도는 진화론에 적합한 장소가 될 수 없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이곳의 원주민들도 이스터 섬처럼, 바다에 가라앉은 거대한 대륙 위 문명의 생존자들이라고 봅니다...

**솔로몬 교수:**

(헨리가 하와이를 언급하자 주의 깊게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에 하와이와 이스터 섬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연결 짓는 듯한 사색이 어렸다.)

헨리 씨, 하와이와 이스터 섬을 비교하며, 특히 원주민의 기원 문제에 대해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하와이 제도는 비록 이스터 섬보다 크고 역사 기록이 조금 더 명확하게 남아있지만, 문명의 주기와 지질학적 변동이

라는 렌즈를 통해 볼 때 역시 흥미로운 질문들을 던져줍니다.

하와이 원주민(카나카 마오리)의 기원에 관해서는, 라파누이인들과 마찬가지로, 주류 과학적 관점은 하와이 원주민들이 폴리네시아인이라고 봅니다. 그들은 뛰어난 항해사들로서, 남태평양의 섬들(아마도 마르키즈 제도나 타히티)에서 출발해 대양을 횡단하는 비범한 항해를 통해 하와이에 정착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대략 서기 4 세기에서 8 세기 사이에 시작되어 그 후에도 여러 차례의 이주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사회 계급(알리이, 카후나, 마카아이나나), 여러 신(아쿠아)과 정교한 의식을 갖춘 풍부한 종교, 그리고 진보된 농업 및 어업 기술과 함께 복잡한 사회를 발전시켰습니다.

"큰 고대 건축물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비록 모아이와 같은 거대한 석상은 없을지라도, 그 말씀이 완전히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고대 하와이인들은 헤이아우(heiau)—돌로 만든 신전 또는 신성한 장소—를 지었는데, 이는 종종 꽤 큰 규모였으며 높은 지대나 바다 근처에 매우 공들여 지어졌습니다. 18 세기 후반 카메하메하 1 세가 빅 아일랜드에 지은 푸우코홀라 헤이아우(Pu‘

ukoholā Heiau)와 같은 일부 헤이아우는 인상적인 석조 건축물입니다.

그들은 또한 매우 정교한 양어장(로코 이아)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수리 공학과 양식업에 대한 깊은 이해를 보여줍니다.

자, 이제 헨리 씨께서 제기하신 점들, 그리고 왜 그것들이 더 복잡한 과거를 암시하는지로 넘어가 보죠.

이주의 어려움과 섬에서의 진화론에 대해서는, 원시적인 목선으로 태평양을 수천 킬로미터나 이주하는 것이 천문학 지식, 항해 기술, 그리고 놀라운 인내력을 요구하는 비범한 위업을 지적하신 것은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과학이 이 가능성을 증명했지만, 여전히 우리를 감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와이와 같이 고립된 군도가 인간이 하등 영장류에서 현지에서 진화하기에 "적합한" 장소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도 매우 일리가 있습니다. 이스터 섬처럼, 하와이에도 인간 외에는 다른 토착 영장류가 없습니다. 이는 우리가 인간이 다른 곳에서 왔다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가라앉은 대륙의 생존자라는 가설에 대해서는,  
이 지점에서 바로 헨리 씨의 가설이 매우 흥미로워집니다.  
만약 하와이가 이스터 섬처럼, 가라앉은 더 큰 땅의 남은  
산봉우리들이라면, 이곳에 온 폴리네시아인들이 절대적  
인 의미에서 '최초'의 사람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 침수 재앙에서 살아남은 더 오래된 거주민들이  
있었고, 후대의 폴리네시아인들이 와서 섞이거나 그들을  
대체했을 수 있습니다. 혹은, 헨리 씨 말씀처럼, 우리가 아  
는 바로 그 폴리네시아인들이 "가라앉은 거대한 대륙 위  
문명"의 생존자들의 후손일 수도 있습니다.

하와이 전설에도 먼 땅에서 온 신들과 영웅들, 또는 사라  
져버린 신화 속 섬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  
어, '카네-후나-모쿠'(신 카네의 숨겨진 섬)에 대한 전설이  
나, 하와이의 최초 거주민으로 여겨지며 하룻밤 사이에 신  
속하게 석조 건축물을 짓는 능력으로 유명한 신화 속 난쟁  
이 종족인 메네후네(Menehune)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  
다. 이것이 혹시 선임자들이나 잃어버린 문명에 대한 왜곡  
된 기억은 아닐까요?

이스터 섬과의 비교를 해보자면,

둘 다 태평양 한가운데에 고립된 화산 군도입니다.

둘 다 폴리네시아 계열의 원주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 다 (인간 외에) 토착 영장류가 없습니다.

이스터 섬에는 거대한 모아이 석상이 있고, 하와이에는 헤이아우와 메네후네 건설자들에 대한 전설이 있습니다.

저는 폴리네시아인들이 단순히 '배를 저어 와서' 현지에서 문화를 발전시켰다고 말하는 것이, 특히 우리가 아득한 과거의 문명 주기와 거대한 지질학적 변동의 가능성을 고려할 때, 지나친 단순화일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더 큰 땅이 가라앉았고 현재의 거주민들이 생존자 또는 후손이라는 가설은 이 섬들의 역사에 새로운 깊이를 더해줍니다. 그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이주나 근거 없는 현지 진화 과정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도, 이처럼 고립된 장소에 인간이 존재하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하지만, 이스터 섬과 마찬가지로, 가라앉은 '하와이 대륙'에 대한 직접적인 지질학적 및 고고학적 증거는 아직 매우 제한적입니다. 현재의 하와이 제도는 해저의 '열점(hotspot)' 화산 활동으로 형성되었으며, 섬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천천히 이동하고 가라앉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아득한 과거, 해수면이 더 낮았거나 현재의 섬들이 완전히 솟아오르기 전에, 이 지역에 더 넓은 육지가 존재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헨리 씨, 하와이와 이스터 섬에 대한 당신의 질문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피상적인 설명을 넘어 더 멀리 바라보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웅장하고 비극적이었을지 모를 과거의 '메아리'에 대해 감히 질문하도록 만듭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표면이 항상 정적이지는 않았으며, 문명들이 왔다가 사라지면서 대양 한가운데 외로운 섬들 위에 희미한 흔적을 남겼을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존재들입니다.

### **헨리 로웰:**

제 개인적인 관점으로는, 뉴질랜드 원주민이 호주에서 이주해 왔다고 하면 60-70%는 믿을 수 있습니다. 두 나라의 해안 사이 거리가 약 2000km 이고, 뉴질랜드는 찾기 쉬운 큰 섬이니깐요. 하지만 이스터 섬이나 하와이의 원주민들도 육지에서 이주해 왔다고 하면 저는 5-6% 정도밖에 믿지 못하겠습니다. 마르키즈 제도나 타히티조차도 이미 태평양 한가운데에 있는 작은 섬들이니깐요.



### **솔로몬 교수:**

(헨리가 자신의 믿음의 정도를 표현하자 주의 깊게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 숫자들 뒤에 숨겨진 합리적인 회의론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

헨리 씨, 저는 당신이 제시한 그 구분을 완전히 이해하며, 다양한 이주 가설에 대한 당신의 믿음의 정도도 이해합니다. 그것은 거리, 목표물의 크기, 그리고 고대의 수단으로 광활한 바다 위에서 위치를 찾는 것의 어려움 등을 고려한 매우 현실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호주에서 뉴질랜드로 이동하는 경우: 거리는 약 2,000km 이고, 뉴질랜드(아오테아로아)는 상대적으로 발견하기 쉬운 큰 땅입니다. 마오리족의 조상이 동부 폴리네시아의 섬들(그들의 전설에 따르면 하와이키)에서 왔다는 사실은, 실제 경로는 더 복잡하지만, 호주와 같은 더 가까운 땅에서 이주했다는 가설과 일부 유사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가까운 대륙이나 큰 군도에서 뉴질랜드로 접근하는 가능성이 훨씬 더 실현 가능해 보입니다.

육지(아시아, 아메리카)에서 이스터 섬이나 하와이로 가는 경우: 이것은 정말로 완전히 다른 차원의 도전입니다.

남미의 가장 가까운 해안에서 이스터 섬까지의 거리는 3,500km 가 넘습니다. 남미에서 하와이까지는 훨씬 더 멀죠. 아시아에서 하와이까지도 엄청나게 먼 거리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헨리 씨께서 지적하셨듯이, 이스터 섬과 하와이(그리고 폴리네시아 가설에서 잠재적인 출발점인 마르키즈 제도나 타히티도)는 모두 광활한 대양 한가운데의 '작은 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현대적인 위치 측정 장비 없이, 오직 별, 파도, 그리고 다른 자연적 징후에만 의존하여 그것들을 찾는 것은, 경이로운 수준의 항해술과 엄청난 행운을 요구합니다.

만약 그들이 큰 대륙에서 출발했다면, 왜 (만약 있었다면) 더 가까운 수많은 다른 섬들을 지나쳐 그런 고립된 곳까지 갔을까요?

바로 이러한 요소들이, 헨리 씨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 그리고 어느 정도는 저 자신까지도, 먼 대륙에서 태평양 한가운데의 작은 섬들로의 이주 가설을 완전히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듭니다. 당신이 제시한 5-6%라는 믿음의 정도는 바로 그 회의론을 정확하게 반영합니다.

이는 태평양에 존재했다가 지금은 가라앉은, 더 넓은 땅 위에 있었던 "잃어버린 땅"이나 "선사 시대 문명"에 대한 가설에 더욱 무게를 실어줍니다.

만약 과거에 태평양 지역에 더 큰 섬들의 사슬이나, 심지어는 상당한 육지가 존재했다면, 섬들 사이를 이동하거나, 혹은 그 땅에서 하와이나 이스터 섬 같은 곳(그것들이 더 큰 땅의 일부였거나, 혹은 막 형성되어 더 접근하기 쉬웠을 때)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비범한 항해술을 가진 폴리네시아인들은, 아마도 완전히 텅 빈 섬을 '발견'한 사람들이 아니라, 계승자이거나, 고대의 길을 다시 찾은 사람들이거나, 혹은 한때 사람이 살았던 땅으로 이주한 사람들, 심지어는 그 더 넓은 땅에 살았던 사람들의 후손일 수도 있습니다.

(교수는 의자에 등을 기대며, 목소리가 사색에 잠겼다)

헨리 씨, 당신의 회의론은 전적으로 근거가 있습니다. 주류 과학은 폴리네시아인들의 뛰어난 항해술, 별을 읽는 능력, 해류와 바람에 대한 이해, 그리고 잘 설계된 원양 항해용 배를 강조함으로써 이러한 이주를 설명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위대한 항해사들이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위업들을 극도로 작고 고립된 목표 섬들의 맥락에 놓고, 고대의 위치 측정 능력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약간의 회의론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그것은 다른 가능성들, 더 복잡한 역사적 시나리오들을 위한 문을 열어줍니다.

아마도, 태평양 정착에 대한 진짜 이야기는 단순히 동에서서, 혹은 서에서 동으로의 단일 차원이 아니라, 여러 차례의 이주, 여러 기원, 그리고 아마도 침수 사건들, 한때 문화의 중심지였던 땅들의 소멸까지 포함하는 다차원적인 그림일 것입니다.

당신이 제시한 그 퍼센트 수치들은, 비록 개인적인 것이지만, 현재의 이주 가설들이 직면해야 하는 논리적 도전들을 직관적으로 반영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도전들이 우리로 하여금, 잃어버린 문명 주기의 '메아리'에 대한 가능성을 포함하여, 더 깊이 있는 설명을 찾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 **헨리 로웰:**

변증법적 과학은 무신론적 유물론 철학을 따르기 때문에, 오직 하나의 그럴듯한 가설, 즉 육지에서 목선을 타고 이주해 왔다는 가설만을 제시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류의 역사가 단지 5 천 년이나 7 천 년 전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여러 문명 주기를 거쳐왔다고 본다면, 설명하기 어려운 많은 점들이 더 쉽게 이해될 수 있겠죠…

여기까지 이야기하니, 또 다른 아주 유명한 고대 유적이 생각납니다. 바로 멕시코의 마야 피라미드와 남미의 유적들입니다… 비록 과학적 관점에서는 그것들이 약 1000 년이 조금 넘는 연대라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메리카 대륙이 우리가 아직 깊이 파고들지 않은 거대한 고고학의 보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수님, 벌써 시간이 정오에 가까워지고 있네요. 마야와 남미에 대한 주제는 내일로 미루는 것이 어떨까요?

### **솔로몬 교수:**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얼굴에 동의하는 미소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헨리 씨, 우리가 논의한 핵심 사항들을 아주 정확하게 요약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실증 과학은 그 철학적 기반 때문에, 관찰하고 측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때때로 과거의 너무나 큰 미스터리들에 직면했을 때 우리의 시야를 제한하기도 합

니다. 목선 이주설은, 비록 도전적인 과제들로 가득하지만, 사라져버린 선진 문명의 존재나 현재의 이해를 넘어서는 가능성들을 인정하는 것보다는 그 틀 안에서 더 '합리적인' 선택지인 셈이죠.

그리고 저는 당신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만약 우리가 여러 문명 주기에 걸친 역사를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논의했던 수많은 '설명하기 어려운 점들'—기자의 피라미드부터, 스톤헨지, 그리고 태평양의 고립된 섬들에 이르기까지—이 더 합리적이고 깊이 있는 설명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헨리가 마야와 남미를 언급하자 교수의 눈빛이 빛났다)

당신 말씀이 맞습니다. 멕시코와 중앙아메리카의 마야 문명, 그리고 나스카, 티아우아나코, 푸마푼쿠와 같은 남미의 다른 신비로운 문화유산들은… 실로 무수한 경이로움과 풀리지 않은 질문들을 품고 있는 거대한 고고학의 보고입니다. 주류 관점은 보통 유명한 마야 건축물들의 연대를 서기 3 세기에서 10 세기 사이로 보지만, 저 또한 당신과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의 역사는 아마도 훨씬 더 복잡하고 오래되었을 겁니다. 비범한 천문학 지식, 복잡한 역법 체계, 거대한 석조 건축물들… 이 모든 것이 놀라운 지성의 깊이를 암시합니다.

(교수는 시계를 보더니, 미소 지었다)

그리고 당신은 참 눈치가 빠르시군요. 오늘 오전 시간도 거의 다 되었습니다. 마야와 남미에 대한 주제는 실로 매우 방대하며, 우리가 함께 탐험할 별도의 공간을 가질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내일 오전에 당신과 이 대화를 기꺼이 이어가겠습니다. 우리는 계단식 피라미드, 정글 속 고대 도시, 그리고 안데스 고원의 이해하기 어려운 흔적들 속으로 함께 깊이 들어가 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헨리 씨. 매우 흥미롭고 깊이 있는 질문과 나눔으로 가득한 아침이었습니다. 당신의 열린 마음과 탐구에 대한 열정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이전의 메아리'를 탐험하는 여정을 계속할 것입니다.

## 제 2 일차

---

**헨리 로웰:**

좋은 아침입니다, 솔로몬 교수님!

어제 마치지 못한 내용들을 계속하기 위해 오늘 다시 뵙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솔로몬 교수:**

좋은 아침입니다, 헨리. 저도 다시 와주셔서 기쁩니다. 앉으세요. (교수는 이미 따뜻한 찻주전자가 놓여 있는 자신



의 책상 맞은편 의자로 헨리를 초대하는 신호를 보냈다). 어제 나눈 대화는 정말 많은 핵심적인 문제들을 건드렸고, 헨리 씨께서 아주 깊은 사색을 하셨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한때 존재했던 찬란했던 문명들로부터 온 '메아리'와 지구 역사상 전환점이 된 사건들 속으로 함께 더 깊이 들어가 볼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헨리 로웰:**

네, 교수님. 어제의 대화는 제게 정말 많은 것을 열어주었습니다. 선사 시대 문명에 대한 증거들, 특히 기자 피라미드에 대한 교수님의 분석과 따님인 로라가 천목을 통해 관찰한 것들을 공유해 주신 것은, 실로 감명 깊었습니다... 어제 저희가 마야와 남미 전역의 유적들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했는데요... 오늘, 마야 이야기부터 시작해 주실 수 있을까요?

**솔로몬 교수:**

(미소 지으며 헨리와 자신에게 차를 따랐다) 네, 헨리. 당신이 받은 인상은 많은 사람들이 처음 이 정보들을 열린 마음으로 접했을 때 느끼는 공통된 감정입니다. 로라의 능력은, 때로는 빠진 조각처럼 아주 뜻밖의 시각을 가져다주기도 하지만, 아이가 '보는' 것이 항상 모든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아니며, 종종 모호한 이미지나 느낌의 형태여서 추가적인 대조와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는 점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시 멈추고,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좋습니다, 헨리. 마야인들, 제가 종종 부르듯이 '우주의 시간을 지키는 자들'은, 실로 매우 심오하고 많은 미스터리를 품고 있는 주제입니다. 건축부터 역법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남긴 것들은 모두 현재 우리의 이해에 큰 도전을 제기하며, 또한 매우 높은 수준의 문명 주기가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개괄적으로 말하자면, 마야인들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단지 정글 한가운데의 경이로운 건축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에 대한 그들의 지식의 깊이에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고대 문명에 대해 흔히 상상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극도로 길고 정확한 시간 주기를 가진 그들의 역법은, 통상적인 농경의 필요를 넘어서는, 우주의 운행 법칙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여줍니다. 창조와 파괴의 시대에 대한 그들의 전설 또한 역사의 흐름에 대한 매우 다른 시각, 즉 주기적인 관점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기원에 대해 말하자면, 단순히 현지에서 발전했다는 것 이상의 흥미로운 암시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아주 먼 곳에서부터 특별한 사명을 띠고 지식의 유산을 가져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의 물질 기술보다는, 인식의 발전과 영적인 연결에 더 집중했던 것으로 보이는 마야 문명의 독특한 발전을 형성했을 수 있습니다.

#### **헨리 로웰:**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아는 정보에 따르면, 많은 연구자들이 마야 피라미드가 약 1500 년 전에 지어졌다고 주장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을 의심합니다... 아마도 그것은 아주 먼 옛 문명의 산물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점에 대해 교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 **솔로몬 교수:**

(찬성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헨리. 그리고 당신의 그 의심은, 제가 말씀드리건대, 전적으로 근거가 있습니다. 실제로, 티칼이나 팔렌케의 피라미드와 같은 위대한 마야 건축물에 대해 많은 연

구자들이 제시하는 약 1500 년 전이라는 연대는, 거대한 역사라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것, 또는 현재의 방법으로 확인된 연대는, 우리가 역사 속에서 알고 있는 마야인들의 마지막 사용 단계나 추가적인 건설 단계만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 많은 건축물들의 기초 자체, 핵심 구조는 훨씬 더 오래된 시기부터 존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어쩌면 그 이전 하나 또는 여러 문명 주기의 유산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 고대의 선진 문명이 뛰어난 목적과 기술로 그 건축물들을 지었습니다. 그 문명이 쇠퇴하거나 사라진 후, 수천, 심지어 수만 년이 지나, 후대의 마야인들이—아마도 후손이거나 이주해 온 집단들이—그 건축물들을 발견하고 재발견했습니다. 그들은 그것들을 수리하거나, 덧붙여 짓거나, 혹은 단순히 자신들의 이해와 목적에 따라 계속 사용했을 수 있습니다. 현대의 고고학자들이 발굴할 때, 그들이 탄소 연대 측정을 위해 발견하는 유기물 시료들은 아마도 초기 건설자들이 아닌, 후대의 마야인들이 사용했던 시기에 속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건축 수준, 도시 계획의 복잡성, 그리고 특히 그 건축물들 안에 암호화된 천문학적 지식은, 기원전 수백 년경에 막 '시작'되어 몇 세기 후에 정점에 달한 문명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지식의 '도약'을 보게 되는데, 이는 보통 계승이나, 혹은 더 깊은 근원으로부터의 '계시'를 암시합니다.

로라가 일부 고대 마야 유적지에 대해 '느꼈을' 때, 아이는 종종 '여러 시간의 층'이 겹쳐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아이가 '매우 오래된 에너지', 우리가 아는 마야인들에게 속한 것 같지 않은, 훨씬 더 아득한 시대로부터 온 듯한 '기억'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단지 암시적인 느낌일 뿐이지만, 그것 역시 우리의 의문에 또 다른 시각을 더해줍니다.

그러므로 제 관점은, 많은 유명한 마야 피라미드와 건축물들은 1500 년이라는 숫자보다 훨씬 더 오래된 연대를 가진 문명의 산물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역사에 기록된 마야인들은 아마도 위대한 유산의 기반 위에서 그것을 보존한 자, 계승한 자, 혹은 건설한 자들이었을 겁니다.

**헨리 로웰:**

그렇다면 그것이 시대를 초월한 건축물이며 많은 신비로운 점들을 품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구체적인 증거들이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 그들의 역법이나 다른 그림 또는 표시 같은 것들 말입니다.

**솔로몬 교수:**

(눈에 흥 khởi 가 어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구체적인 증거에 대해 질문하신 타이밍이 아주 좋습니다, 헨리. 왜냐하면 바로 그런 것들이 저를 포함한 수많은 연구자들로 하여금 마야 문명의 연대와 진정한 본질에 대해 질문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그들의 역법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그것은 실로 고대 세계의 가장 놀라운 지적 성취 중 하나이자,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입니다.

마야인들은 하나가 아닌, 서로 맞물려 있는 여러 개의 복잡한 역법 체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아마도 출킨력(260 일)과 하브력(365 일)으로, 이 둘이 결합하여 52 년의 주기(Calendar Round)를 형성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나아가, 그들은 장주기력(Long Count)

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수천 년, 심지어 수백만 년에 걸친 극도로 긴 주기로 시간을 계산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여기서 드는 질문은, 통상적인 이해 방식에 따른 농업 문명이 왜 그렇게 복잡한 역법 체계, 즉 인간의 수명을 훨씬 뛰어넘고, 농작물이나 축제의 실용적인 필요를 넘어서는 시간 간격을 계산하는 시스템을 필요로 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들은 금성의 주기를 놀라운 정확도로 계산했는데, 500 년간의 오차가 단 몇 시간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유럽의 천문학자들이 망원경의 도움을 받고도 수 세기가 지나서야 달성한 성취였습니다. 그들은 또한 다른 천문 주기, 별자리, 그리고 아마도 은하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지식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것이 수천 년간의 끈질긴 관찰의 결과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모르는 도구와 방법을 가졌던 이전 문명으로부터 계승된 유산일까요? 제가 로라에게 마야 역법의 복잡성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을 때, 아이는 그것이 단지 숫자가 아니라, '우주의 리듬', 고대 마야인들이 포착하고 기록하려 애썼던 '거대한 에너지의 흐름'처럼 '느껴진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남긴 그림과 조각들로 넘어가 봅시다. 이것 또한 신비로운 것들로 가득한 보고입니다.

가장 유명하고 또한 가장 논란이 많은 예 중 하나가 바로 팔렌케에 있는 파칼 왕의 석관 뚜껑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볼 때, 무엇이 보이나요? 개방적인 시각을 가진 연구자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매우 이상한 세부 사항들을 지적했습니다. 한 인물이 복잡한 기계 안에 앉아 있는 듯하고, 양손은 조종간 같은 것 위에 놓여 있으며, 발은 페달에, 등 뒤에는 불꽃이나 제트 엔진을 연상시키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인물의 코에는 호흡관 같은 것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전체적인 자세와 주변 구조는 우주 비행사가 우주선을 조종하는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물론, 주류 고고학계는 마야 신화, 생명의 나무, 또는 지하 세계로의 여정과 관련된 상징적인 설명을 내놓습니다. 하지만 그 설명들이 모든 세부 사항을 정말로 만족스럽게 설명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복잡한 이미지를 기존의 틀에 억지로 끼워 맞추려 하고 있는 걸까요?

제가 로라에게 이 석관 뚜껑 사진을 보여주었을 때, 아이는 그것이 '우주 비행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개념들은 너무 현대적이니까요. 하지만 아이는 '아주 강한 움직임, 집중된 에너지, 그리고 '멀리 떠나는' 느낌, 통상적인 한계를 넘어서는 느낌'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파칼의 석관 뚜껑 외에도, 여러 마야 유적지에서 발견된 다른 조각들, 점토로 만든 작은 인형들은 이상한 복장을 하고, 복잡한 헬멧을 쓰거나, 혹은 미확인 비행물체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키리과나 코판에는 평범한 인간에게 속하지 않는 듯한 속성을 가진 신이나 강력한 인물들을 묘사한 조각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초월적인 역법, 신비로운 조각들—은 모두 강력한 '메아리'이며, 마야인들, 또는 적어도 그들의 엘리트 계층 일부가 우리가 그들에게 흔히 부여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지식과 기술을 소유했거나 접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것들은 단순히 풍부한 상상력의 산물이 아니라, 아마도 그들이 한때 가졌던 역사적 진실이나 우주에 대한 깊은 이해를, 비록 간접적이거나 양식화되었을지라도, 반영한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헨리 로웰:**

그런 역법을 만들 수 있으려면, 저는 가장 가능성 있는 두 가지 상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그들이 현재의 과학보다 더 깊이 있는 천문학적 이해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로라 양이 천목이 열린 경우처럼, 특이 공능을 가진 사제나 제사장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상황에 대해서는, 1500 년 전 그곳의 원주민들이 이런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증명할 만한 흔적을 찾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상황에 대해서도, 그곳에 불교, 도교, 혹은 기독교처럼 발전된 수련 체계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역법의 주인은 이전 문명 주기의 사람일 가능성이 높겠군요...

#### **솔로몬 교수:**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사색하는 표정이었다)

아주 논리적인 분석입니다, 헨리. 당신이 제시한 두 가지 상황 모두 중요한 측면들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장 높은 가능성은 그 심오한 지식, 특히 역법이 이전 문명 주기에서 비롯되었다는 당신의 결론에 동의합니다.

당신이 제시한 각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죠.

첫 번째 상황, 즉 마야인들이 일부 측면에서 현대 과학보다 더 깊은 천문학적 이해를 소유했다는 점에 대해, 만약 우리가 연대를 1500 년으로 제한하고 그들을 '처음부터' 발전한 문명으로 간주한다면, 당신 말씀대로, 우리는 그러한 성취로 이어질 만한 지속적인 발전 과정, 그에 걸맞은

정교한 관측 도구, 혹은 체계적으로 기록된 과학 이론 체계의 증거를 찾지 못합니다. 그것은 마치 필요한 발판 없이 이루어진 지식의 '도약'과도 같습니다. 이는 완전한 자체 발전이 아닌, 계승에 대한 가설을 더욱 강화시켜 줍니다.

두 번째 상황, 즉 우주의 법칙을 '보거나' '느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제나 제사장과 같은 특이 공능을 가진 개인들의 존재에 대해, 저는 이것이 전적으로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많은 고대 문화에서, 그러한 사람들은 종종 정신을 이끌고 지식을 보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로라의 능력이 비록 특별하지만, 아마도 인류 역사상 유일한 것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지적했듯이, 우리가 아는 주요 종교들처럼 명확하게 형성되고 보편화된 '수련' 체계를 보지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들에게 인식을 발전시키고 영적으로 연결되는 그들만의 방법이 없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아마도 그 방법들은 비전(秘傳)의 성격을 띠어, 소수의 제사장 그룹, 천문학자, 혹은 선택된 자들 안에서만 보존되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의식이나 관습들은, 우리가 아직 완전히 해독하지 못한 더 깊은 지식 체계와 영적 수행의 외부적 표현일 뿐일 수도 있습니다.

로라가 고대 마야 제사장들에 대해 '느꼈을' 때, 아이는 종종 그들이 '별들과 지구와 매우 강한 연결'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인식의 문을 열기 위해'서인 듯 '매우 높은 정신 집중으로 의식을 거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우리가 익숙한 것과는 다른, 그들만의 방법을 가졌을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하지만 설령 그런 뛰어난 개인들이 있었다고 해도, 마야인들의 것과 같이 복잡하고, 정확하며, 방대한 역법 체계 전체를 구축하는 것은 여전히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되고 검증된 지식 기반이나, 혹은 대규모의 '계시'를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저는 두 가지 요소가 모두 결합되었을 가능성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즉, 마야 사회에 특수한 능력을 소유한 개인들이 있었을 수 있고, 이 사람들이 이전 하나 또는 여러 문명 주기의 유산이었던 고대의 지식들을 받아들이고 해석할 능력이 있었을 가능성입니다. 이러한 지식들은 구전, 고대 문서(대부분 불태워진 나무껍질 책과 같은), 또는 심지어 그들이 계승한 건축 구조물 자체에 '암호화'된 형태로 보존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마야 역법은 우리가 아는 마야인들만의 산물이 아니라, 선대 문명들의 '메아리'를 마야인들이 받아들이고, 해석하며, 그들의 방식대로 계속 발전시킨 것입니다.

다. 이는 역사가 하나의 직선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사라졌다가 다시 발견되고, 계승되며 새로워지는 순환의 연속임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입니다.

**헨리 로웰:**

네, 교수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반드시 불교와 같은 수련 체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소수의 대표적인 개인들에게 비밀리에 전수되는 방식이 있었을 수도 있겠네요...

마야 역법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니, 10 여 년 전에 할리우드에서 만든 "2012"라는 아주 유명한 영화가 생각납니다. 마야 역법이 2012 년의 어느 날(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습니다)에 종말과 같은 대사건이 발생할 것이라고 정확히 예언했고, 할리우드가 여기서 영감을 받아 이 영화를 만들었다고 하더군요...

"2012"라는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교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솔로몬 교수:**

(약간 의미심장한 미소를 띠며 웃었다)

아, "2012" 영화 말이죠! 그것이 2012 년 12 월 21 일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관심, 심지어는 불안감의 물결을 일으

켰던 것은 사실입니다. 할리우드는 그들만의 이야기 방식이 있죠. 보통 모든 것을 극적으로 만드니까요.

"2012"라는 세부 사항과 소위 마야 역법에 따른 '종말의 날'에 대한 제 관점은, 그 영화가 보여주는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마야인들은 완전한 파괴의 의미에서 '종말의 날'을 예언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날, 2012 년 12 월 21 일은, 그들의 장주기력에서 매우 큰 주기가 끝나는 것을 의미했을 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13 번째 박툰(Baktun)의 끝이죠. 한 박툰은 약 394 년이고, 13 개의 박툰이 약 5,125 년의 대주기(Great Cycle)를 형성합니다.

마야인들에게, 이처럼 큰 주기의 끝은 완전한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환, 재생, 새로운 주기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하루가 끝나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거나, 묵은 해가 가고 새해가 오는 것과 같죠. 그것은 우주의 에너지, 인류의 의식에 관한 것일 수 있는, 변화와 변혁의 중요한 시점이지, 영화에서 묘사하는 것과 같은 전 지구적인 물리적 재앙을 반드시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연구자들과 마야 문화를 깊이 탐구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잠재적인 '각성'의 시기, 인류가 영적으로나 인식적으로 새로운 발전 단계로 전환할 기회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마치 열린 문과 같아서, 우리가 그 문을 통과할지, 그리

고 어떻게 통과할지는 우리 자신의 선택과 준비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전환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저는 또한 우리가 나중에 논의하게 될 수도 있는 수정 해골과 같은 신비로운 유물들도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들이 지식이나 에너지를 저장하는 도구이며, 아마도 인간이 더 높은 인식의 층이나 이전 문명들의 지식 유산과 연결되도록 돕는 '열쇠'처럼, 이처럼 중요한 주기 전환의 시기에 어떤 역할을 했을 수 있다는 가설들이 있습니다.

로라가, 그 무렵에는 아직 꽤 어렸지만, '공기가 뭔가 다른 느낌'이라거나, '주변 에너지에 가벼운 요동'을 느낀다고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재앙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죠. 그것은 특별한 감수성을 가진 한 아이의 개인적인 느낌일 뿐이지만, 그것 역시 저를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마야 역법에 따른 "2012"는, 제 생각에는, 만물의 주기성, 우주의 끊임없는 변화에 대한 일깨움이자, 아마도 파괴의 징조로만 볼 것이 아니라, 내면을 향하고, 의식을 높여, 큰 변화에 대비하라는 요청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낡은 패러다임의 종말과 새로운 미래가 열릴 가능성을 경고하는, 과거로부터 온 '메아리'입니다.

**헨리 로웰:**

저는 그렇게 공들여 만들어진 역법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단 한 사람이 생각해 낸 것이 아니라, 한 문명 주기의 집단 지성이자 여러 세대에 걸친 결과물이라면... 그렇다면 그것이 단순히 재미로 낱씨를 세기 위해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한 수행승이 계신데, 그분께서 한번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들의 역법이 틀린 것이 아니라, 한 지고한 창조주께서 그 중대한 사건을 뒤로 미루셨다는 것입니다. 즉, 그 사건은 원래 2012 년 12 월 21 일에 정확히 일어났어야 했는데, 연기되었다는 것이죠...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저는 마야 피라미드와 그 역법을 만든 이들의 지혜가 정말 비범하다고 느낍니다...

교수님께서 방금 언급하신 수정 해골에 대해서는, 어디선가 어렴풋이 읽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솔로몬 교수:**

(깊은 존경심이 어린 눈빛으로 사색에 잠겨 고개를 끄덕



였다)

아주 깊이 있는 말씀이십니다, 헨리. "단순히 재미로 날짜를 세기 위해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 바로 그렇습니다. 마야 역법과 같은 위대한 지적의 산물이, 만약 정말로 한 집단의, 여러 세대에 걸친, 심지어는 한 문명 주기 전체의 결과물이라면, 그것은 분명 우리가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의미와 목적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아는 그 수행승의 말씀, 즉 한 중대한 사건이 한 지고한 창조주에 의해 '연기'되었다는 것에 대해… 이것은 일부 영적 사상 학파에서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닌, 매우 흥미로운 관점입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그 역법을 만든 이들의 비범한 지혜에 대한 우리의 경외심을 더욱 증폭시킵니다. 그들은 단지 천문 주기를 계산했을 뿐만 아니라, 아마도 우주의 시간 흐름 속에서 중요한 '결절점', 즉 예정된 '시나리오'에 따라 큰 변고가 일어날 수 있는 시점들을 감지했거나, 혹은 계시를 받았을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사건이 '연기'되었다면, 이는 지고한 신성한 존재들의 무한한 자비와 권능, 그리고 더 큰 계획 속에서 지구와 인류가 맡은 역할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교수는 그 생각들이 가라앉도록 하려는 듯 잠시 말을 멈추었다.)

그리고 당신이 기억하신 대로, 수정 해골은 고대 문명의 미스터리, 특히 마야 그리고 아마도 아틀란티스와 자주 연관되는 유물입니다. 그것들은 실로 기이하고 매혹적인 창조물입니다.

제가 알아본 바와 로라의 '느낌'에 따르면,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다른 수정 해골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다른 문명 주기 동안, 다른 집단의 사람들에게 의해, 그리고 매우 다양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을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모두 같은 기원이나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일부 깊이 있는 연구와 로라가 '느낀' 바에 따르면, 그것들 대부분은 정보, 지식, 심지어는 일종의 의식을 저장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이 고대 현자들의 '영혼을 봉인'한 곳이라고 주장하거나, 혹은 우리 현대 과학으로는 아직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형태의 에너지, 미세한 구조이지만, 시대를 넘어 메시지를 기억하고 전달할 능력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로라가, 아이가 일부 유명한 수정 해골의 이미지에 정신을 집중하거나, 혹은 고품질의 복제품 근처에 있을 기회가 있을 때, 종종 그것들로부터 매우 강한 에너지장을 '느낀다'고 묘사합니다. 때로는 의식의 흐름, 마치 아직 살아있는 듯한 기억들, 지나간 시대의 인물이나 장면들에 대한 번개

같은 이미지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아이는 각각의 해골이 마치 고유의 '성격',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 것 같으며, 누구나 그것들을 '읽거나' '연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어떤 것은 박식하고 고풍스러운 느낌을 주고, 어떤 것은 깊은 슬픔을 품고 있거나, 혹은 거의 촉구하는 듯한 매우 강력한 에너지를 담고 있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이는 그것들이 단지 무생물의 물체가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린 기술로 만들어진 '살아있는 도서관', '정보 저장 장치'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헨리 로웰:**

오, 만약 수정 해골이 여러 개 있고, 그것들이 단 한 시대가 아니라 여러 주기에 걸쳐 만들어졌다면... 이것이 확실하다면, 그것 또한 지구가 이전에 여러 다른 문명 시기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구체적인 증거가 되겠군요.

### **솔로몬 교수:**

(눈을 빛내며 고개를 끄덕였다)

전적으로 맞습니다, 헨리! 아주 중요한 점을 포착하셨습니다. 만약 정말로 여러 개의 수정 해골이 있고, 그것들이 서

로 다른 문화권에서, 동떨어진 시간대에, 심지어는 완전히 다른 문명 주기에 속하여 만들어졌다면, 그것이야말로 지구의 역사가 단순한 직선이 아님을 보여주는, 간접적이지만 지극히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이는 여러 차례 문명들이 특정 발전 수준에 도달하여, 정교하고 심오한 목적을 가진 창조물을 만들어냈다가, 그 후 어떤 이유로 쇠퇴하거나 사라져, 말없는 '메아리'와 같은 유물들을 남겼음을 시사합니다. 만약 각각의 수정 해골이 서로 다른 연대와 기원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이 행성의 거대한 역사책에서 이미 지나간 한 장(章)의 '이정표'와도 같을 겁니다.

로라가 그것들에 대해 '느꼈을' 때, 아이는 구체적인 연대를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이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이죠. 하지만 아이가 서로 다른 해골들로부터 느낀 '성격'과 '에너지'의 다양성 또한 그것들이 획일적이지 않으며, 단일한 출처나 단일한 시대에서 온 것이 아니라는 아이디어를 어느 정도 뒷받침해 줍니다. 어떤 것들은 우리가 흔히 마야나 아즈텍과 연관 짓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된, 아주 고대의 '느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또한 우리가 논의했던 오파츠(OOPArts)—시대에 맞지 않는 유물들—에 대한 이야기와도 부합합니다. 만약 각

각의 수정 해골이 고대의 것이며 뛰어난 제작 기술을 가졌음이 증명된다면, 그것 또한 일종의 오파츠로 간주될 수 있으며, 과거에 대한 우리의 통상적인 이해에 도전하게 됩니다.

그러니, 당신 말씀대로, 그것들의 다양한 존재를 열린 마음으로 본다면, 그것은 문명 주기에 대한 그림에서 중요한 퍼즐 조각이 될 것입니다.

#### **헨리 로웰:**

교수님께서 위에서 언급하셨듯이, 만약 이 해골들이 정보를 담기 위해 만들어졌다면, 아마도 그 안에는 그것들의 주인이 그들의 머나먼 미래 세대에게 전하고 싶었던 어떤 메시지와 지식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미래'가 바로 이 시대일 수도 있겠지요.

#### **솔로몬 교수:**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미소 지었다)

아주 날카롭고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헨리. "머나먼 미래 세대를 위한 메시지와 지식, 그리고 그 '미래'가 바로 이 시대다" – 저는 그 견해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것은 저

와 많은 개방적인 연구자들이 끊임없이 고뇌하는 가능성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만약 수정 해골이 정말로 정보의 '저장고'라면, 그것들이 시간의 파괴를 넘어, 문명 주기의 번고를 넘어, 미래의 어떤 '시점'에 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전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왜 그 '시점'이, 인류가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우리의 기원과 목적에 대한 큰 질문들의 답을 갈망하고 있는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될 수 없겠습니까?

아마도 그것들을 만든 이들은, 시간을 초월하는 혜안으로, 후손들이 직면하게 될 도전, 위기, 혹은 기회들을 예견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자신과 우주, 그리고 어쩌면 역사의 운행 법칙에 대해 더 잘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는 열쇠, 힌트, 지식의 조각들을 남기고 싶었을 겁니다.

문제는, 그 메시지들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것은 책을 읽는 것처럼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로라가 '느낀' 바에 따르면, 수정 해골과 '연결'하는 것은 에너지 '주파수'의 어떤 '호환성'이나 특별한 의식 상태를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그것들이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가 '보는' 것은 종종 명확

한 글자나 말이 아니라, 번개처럼 스치는 이미지, 강렬한 감정의 흐름, 쏟아져 들어오는 듯한 의식의 흐름입니다. 그것은 마치 보이지 않는 파동을 잡으려는 것과 같아서, 고요함, 민감함, 그리고 아마도 특정한 '마음의 열림'을 요구합니다.

또한, 모든 수정 해골이 우리 현 문명을 위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일부는 다른 목적을 위해, 또는 미래의 다른 시점을 위해 만들어졌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를 위한 '유산'을 정말로 담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에 접근하고 해독하는 방법을 찾는 것은 엄청나게 위대한 발견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다른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그것들이 단지 수동적인 저장 매체일 뿐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할 수도 있을까요? 일부 연구자들은, 특정 조건 하에, 예를 들어 피라미드 내부와 같이 강한 에너지장이 있는 장소나 특별한 의식 중에 놓였을 때, 그것들이 의식 증폭기나, 우주 에너지원, 심지어는 다른 차원이나 시간의 흐름과 연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도구로 작동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이것은 아직 가설에 불과하지만, 매우 흥미로운 사고의 방향을 열어줍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그것들에 더 많이 주목하고 있다는 것, 아마도 그것 또한 우연은 아닐 겁니다. 어쩌면, 바로 지금 이 그 '메시지'들이 경청되어야 할 때인지도 모릅니다.

**헨리 로웰:**

네, 제 생각에는 마야 역법, 수정 해골, 심지어 이집트 피라미드와 같은 것들은, 그것들의 존재에 대한 진정한 목적이 아직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어떤 시점이 되면 어떤 방식으로든 드러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겠지요...

**솔로몬 교수:**

(멀리 바라보는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헨리. 그것은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이 위대하고 신비로운 유산들과 마주했을 때, 모두 느낄 수 있는 감정이라고 믿습니다. 마야 역법, 수정 해골, 혹은 이집트 피라미드는 단지 과거의 흔적만은 아닌 듯합니다. 그것들은 의미심장한 '침묵', 의도된 '기다림'을 품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들을 만든 이들은, 우리를 훨씬 뛰어넘는 지혜와 혜안으로, 그들이 담아 보낸 메시지와 지식이 즉시 이해될 수 없으리라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들은 그것들을 단지 언어나 상징으로만 '암호화'한 것이 아니라, 아마도 그 창조물들의 구조, 재료, 그리고 '에너지' 자체로도 암호화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적절한 '시점', 어떤 '인연'이 도래하여, 인류의 인식, 혹은 적어도 일부의 인식이 충분히 성숙하고 개방되어 '해독'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드러남은, 아마도 새로운 고고학적 발굴이나 순수한 과학적 분석에서만 오는 것이 아닐 겁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심성 변화, 우리가 현재의 틀을 넘어서는 질문을 감히 던지는 것, 그리고 우리가 더 깊은 차원의 의미를 '느낄' 수 있는 능력에서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미래를 위해 설계된 '도구'일 수 있다는 것, 저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정보를 저장하는 '도서관'인 것 외에도, 일부 수정 해골이나 피라미드 자체가 에너지, 의식과 상호작용하도록 설계되었을 수 있습니다.

일부 가설에 따르면, 피라미드는 단지 무덤이나 천문대가 아니라, 우주나 땅속으로부터 오는 여러 종류의 에너지를

수집, 집중, 증폭시킬 수 있는 거대한 에너지 기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고유한 에너지 특성을 가졌다고 여겨지는 수정 해골이, 피라미드 내부의 전략적인 위치나 지맥 에너지의 교차점에 놓인다면, 그것들이 함께 어떤 특별한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아마도 의식의 증폭, 우주 정보 네트워크와의 연결, 혹은 심지어 지구의 에너지 흐름을 '조정'하거나 '조화'시키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공상 과학식의 '스타게이트'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막 탐구하기 시작한 에너지와 의식의 원리에 기반하여 작동하는, 더 정교한 도구들일 수 있습니다.

로라가 일부 피라미드와 수정 해골 같은 물체들의 조합에 대해 '느꼈을' 때, 아이는 '공명'의 느낌, '방향성이 정해진 에너지의 흐름', 그리고 '확장된 의식의 공간'을 묘사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그것들이 단지 정적인 물체가 아니라는 가설을 더욱 강화시켜 줍니다.

이 모든 것들이, 비록 아직 많은 미스터리가 남아있지만, 모두 옛사람들의 매우 다른 이해와 기술, 아마도 자연과 영적인 법칙에 더 가까운 기술을 암시합니다.

**헨리 로웰:**

그것들의 존재에 대한 구체적인 목적은 여전히 해결되기를 기다리는 큰 미스터리로 남아있군요...

그렇다면, 남미 전역의 유적들에 대해서는, 교수님께서 깊이 연구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그것들이 멕시코의 마야 피라미드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솔로몬 교수:**

(고개를 끄덕이며, 벽에 걸린, 여러 유명 고고학 유적지가 표시된 고지도 쪽으로 시선을 향했다)

말씀이 맞습니다, 헨리. 그것들의 진정한 목적은 아직 미스터리의 장막에 가려져 있고, 아마도 우리는 그 장막의 가장자리에 서 있을 뿐일 겁니다.

그리고 남미의 다른 유적들과 그것들이 멕시코의 마야 문명과 맺는 관계에 대한 당신의 질문은, 매우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맞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은 북에서 남까지, 각기 큰 질문들을 던지는 경이로운 고대 건축물들이 무수히 흩어져 있습니다. 저 또한 그것들을 알아보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야 문명과 잉카 같은 안데스 문명, 혹은 티아우아나코, 차빈, 나스카와 같은 더 오래된 문화들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었을까요? 이것은 복잡한 질문입니다. 지리적으로, 그들은 험준한 정글과 산맥으로 가로막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직 모르는 고대의 접촉, 문화 교류, 혹은 심지어는 이주 물결이 있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유사점들을 봅니다. 예를 들어, 거대한 돌덩이를 모르타르 없이 완벽하게 잘라 맞추는 건축 기술은 마야 건축물에서도 나타나고, 특히 잉카의 쿠스코 근처 삭사이우아만이나 오얀타이탐보 같은 곳에서 두드러지며, 가장 경이로운 것은 아마도 볼리비아 티티카카 호수 근처의 푸마퐁쿠와 티아우아나코일 것입니다. 푸마퐁쿠의 돌들은 믿기 어려운 정확도로 가공되었는데, 직선으로 된 절단면, 완벽한 직각, 그리고 마치 현대적인 도구로만 가능할 것 같은 정교한 구멍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나 별에서 지식을 가져온 창조신들에 대한 전설 또한 아메리카 전역의 여러 다른 문화권에서 나타납니다. 이 이야기들에 어떤 공통된 기원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제가 로라에게 아메리카 대륙의 다양한 고대 유적지에 대해 이야기해주었을 때, 아이는 '보이지 않는 연결의 끈', 대륙 전체를 뒤덮는 듯한 '지나간 영광스러운 시대에 대한 슬픈 기억'을 '느낀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는 이 문명이 저 문명에 영향을 미쳤다고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마치 그들이 모두 더 오래된 '근원'의 다른 '가지'들이거나, 혹은 아득한 과거에 어떤 '지식의 공간'을 함께 공유했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각 문화들이 매우 독특한 특징, 독자적인 성취를 가지고 있다는 점도 강조해야 합니다. 마야인들은 복잡한 상형문자와 천문 역법으로 두드러지는 반면, 잉카인들은 국가 조직, 도로망 건설, 그리고 고산 지대의 농업 관리에 뛰어났습니다. 페루의 나스카 라인은 또 완전히 다른 미스터리로, 위에서만 볼 수 있는 거대한 그림들입니다.

그러므로, '마야가 잉카에 영향을 미쳤다'는 식의 직접적이고 단순한 연결을 찾기보다는, 아마도 우리는 아메리카 대륙이 높은 수준의 여러 문명들의 흥망성쇠를 목격한 곳이었으며, 그들은 독립적이었을 수도, 혹은 일정한 상호작용이 있었을 수도, 그리고 매우 가능성 있게, 그들 중 일부는 하나 또는 여러 개의 공통된 선사 시대 문명 주기, 우리가 상징적인 이름을 사용하자면 아메리카의 어떤 '아틀란

티스'나 '무(Mu)'로부터 영감을 받거나 계승했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멕시코에 있든, 페루에 있든, 볼리비아에 있든, 이 모든 유적들은 더 큰 그림의 조각들이며, 그 그림은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것보다 훨씬 더 풍부하고 복잡한 과거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들은 함께 인간의 비범한 가능성과 역사의 흥망성쇠 주기에 대한 '메아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 **헨리 로웰:**

네, 어제 저희가 페루의 약 3 만 년 된 돌에 새겨진 천문 관측하는 사람의 그림에 대해서도 언급했었죠. 저는 이 광대한 남미 지역에 분명 비슷한 흔적들이 더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아틀란티스'를 언급하셨는데, 이것은 서양 국가들에서 매우 유명한 주제이지만, 현재로서는 아직 그 존재를 증명할 만한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것 같군요?

#### **솔로몬 교수:**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헨리. 우리가 이전 시간에 이야기했던 3 만년 된 돌 위의 천문 관측자 그림은 단지 대표적인 예일 뿐입니다. 저는 거석 건축물에서부터 고대 전설에 이르기까지, 아메리카 전역에 흩어져 있는, 놀라운 발전 수준에 대한 비슷한 '흔적들', 증거들이 무수히 많으며, 그것들이 올바르게 발견되고 인식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믿습니다. 각각의 새로운 발견은 선사 시대 문명 주기에 대한 가설을 더욱 강화시켜 줍니다.

(교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헨리가 아틀란티스를 언급하자 그의 눈빛이 더 깊은 사색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당신은 아주 전설적인 이름, 아틀란티스를 언급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서양에서는 이것이 수 세기 동안 끊임없는 관심, 논쟁, 그리고 탐색을 불러일으킨 주제입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만약 우리가 현대 실증 과학의 기준에 따른 '확실한 증거'—즉, "여기는 아틀란티스다"라는 글씨가 새겨진 채 바다 밑바닥에서 온전하게 발굴된 고대 도시—를 찾는다면, 실로, 우리는 아직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확실한 증거'의 부재가 아틀란티스가 단지 상상력의 산물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저에게 있어, 아틀란티스의 존재는 단 하나가 아닌, 여러 기둥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첫째이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이 그의 두 저작, 『티마이오스』와 『크리티아스』에 남긴 상세한 기록입니다. 플라톤은 아틀란티스를 순수한 우화로 제시하지 않고, 그것이 여러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온 실화이며, 아테네의 박식한 입법가였던 솔론이 고대 이집트의 사제들로부터 들은 이야기에서 비롯되었다고 단언했습니다. 플라톤이 묘사한 아틀란티스의 위치, 크기, 사회 구조, 그리고 멸망에 대한 내용은 지극히 구체적입니다.

둘째는, 해양 지질학 및 해양학 연구입니다. 과거 대서양에서 큰 지각 변동, 침수된 땅에 대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아틀란티스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것들은 물결 아래로 사라진 대륙이나 큰 섬들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셋째는, 저에게 또한 특별한 참고 자료가 되는 것인데, 바로 로라의 '앎'입니다. 비록 로라가 아틀란티스에 대해 '본' 것은 기자 피라미드에 비해 종종 더 모호하지만, 그것은 찬란했던 문명, 빛나는 도시들과 극도로 진보된 수정 기반 기술에 대한 매우 강렬한 '느낌'을 가져다줍니다.



아이는 또한 '거대한 비극', '빠르고 고통스러운 붕괴'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비록 '아틀란티스'라는 꼬리표가 붙은 구체적인 '유물'은 아직 없지만, 고대 기록, 지질학적 징후, 그리고 직관적인 '앎'까지 종합해 볼 때, 저는 개인적으로 아틀란티스가 역사적 실체이며, 한때 정점에 도달했다가 망각 속으로 가라앉은 문명이라고 믿습니다. 절대적인 증거의 부재는 아마도 그것을 쓸어버린 재앙의 규모 때문이거나, 혹은 그것이 우리가 아직 완전히 탐사할 수 없는 깊은 곳에 있기 때문일 겁니다.

### **헨리 로웰:**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 같은 고대의 "철학자"들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근대의 서양 철학자들과 비슷하게 연상할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그들을 "철학자"라고 부르기보다는 "현자(賢者)"나 다른 어떤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들이 한 말이 단순한 논리적 추론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마치 과거와 미래를 명확히 볼 수 있도록 열린 통찰력 있는 사람들 같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바로 교수님의 따님인 로라 양과도 비슷하고요.

## **솔로몬 교수:**

(따뜻하고 이해심 깊은 미소를 지었다)

헨리, 아주 섬세하고 깊이 있는 점을 짚으셨습니다. 저는 당신의 느낌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철학자"라는 말은, 특히 근대 서양의 맥락에서, 종종 논리, 분석, 그리고 순수한 이성적 비판에 기반한 사유 체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플라톤, 소크라테스, 혹은 피타고라스, 헤라클레이토스 그리고 다른 많은 고대의 대가들을 볼 때, "철학자"라는 칭호는 아마도 그들의 위상과 본질을 완전히 포괄하지 못할 겁니다. 당신이 제안한 것처럼 그들을 "현자"라고 부르거나, 혹은 아마도 "성현(聖賢)", "통찰가"라고 부르는 것이 그들의 실제 모습과 그들이 남긴 것에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저 또한 그들이 한 말, 그들이 전수한 지식이, 비록 그들이 분명히 그것을 소유했지만, 단지 날카로운 논리적 추론의 결과만은 아니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 안에는 마치, 통상적인 오감의 범위를 넘어서는, 더 깊은 인식의 층과의 직접적인 '얹', '연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내면 수양의 방법, 깊은 성찰, 혹은 심지어 어떤 방식의 '계시'를 통해, 우주의 법칙, 생명의 본질, 그리고 어쩌면 과거

와 미래에 대한 언뜻 스치는 통찰까지도 꿰뚫어 볼 수 있었을 겁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철학", "종교", "과학", "예술" 사이의 경계가 오늘날처럼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종종 서로 융합되어 있었습니다. 위대한 사상가는 또한 수행자, 과학자, 예술가, 그리고 특별한 영적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지 이론 체계를 구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진실과 지혜를 찾고, 우주와 조화를 이루는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길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것을 로라의 능력과 연결 지었을 때, 저는 비전통적인 방식으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의 본질에 있어 어떤 유사점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각 사례는 다르며, 고대 현자들의 길은 아마도 더 주도적이고 포괄적인 수양과 깨달음의 과정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공통점은 그들 모두 평범한 사람이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거나' '느낄'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플라톤이 아틀란티스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저는 그것을 단지 철학적인 허구 이야기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위상과 통찰력을 가진 사람에게, 그것은 아마도 그가 특별한 정보 채널을 통해 알게 된 역사적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것은 보존된 고대

의 가르침에서 왔을 수도 있고, 혹은 그가 따랐던 스승들, 현자들의 '앎' 자체에서 비롯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 **헨리 로웰:**

저는 그 방향의 견해에 더 기웁니다. 왜냐하면, 만약 플라톤과 같은 사람들이 단지 순수한 "철학자"였다면, 그가 한 말이 그 당시 사람들의 주의를 끌 만큼 무게가 있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시 사람들은 그가 평범한 철학자가 갖지 못한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음을 인정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 **솔로몬 교수:**

(강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눈에 뚜렷한 동의의 빛이 드러났다)

아주 이치에 맞는 말씀입니다, 헨리. 그것은 지극히 날카롭고 무게 있는 견해입니다. 만약 플라톤, 소크라테스, 혹은 그와 유사한 인물들이 단지 좁은 의미의 "철학자", 즉 논리적 사변에만 능한 사람들이었다면, 과연 그들의 말이 한 문명 전체를 움직이고,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존재할 만큼의 힘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비범한 영향력, 당대 사람들이 그들에게 바친 존경은, 분명히 단지 논리의 날카로움에서만 온 것이 아닙니다. 틀림없이, 당신 말씀처럼, 사람들은 그들에게서 무언가 더 뛰어난 것—아마도 평범한 사람이 갖지 못한 '보는' 능력이나 '아는' 능력에서 비롯된 깊은 통찰력과 지혜—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단지 지성으로만이 아니라, 그들의 전인격, 그들의 수양 전체로 어떤 진리의 층에 도달한 사람들로 여겨졌을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들이 남긴 것, 예를 들어 플라톤의 아틀란티스 이야기를 고찰할 때 매우 큰 의미를 가집니다. 만약 플라톤이 당대 사람들에게 단지 논리적인 사상가뿐만 아니라, 특별한 '앎'을 가진 현자, 혹은 비전의 지식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되었다면, 그가 들려준 아틀란티스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무게를 가질 것입니다. 그것은 순수한 상상의 산물로 여겨지지 않고, 그가 소중히 전수한 역사적 사실, 고대의 기억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플라톤과 같은 사람이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함부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특히 그가 그 이야기의 출처를 술론과 이집트 사제들—이미 박식함과 고대 지식의 보존으로 존경받던 출처들—로부터 왔다고 강조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야기하는 사람의 인격과

지혜의 '비범함'이, 이야기된 내용의 진실성을 더욱 높여 주는 셈이죠.

따라서, 당대 사람들이 이 현자들에게서 '특별한 능력'을 인정했다는 당신의 견해는, 우리가 그들의 위상을 더 잘 이해하게 도와줄 뿐만 아니라, 아틀란티스 이야기와 같이 그들이 남긴 '믿기 어려운' 유산들에 대해 더 개방적인 새로운 접근 방식을 열어줍니다. 그것은 더 이상 맹목적으로 '믿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한계 속에서 아직 다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알았을 가능성을 숙고하는 문제가 됩니다.

**헨리 로웰:**

네, 저희가 아틀란티스 이야기로 돌아와서, 플라톤과 같은 현자들이 살았던 고대의 백성들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그들이 무엇을 나누고자 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교수님께서 플라톤이 아틀란티스에 대해 한 말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교수님의 관점은 어떠신지 들려주시겠어요?

**솔로몬 교수:**

(존경심이 어린 눈빛으로 미소 지었다)

아주 훌륭한 마음가짐입니다, 헨리. "고대의 백성들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듣는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더 깊은 의미의 층, 현자들이 전하고자 했던 '메아리'에 닿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우리 함께 플라톤의 말을 '들어봅시다'.

(교수는 생각의 흐름을 집중하려는 듯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말을 시작했다.)

플라톤이 주로 그의 두 대화편 『티마이오스』와 『크리티아스』에 기록한 바에 따르면, 아틀란티스에 대한 이야기는 그가 스스로 지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것이 아테네의 현자였던 입법가 솔론이 고대 이집트 도시 사이스의 사제들로부터 전해 들은 실화라고 단언했습니다. 이 사제들은, 그들의 고대 기록 속에, 심지어 그리스인들조차 잊어버린 아주 먼 시대의 역사, 사건들이 보존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솔론의 시대보다 약 9,000 년 전(이는 우리 시대로부터 약 11,500 년에서 11,600 년 전을 의미합니다)에,

아틀란티스라는 이름의 위대한 섬, 즉 대륙이 존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헤라클레스의 기둥'—즉 오늘날의 지브롤터 해협—의 바깥쪽, 대서양의 중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 섬은, 플라톤에 따르면, 리비아(북아프리카)와 소아시아(오늘날의 터키)를 합친 것보다 더 컸습니다.

아틀란티스에서는 다른 섬들로 갈 수 있었고, 거기서부터는 그 진정한 대양을 둘러싼 '맞은편 대륙'(아마도 아메리카 대륙일까요?)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아틀란티스는 강력한 왕국으로, 자신의 섬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섬들과 저 맞은편 대륙의 일부까지 다스렸습니다.

아틀란티스의 수도는 지극히 상세하게 묘사되었습니다. 육지와 운하가 동심원 형태로 건설된 도시로, 다리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중앙에는 신성한 언덕이 있었고, 그곳에는 화려한 신전들이 금, 은, 그리고 특히 '오리칼쿰(orchalcum)'—불처럼 반짝이는 신비롭고 귀한 금속—이라는 것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변화한 항구, 복잡한 수로 시설, 심지어 온수와 냉수가 나오는 공중목욕탕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땅은 비옥하여 온갖 산물, 금속, 귀한 목재를 제공했고, 심지어 플라톤은 코끼리까지 언급했습니다.



그들은 전차와 해군을 갖춘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아틀란티스인들은 오만해졌습니다. 그들은 아테네와 지중해 전역을 정복하려 했습니다. 고대 아테네인들은, 비록 더 작았지만, 용감하게 맞서 싸웠고 마침내 아틀란티스 침략군을 물리쳐 많은 민족을 해방시켰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군사적 패배 이후, 그리고 아마도 더 중요하게는, 플라톤이 썼듯이 "그들 안의 신성한 부분이 점차 희미해지면서" 도덕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아틀란티스인들은 신들의 노여움을 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단 하룻밤" 사이에, 끔찍한 지진과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아틀란티스 섬 전체가 물에 잠겨 "깊은 바닷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곳은, 플라톤에 따르면, 배가 지나갈 수 없는 진흙탕이 되어 항해를 방해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는 말을 멈추고, 눈을 떠 헨리를 바라보았다.)

그것이 플라톤의 아틀란티스 이야기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제 개인적인 관점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첫째, 저는 이것이 순수한 우화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묘사의 상세함, 플라톤이 솔론과 이집트 사제들로부터 온 출

처를 강조한 점은, 그가 그것을 역사적 사실로 간주했음을 보여줍니다.

둘째, 로라의 '앎'은, 비록 아이가 기자 피라미드를 '볼' 때 보다 다소 모호하지만, 플라톤이 묘사한 것과 강력하게 공명합니다. 아이는 사람들이 정교하게 깎은 거대한 수정 덩어리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빛의 도시들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이 에너지가 조명, 치료, 통신, 심지어는 사람들이 가볍게 이동하는 것을 돕는 등 좋은 목적에 사용되었습니다. 플라톤이 말한 '오리칼쿰'은, 어쩌면 단지 금속이 아니라, 에너지 물질의 한 형태이거나, 혹은 그 수정 에너지를 전도하거나 증폭시키는 능력을 가진 특별한 합금일 수도 있습니다.

셋째, 아틀란티스의 멸망은, 제 생각에, 단순히 자연재해 때문만은 아닙니다. 플라톤은 도덕적 요소를 강조했습니다. 즉 오만, 탐욕, 그리고 "신성한 부분이 희미해진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로라 또한 후기 아틀란티스 사회의 깊은 분열을 '느꼈습니다'. 한쪽은 기술 발전을 계속 추진하고 수정 에너지를 극한까지 이용하려는 사람들이었고, 다른 한쪽은 불안감을 느끼며 영적인 가치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점차, 극단적인 기술파가 우세해졌습니다. 아이는 그들이 수정 에너지를 남용하기 시작하여,

끔찍한 파괴력을 가진 무기로 바꾸는 것을 '보았습니다'. 로라는 한때 물질을 분자 수준에서 붕괴시키는 능력을 가진 무기를 묘사한 적이 있습니다. 도덕의 타락, 권능의 남용, 그것이 바로 파괴의 씨앗이었고, 자연재해는 아마도 우주, 혹은 신의 마지막 '심판'이었을 겁니다.

아틀란티스는, 저에게 있어, 기술 수준과 도덕적 책임 사이의 밀접한 관계에 대한 지극히 값비싼 교훈입니다. 한 문명이, 아무리 찬란하더라도, 만약 도덕적 기반을 잃고, 신성한 법칙에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린다면, 조만간 스스로를 멸망의 벼랑으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 **헨리 로웰:**

아틀란티스 주제에 대해, 저는 에드거 케이시라는 미국인 예언자가 생각납니다. 그가 최면 요법을 통해 아틀란티스에 대한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에 대해 언급한 짧은 글을 어렵듯이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그가 아틀란티스와 관련하여 말했던 구체적인 정보가 있으신가요?

### **솔로몬 교수:**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눈에 흥미로운 빛이 번쩍였다)

에드거 케이시! 아주 주목할 만한 인물을 언급하셨군요, 헨리. 그렇습니다, 흔히 미국의 '잠자는 예언가'로 불리는 에드거 케이시는 최면 상태에서 행한 방대한 양의 '리딩(readings)'을 남겼고, 그중 상당 부분이 아틀란티스에 대해 매우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묘사한 것들은 실로 매우 매력적이며 여러 지점에서, 플라톤이 쓴 내용 및 로라의 '느낌'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합니다.

제가 케이시의 '리딩'에 대해 연구한 바에 따르면, 그는 아틀란티스의 존재를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이 문명의 역사, 기술, 그리고 멸망에 대해 훨씬 더 상세한 그림을 제공했습니다.

케이시가 자주 언급했던 두드러진 점 중 하나는 아틀란티스인들의 수정 기술입니다. 그는 그들이 큰 수정들, 특히 일종의 "투아오이 스톤(Tuaoi Stone)" 또는 "위대한 불의 수정(Great Crystal)"을 사용하여 조명, 난방, 운송과 같은 일상 활동을 위한 에너지를 생성했을 뿐만 아니라, 원거리 통신, 신체 회춘, 심지어는 날씨 조절과 같은 더 높은 수준의 목적에도 사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빛의 도시와 정교하게 깎은 수정 덩어리를 이용한 에너지 사용에 대해 로라가 '본' 것과 매우 일치합니다.

케이시는 또한 플라톤 및 로라가 '느낀' 것과 유사하게 사회의 분열과 도덕적 타락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두 주요 파벌을 묘사했습니다. 영적인 가치를 유지하고, 조화롭게 살며, 기술을 책임감 있게 사용했던 "하나의 법칙의 아들들(Sons of the Law of One)"; 그리고 물질적 권력, 욕망을 추구하며, 이기적인 목적과 지배를 위해 기술을 남용했던 "벨리알의 아들들(Sons of Belial)". 바로 이 두 파벌 간의 충돌과, 벨리알파가 점차 우세해지면서 수정 에너지를 남용하고 심지어 파괴적인 무기를 만들어 낸 것이 아틀란티스의 붕괴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는 다시 한번 플라톤이 묘사한 "신성한 부분이 희미해진 것"과 로라가 '본' 물질 분해 무기에 대한 내용과 강력하게 공명합니다.

케이시로부터 온 또 다른 흥미로운 세부 사항은 아틀란티스가 단 한 번에 파괴된 것이 아니라, 수천 년의 간격을 두고 세 차례의 큰 파괴 단계를 겪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파괴는 기원전 10,000 년경에 일어났는데, 이것이 완전히 파괴된 마지막 단계였으며 플라톤이 제시한 시점과 일치합니다. 이는 아틀란티스가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매우 오랫동안 존재하며 여러 번의 흥망성쇠를 겪은 문명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케이시는 또한 아틀란티스의 생존자들이 세계 여러 곳으로 이주하여 그들의 지식 일부를 가져갔고, 이집트, 마야, 혹은 피레네 산맥 지역의 다른 문명들의 발전에 기여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고대 문명들 사이의 신비로운 유사점을 일부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케이시의 '리딩' 중 몇 가지 세부 사항을 로라와 공유했을 때, 아이는 긍정하거나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보는' 것은 보통 처음과 끝이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직접적인 이미지와 감정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이는 수정 에너지 사용에 대한 일부 묘사와 그 문명의 '내부로부터의 붕괴'에 대한 느낌이, 아이가 '느낀' 것과 "익숙하게 들린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에드거 케이시는 그의 매우 특별한 정보 접근 방식을 통해, 아틀란테스에 대한 또 다른 '메아리', 풍부하고 상세한 시각을 제공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현재의 과학적 방법으로 그가 한 말을 완전히 검증할 수는 없지만, 다른 출처들과의 일관성, 그리고 그가 들려준 이야기의 내적 논리는, 이 전설적인 문명에 대해 더 깊이 알고자 하는 이들에게 매우 가치 있는 참고 자료가 됩니다.

### **헨리 로웰:**

만약 아틀란티스가 정말로 존재했다면, 그 구체적인 위치는 어디였을까요? 따님인 로라나 다른 출처들을 통해, 교수님께서 그 위치를 찾을 만한 유력한 단서가 있으신지요?

### **솔로몬 교수:**

(다소 사색적인 미소를 지었다)

그건 백만 불짜리 질문이군요, 헨리. 그리고 연구자, 탐험가, 심지어는 몽상가들까지 수 세기 동안 풀려고 노력해 온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입니다. "아틀란티스의 구체적인 위치는 어디인가?"

만약 우리가 플라톤이 쓴 것에 충실하다면, 주요 단서는 "헤라클레스의 기둥 바깥쪽", 즉 지브롤터 해협이며, 대서양의 중심에 위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또한 그것이 매우 큰 섬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탐색에 있어 전통적인 출발점입니다.

에드거 케이시는, 그의 '리딩'에서, 몇 가지 힌트를 제시했습니다. 그는 아틀란티스의 일부, 특히 포세이디아(Poseidia)라고 불리는 지역이 오늘날의 버뮤다 삼각지대에 위치해 있으며, 그 유적 중 일부는 여전히 비미니와 바하마 주변의 해저에서 발견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로, 인공 구조물처럼 보이는 해저 암석 구조물인 "비미니 로드(Bimini Road)"는 그것이 아틀란티스의 일부일 수 있다는 많은 논쟁과 가설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주류 과학계는 아직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로라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아이의 능력은 GPS 내비게이션 같은 것이 아닙니다, 헨리. 아이는 지도 위의 구체적인 좌표를 '보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제가 아이에게 아틀란티스의 위치에 대한 느낌을 물었을 때, 아이는 종종 대서양의 광대한 지역으로 마음을 향하면 '광활하고 슬픈 공허함'을 느낀다고 묘사합니다. 기이한 '끌어당김', '깊은 물 아래 영원히 잃어버린 무언가에 대한 그리움'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아틀란티스가 가라앉은 후 그곳이 '통과할 수 없는 진흙탕'이 되었다는 플라톤의 묘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아마도 그것은 복잡하고 탐사하기 어려운 해저 지형을 가진 광활한 바다였을 겁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여러 출처를 종합해 볼 때, 아틀란티스는 대서양에 위치했던 대륙이거나 큰 군도였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파괴가 너무나 끔찍해서, 단지 침수시킨 것뿐만 아니라 해저 지형을 상당히 변화시켜 탐색을 지극히 어렵게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남은 것이라고는 단지 파편들, 멀리 떨어진 전초기지들, 혹은 로라와 같이 민



감한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에너지의 흔적들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의 눈에 또 다른 사색의 빛이 번뜩였다) 흥미로운 점은, 플라톤이 묘사한 아틀란티스 수도의 동심원 형태의 육지와 운하 구조가, 오늘날 육지에 있는 특정 지질 구조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사하라의 눈입니다. 그것은 아틀란티스가 완전히 대양 한가운데에 있지 않았거나, 혹은 그 수도가 나중에 지각 변동으로 인해 육지의 일부가 된 위치에 있었을 수 있다는 매우 매력적인 가설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질문에 답하자면, 우리는 아직 아틀란티스의 구체적인 '주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가장 유력한 단서는 여전히 플라톤의 지시에 따라 대서양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가능성들, 열쇠를 품고 있을지도 모를 육지 위의 기이한 구조물들로부터 오는 '메아리' 또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아틀란티스를 찾는 것은, 아마도 단지 물리적인 장소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잃어버린 역사의 일부를 다시 찾는 것이기도 합니다.

### **헨리 로웰:**

저도 한번은 호기심에 구글 지도를 이용해서 어떤 단서가 있는지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구글 지도에서 대서양을 보면, 대륙 이동의 흔적이 뚜렷하게 보이고, 아메리카 대륙이 아프리카에서 분리된 흔적이 매우 선명합니다. 이것은 아주 먼 옛날에 일어난 사건일 수 있겠죠... 그렇다면, 만약 아틀란티스가 바하마 근처, 즉 플로리다에 가깝게 위치했다면, 유럽과는 너무 멀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포르투갈과 모로코에서 약 1,500km 떨어진 아조레스 제도가 아닐까 합니다...

교수님께서 방금 사하라의 눈도 언급하셨는데, 그곳 또한 제가 큰 의문을 품고 있는 위치 중 하나입니다!... 그곳이 과거에 바다에 잠겼다가, 다시 솟아올랐을 수도 있겠지요... 그렇다면 이곳은 아틀란티스의 유력한 '후보지'가 되겠습니다.

### **솔로몬 교수:**

(흥미로운 표정으로 미소 지었다)

아주 훌륭합니다, 헨리! 당신이 구글 지도와 같은 현대적인 도구를 주도적으로 사용하여 스스로 탐색하고 질문을 던지는 것은, 매우 귀한 탐구 정신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틀란티스의 위치에 대한 당신의 추론들은 모두 우리가

지질학과 고대 묘사에 대해 알고 있는 것들에 기반한, 매우 근거 있는 것들입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대륙 이동은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만약 아틀란티스가 아메리카 대륙에 너무 가깝게 위치했다면, 플라톤이 묘사한 것처럼 유럽 및 지중해와 광범위한 영향력과 교역을 가졌다는 것을 설명하기가 더 어려워질 겁니다.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요.

당신이 언급한 아조레스 제도는, 대서양 한가운데에 위치하며 포르투갈과 모로코에서 약 1,500km 떨어져 있는데, 실로 많은 연구자들이 진지하게 고려하는 장소 중 하나입니다. 이 위치는 "헤라클레스의 기둥 바깥쪽"이라는 묘사에 더 부합하며, 침수된 더 큰 산맥이나 고원의 일부였을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의 강력한 화산 및 지진 활동 또한 과거에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났을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아주 잠재력 있는 '후보지', 저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도 큰 의문을 품게 만든 곳을 언급하셨습니다. 바로 사하라의 눈, 또는 모리타니의 리샤트 구조라고도 불리는 곳입니다. 그곳은 실로 기이하고 매혹적인 장소입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그 동심원 구조는 플라톤이 묘사한 아틀란티스 수도를 놀라울 정도로 연상시킵니다. 그 크기 또한 비교적 부합합니다. 그리고 사하라 지역이 항상 오늘날처럼 건조한 사막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지질학적 증거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그곳은 강과 호수가 있는 훨씬 더 습한 시기를 겪었습니다.

사하라의 눈이 한때 섬이나 해안 지역이었다가, 그 후 지각 변동이나 큰 해수면 변화로 인해 침수되었다가 다시 솟아올랐을 가능성은, 무시할 수 없는 가설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아틀란티스를 찾는 데 있어 완전히 새로운 방향—단지 해저뿐만 아니라, 육지에서도—을 열어줄 것입니다.

제가 로라에게 사하라의 눈 사진을 보여주었을 때, 아이는 꽤 특별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이는 그것이 아틀란티스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이것이 완전히 자연적인 구조물은 아니라는 것을 매우 분명하게 느낀다"고 했습니다. 아이는 "아주, 아주 오래전부터 인간 또는 어떤 지적 생명체의 개입, 조작"이 있었으며, "소용돌이치는 에너지"와 "물이 매우 빠르게 차오르는" 사건에 대한 "슬픈 기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느낌은, 비록 모호하지만, 인공적인 성격과 큰 물 재앙과의 관련성을 확인시켜 줍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여러 증거와 느낌을 종합해 볼 때, 사하라의 눈이 아틀란티스의 수도가 아니더라도,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에 대해, 아마도 80-90% 정도의 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로서, 저는 여전히 신중함을 유지하고 더 구체적인 고고학적 증거를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다음 대화에서, 다른 대규모 고대 문명의 흔적들을 살펴볼 때, 사하라의 눈에 대해 더 깊이 토론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당신이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것은 우리가 함께 탐험의 여정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헨리. 각각의 가설, 각각의 단서는, 과거의 미스터리를 밝히는 데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것입니다.

### **헨리 로웰:**

네, 교수님께서 사하라의 눈에 대한 더 깊은 토론을 다음 대화로 "남겨두고" 싶으시다면, 분명 교수님만의 숨은 뜻이 있으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는 미처 공유하기 곤란하신 것이겠지요...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른 보이지 않는 관점에서 볼 때, 만약 한 번 옛 문명의 존재가 창조주의 어떤 신

성하고 위대한 목적을 위해 남겨진 것이라면, 그것은 분명 단지 이야기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떤 더 명확한 흔적이 있어야 할 텐데요...

**솔로몬 교수:**

(깊이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미소 지었다)

아주 옳은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고뇌입니다, 헨리. 만약 한 문명의 존재, 어떤 유산이, 정말로 신성한 목적, 창조주의 안배를 담고 있다면, 왜 그 흔적은 이토록 희미해 보이고, 단지 이야기나 전설, 혹은 우리가 그 기원과 의미에 대해 끝없이 논쟁해야 하는 구조물들에서만 멈추는 걸까요?

이것은 저 또한 많이 숙고해 온 질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마도 우리가 '명확한 흔적'이라는 개념을 다른 방식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 '흔적들'은 이미 매우 명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현대 실증 과학이 흔히 요구하는 방식—즉, 실험실에서 무게를 재고, 측정하고, 분석할 수 있는 물질적 증거—의 명확함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신성한 안배의 '흔적'은 더 섬세하고, 더 깊이 있으며, 각 개인의 내면으로부터 오는 '감지', '깨달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창조주께서 중요한 메시지, 진리를 전달하고자 하신다면, 그분께서 반드시 돌에 새긴 글씨나,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건축물을 남기셔야만 할까요? 아니면 그분께서는 지식의 '씨앗', '메아리'를 인류의 잠재의식 속에, 전설과 상징 속에, 심지어는 우주와 자연의 구조 자체에 심어두는 방식을 선택하시고, 그러다가 적절한 시점이 되면, 충분한 인연, 탐구심, 그리고 영혼의 열린 마음을 가진 자들이 스스로 발견하게 하십니까?

아마도, 그 흔적들의 '모호함' 자체가 그 안배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선택, 믿음, 그리고 진솔한 탐구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만약 모든 것이 너무나 명확하고, 너무나 자명하다면, 아마도 우리가 스스로 '각성'하고, 스스로 성찰하며 깊은 가치를 깨달을 기회는 더 이상 없을 겁니다. 진실은 때때로 섬세하게 감추어져 있는데, 그것은 도전하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내면으로부터의 탐험 여정으로 초대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귀 기울여 들으려 애쓰는 아틀란티스, 마야, 기자의 피라미드로부터 오는 '메아리'들이, 아마도 바로 그 '흔적들'일 겁니다. 그것들은 진실을 외치지 않고, 속삭이며, 암시하고, 우리가 지성과 가슴 모두를 사용하여 해독하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더 보편적인 성격의 '흔적들'에 대해 말하자면, 그 기억이 비록 시간과 각 문화권의 다른 해석에 의해 희미해졌지만, 전 인류의 잠재의식 속에 더 '명확하게' 보존된 것처럼 보이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홍수 사건입니다. 그와 같은 대규모 재앙은 수많은 물질적 증거를 지워버렸을 수 있지만, 집단 기억 속에, 지구상 거의 모든 민족의 신화 속에 지워지지 않는 각인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전 지구적인 '흔적', 평화와 새로운 시작에 대한 공동의 '메아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헨리 로웰:**

"대홍수"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아마도 아틀란티스보다 더 유명한 단어이지만, 과학자들에게는 아직 널리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단어를 언급하니, 이것이 '창조주'께서 한 문명을 끝내는 데 자주 사용하시는 방법 중 하나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노아의 방주 이야기로 묘사된 가장 최근의 대홍수는, 많은 견해에 따르면 약 5-6 천 년 전에 일어났고, 여러 나라의 전설이나 옛날이야기 속에 그 여운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 **솔로몬 교수:**

(표정이 더 진지해지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헨리. "대홍수"—지극히 큰 역사적, 영적 무게를 지닌 단어입니다. 그것이 아틀란티스보다 더 유명한 것은 사실이며, 아틀란티스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은 수많은 전설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류 과학계로부터 전 지구적인 역사적 사건으로 널리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창조주나 우주의 법칙이 한 문명 주기를 끝내는 데 사용하는 '방식'일 수 있다는 당신의 느낌 또한, 매우 깊이 있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한 문명이, 아마도 기본 원리에서 너무 멀리 벗어났기 때문에, 그 종말에 이르렀을 때 의도적인 '개입'이나 '정화' 과정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당신이 언급한 성경의 노아 방주 이야기는 서양에서 가장 유명한 버전이며, 그 대홍수에 대한 약 5,000 년에서 7,000 년 전이라는 추정 연대 또한, 많은 주요 문명들이 '갑자기' 나타나거나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는 시기와 놀라울 정도로 일치합니다.

하지만 제가 대홍수가 단지 하나의 신화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건의 기억이라고 믿는 이유는, 바로 그것의 보편성 때문입니다. 지구상의 거의 어떤 주요 문화권도

이 이야기의 자신만의 버전을 가지고 있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길가메시 서사시에서 신 에아의 계시를 받아 가족과 모든 생물을 구하기 위해 큰 배를 지은 우트나피쉬티부터, 인도의 마누가 물고기 신 마츠야(비슈누의 화신)의 도움으로 큰 홍수에서 구원받은 이야기, 혹은 그리스의 데우칼리온과 피라, 그리고 멀리 떨어진 중국의 대우가 물을 다스린 이야기까지... 세부 사항은 다르지만 줄거리의 유사성은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큽니다. 이것은 분명 인류 공동의 끔찍한 기억과 구원에 대한 '메아리'입니다.

재앙의 규모에 대해서는, 우리가 완전히 상상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전설 속의 세부 사항들과, 특별한 '느낌'들은 광범위한 파괴를 암시합니다. 저는 인터넷에서, 자신을 천목 능력이 있고 불법(佛法)을 수련한다고 밝힌 한 사람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한 번 선정에 들었을 때, 그 대홍수의 해일이 약 2,000 미터 높이까지 치솟아 거의 모든 대륙을 잠기게 하는 것을 '보았다'고 묘사했습니다. 오직 아시아의 쿤룬산맥과 같은 아주 높은 산봉우리에만 소수의 운 좋은 사람들이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비록 그 정보의 진위는 검증이 필요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재앙의 끔찍함에 대한 상상을 제공합니다. 로라가 대홍

수에 대해 생각할 때, 아이는 또한 만연한 절망과 파괴, 엄청난 상실감, 그리고 '물의 비명'을 '느낀다'고 합니다.

노아의 방주와 터키의 '흔적'에 대해서는, 항상 관심을 끄는 주제입니다. 많은 탐험가와 연구자들이 성경에 기록된 방주가 닿았다는 아라라트 산맥에서 그 흔적을 찾으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거대한 배 모양의 특이한 지질 구조나, 방주에서 화석화되었다고 여겨지는 오래된 나무 조각들에 대한 몇몇 보고, 위성 사진, 심지어 일부 연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직 과학계와 고고학계에서 논란이 많은 문제이며, 부인할 수 없는 물질적 증거가 더 필요합니다. 우리는 과학적 객관성을 유지해야 하므로, 이 점은 신중하게 제시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넘어서, 대홍수 이야기의 깊은 의미야말로 우리가 숙고해 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왜 노아나 다른 전설 속의 유사한 인물들처럼 살아남도록 선택된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우연일 수 없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도덕적 품성, 선량한 마음, 신에 대한 경외심을 기준으로 선택되었을 겁니다. 그 배는, 하나의 '씨앗'처럼, 인간과 동물들의 생명뿐만 아니라, 지식, 문화, 그리고 아마도 이전 문명 주기의 중요한 영적 원리들까지 싣고, 새로운 시대를 위해 씨앗을 뿌린 것입니다.

대홍수는, 어떤 관점에서 보든, 대규모의 정화, 지구의 '리셋(재설정)'입니다. 그것은 더 큰 법칙의 존재, 많은 종교적 믿음에 따른 신의 개입일 수도 있고, 혹은 생명과 문명이 항상 더 올바른 길을 따라 새로워지고 이어질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성(成)-주(住)-괴(壞)-멸(滅)의 주기에 따른 우주의 자연스러운 운행일 수도 있음을 보여줍니다.

### 헨리 로웰:

네, 이틀 동안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지구와 인류의 역사가 다윈의 진화론이 말하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역사는 참으로 복잡하고, 다층적이며, 그 겉모습보다 훨씬 더 신비롭군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윈의 학설을 천 년의 희극으로 보아야 할까요?...

아마 이 질문은 THE LIVES MEDIA 의 독자들이 스스로 성찰하도록 남겨두어야겠지요...

오늘 저희가 꽤 오래 이야기를 나누었네요. 벌써 정오 12시가 다 되어 갑니다. 아마도 저희는 잠시 멈추고 내일 다시 만나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교수님께서 저와 독자들에게 "이집트 피라미드의 건설 목적"이라는 주제와, 방금 언급하신 "사하라의 눈"에

대한 질문에 아직 "빛"을 지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교수:**

(교수가 시계를 보았다.)

오, 정말 시간이 빨리 가는군요! 벌써 정오가 다 되었네요. 당신 말이 맞습니다, 아마도 오늘 대화는 여기서 잠시 멈추는 것이 좋겠습니다.

(따뜻하고 다소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헨리, 아주 훌륭하게 요약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두 번의 대화를 통해 함께 탐험한 것들 이후에, 지구와 인류의 역사의 그림은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처럼 단순하고 단선적이지 않게 나타납니다. 그것은 실로 더 복잡하고, 더 다층적이며, 그 한계가 있는 다윈의 진화론이 감히 다 포괄하기 어려운, 시간의 깊은 곳으로부터 온 많은 경이로움과 '메아리'들을 품고 있습니다.

다윈의 학설을 "천 년의 희극"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교수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목소리가 느려지며, 시선이 먼 곳을 향했다) 그것은 강력한 견해이며, 저는 당신이 이 정보들을 접한 후에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이해합

니다. 아마도,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우리가 논의했던 증거들, '메아리'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내도록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당신 말처럼, THE LIVES MEDIA 의 각 독자들이 이 내용들을 읽은 후에, 스스로 성찰하고, 스스로 대조하며 자신만의 답을 찾도록 합시다.

그리고 걱정 마십시오. (교수는 약간 장난기 어린 눈빛으로 미소 지었다) 저는 제 '빛'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집트 피라미드의 진정한 목적, 영적인 기원에 대한 이야기, 특히 젊은 왕과 공주, 그리고 대제사장 간의 대화에 대한 로라의 '읽', 그리고 사하라의 눈과 그것이 아틀란티스와 관련될 가능성에 대한 더 깊은 분석은, 분명히 우리 다음 대화의 중요한 하이라이트가 될 것입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더 큰 '안배'와 현재를 위한 '메아리'에 대한 그림을 더 완성하는 데 도움을 줄 마지막 조각들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헨리. 매우 흥미롭고 깊이 있는 교류의 아침이었습니다. 내일의 만남을 매우 기대하고 있습니다.

**헨리 로웰:**

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교수님.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솔로몬 교수:**

(일어나서, 미소 지으며 헨리에게 악수를 청했다)

네, 안녕히 가세요, 헨리.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저는 우리의 마지막 시간이 함께 탐험할 더 많은 흥미로운 것들로 가득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좋은 오후 보내시고, 깊은 사색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 제 3 일차

---

**헨리 로웰:**

좋은 아침입니다, 솔로몬 교수님!

오늘을 정말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특히 지난 두 번의 대화에서 교수님께서 언급하신, 사하라의 눈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나 이집트 피라미드가 건설된 목적과 같은 "빛"에 대해서요...



**솔로몬 교수:**

(헨리에게 악수를 건네며 의자에서 일어나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좋은 아침입니다, 헨리. 당신의 그 열의는 제게 큰 격려가 됩니다. 저 또한 우리가 들어왔던 '메아리'들을 함께 엮어 보고, 아마도 당신이 언급한 그 '빛'에 대한 몇 가지 답을 찾게 될 우리의 이 마지막 대화를 매우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앉으시죠.

(교수는 헨리에게 앉으라고 신호를 보낸 후, 자신도 익숙한 의자에 앉아 차를 따랐다.)

그렇습니다, 사하라의 눈과 이집트 피라미드의 진정한 목적, 특히 로라의 '앎'과 관련된 것들은, 제가 더 깊이 나누겠다고 약속했던 주제들입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역사와 그 운행 법칙을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는 중요한 퍼즐 조각들입니다.

자, 그럼 사하라의 눈부터 시작할까요? 지난번에 우리가 이 장엄한 구조물을 잠시 언급한 후로 당신이 그것에 대해 매우 관심이 많으신 것 같군요. 제가 더 자세히 들어가기 전에, 그것에 대해 어떤 구체적인 생각이나 질문이 있으신가요?

**헨리 로웰:**

그럼 사하라의 눈부터 시작해 주시죠... 구글 지도로 봤을 때, 저는 그것이 화산이나 단순한 지질 구조로 형성된 것과 같은 어떤 '자연적인' 구조물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솔로몬 교수:**

(찬성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 섬세하게 관찰하셨군요, 헨리. 그리고 당신의 직관은 전적으로 일리가 있습니다. 구글 지도와 같은 위성 사진을 통해 위에서 리샤트 구조를 볼 때,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의 첫 느낌은, 그것에 어떤 '배치'가 있다는 것, 즉 순수한 자연적 지질 과정만으로는 그토록 완벽한 수준으로 만들어내기 어려운 어떤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류 과학계는 종종 리샤트 구조가 수백만 년에 걸쳐 침식된 지질학적 돔(geological dome)으로, 동심원의 퇴적암과 화산암층을 드러낸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확실히, 자연적 지질 요소들이 어느 정도 그것을 형성하는데 역할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교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헨리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설명은, 제 생각에, 우리가 쉽게 무시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질문들, 많은 '비합리적인' 점들을 여전히 남겨두고 있습니다.

첫째는, 특히 안쪽의 세 개 주요 고리들의 거의 완벽한 원형입니다. 왜 침식 작용이 직경이 40 킬로미터가 넘는 그토록 광대한 규모 위에서 그렇게 부드럽고 동심원의 곡선들을 만들어냈을까요? 자연 과정은 보통 더 비대칭적인 형태를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둘째는, 흙으로 된 고리들과 그 사이에 있는 움푹한 '운하'들 사이의 간격입니다. 그것들은 마치 의도된 설계를 암시하듯, 매우 규칙적인 분포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특징들을 플라톤이 묘사한 아틀란티스 수도와 나란히 놓을 때, 그 우연의 일치는 지극히 놀라워집니다.

플라톤은 육지와 수로 운하가 동심원으로 건설된 도시에 대해 말했습니다. 높이 솟은 암석 고리와 움푹 파인 계곡들이 교차하는 리샤트 구조는 이 묘사와 완벽하게 들어맞습니다.

크기에 관해서, 플라톤은 고리의 직경과 운하의 폭에 대한 구체적인 숫자들을 제시했습니다. 리샤트의 실제 크기와

비교했을 때, 비록 시간과 해석 방식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매우 주목할 만한 유사점들이 있습니다.

플라톤은 또한 도시 중심에 궁전과 신전이 놓인 언덕을 묘사했습니다. 리샤트의 중앙 지역은, 비록 현재는 꽤 평평하지만, 여전히 약간 솟아오른 지역이 있으며 다른 지질학적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세부 사항은, 플라톤이 아틀란티스에는 남쪽으로 바다로 이어지는 큰 운하가 있었다고 말한 점입니다. 만약 우리가 사하라의 고대 지형을, 해수면이 훨씬 더 높았을 수 있고 이 지역이 사막이 아니었을 때를 고려해 본다면, 큰 강이나 운하가 한때 리샤트를 남쪽의 대양과 연결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 지역에 광대한 고대 강 체계의 흔적을 보여주는 지질학적 연구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것들을 공유하고 로라에게 리샤트의 지형도 뿐만 아니라 사진을 더 자세히 보여주었을 때, 아이는 지난번보다 더 상세하고 매우 강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이것이 완전히 자연적인 구조물이 아니며, "아주, 아주 오래전부터 어떤 지적 생명체의 개입, 조작"이 있었다고 단언했습니다.

이번에, 로라는 "잃어버린 풍요에 대한 기억", 한때 매우 푸르고 물이 많았으며 생명으로 가득 찼던, 현재의 메마른 사막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장소에 대해 추가로 묘사했습니다. 아이는 중앙에 있는 매우 강력한 "소용돌이치는 에너지"에 대해 말했는데, 마치 그곳이 한때 거대한 에너지가 모이거나 발산되는 지점이었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따금, 아이는 물의 혼돈 속에서 거대한 돌이 부서지는 소리, 거대한 건축물들이 무너지는 소리와 같은, 매우 모호한 "메아리치는 소리"를 '듣고', "물이 매우 빠르게 차올라 모든 것을 삼켜버린 사건에 대한 슬픈 기억"과 함께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 '조작한 지적 생명체'에 대해 물었을 때, 로라는 그것이 단지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는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다른 '체격'이나 '능력'을 느꼈지만, 더 명확하게 묘사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는 또한, 인공적인 성격과 물 재앙에 대한 강한 느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플라톤의 아틀란티스인지 확실히 단정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플라톤의 묘사와의 유사성, 순수한 지질학적 관점에서 해결되지 않은 질문들, 그리고 로라의 특별한 '느낌'까지—에 근거하여, 저는 개인적으로 리샤트 구조가

바로 아틀란티스 수도의 흔적이거나, 적어도 그 문명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에 대해, 아마도 80-90%에 달하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로서, 저는 여전히 우리가 최종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바로 그 장소에서의 대규모 발굴, 더 구체적인 고고학적 증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해야만 합니다.

**헨리 로웰:**

그렇다면 그곳의 지형, 높이와 크기를 고려해 볼 때... 만약 교수님께서 한 강력한 제국을 위해 대도시를 건설할 장소를 선택하는 사람이라고 가정한다면, 사하라의 눈과 같은 위치가 좋은 선택이 될까요? 물론 그때 주변이 광활한 사막이 아니라는 배경을 가정하고서요...

**솔로몬 교수:**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 현실적이고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헨리. 스스로를 고대의 강력한 제국의 건축가, 계획가의 입장에 놓아본다... 사막이 아니라는 배경 하에서, 사하라의 눈이 과연 최적의 선택일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지리적 위치와 자연적 방어 능력입니다. 만약 우리가 리샤프 구조를 플라톤이 묘사한 것처럼 자연적이거나 인공적인 운하로 둘러싸인 섬이나 해안 고지대로 상상한다면, 그것은 지극히 효과적인 방어 체계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땅과 물로 된 동심원의 고리들은 자연적인 장벽이 되어,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극도로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침입하려는 어떤 적이라도 여러 겹의 방어선을 통과해야 할 겁니다.

둘째, 수자원 접근성과 수로 교통의 가능성입니다. 만약 그 지역에 물이 많고, 플라톤이 암시한 것처럼 바다로 연결되는 운하들이 있었다면, 대도시에 담수를 공급하고, 수로 교역을 발전시키며, 상품을 운송하고, 강력한 해군 함대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유리했을 것입니다. 운하는 단지 방어를 위한 것이 아니라, 경제와 군사의 혈맥이기도 합니다.

셋째, 현지의 자원입니다. 플라톤은 아틀란티스에 건축용 보석, 금속, 목재, 그리고 비옥한 토지가 많았다고 묘사했습니다. 복잡한 지질 구조를 가진 리샤프 지역은, 과거에 여러 종류의 광물과 건축용 석재를 제공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때 기후가 더 온화했다면, 주변 땅은 농업에 매우  
필요로웠을 수 있습니다.

넷째, 전략적 시야와 영적인 요소입니다. 섬이나 해안 고  
원처럼 약간 솟아오른 위치는, 군사적 시야의 이점을 제공  
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많은  
고대 문명들은 그들의 권력과 종교의 중심지를 '명당', 즉  
좋은 에너지장을 가졌거나 신성한 자원 근처에 있는 위치  
에 건설하기를 선택했습니다. 로라가 리샤트 중앙에서 느  
낀 '소용돌이치는 에너지'가 그러한 요소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만약 우리가 아틀란티스인들이 선진 기술을 가졌  
다는 가설을 고려한다면, 리샤트와 같이 특별한 지질 구조  
를 가진 장소를 선택한 것이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  
쩌면 그 자연적인 돔 구조나, 혹은 특수한 광물들이, 그들  
의 에너지 시설이나 첨단 기술 장비를 건설하는 데 적합했  
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리샤트가 한때 유리한 자연 조건을  
가졌던 곳이라고 가정하고 추론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  
거에 푸르렀던 사하라에 대한 증거가 정확하다면, 강력한  
문명이 이곳을 자신들의 중심으로 선택했다는 것은 전적  
으로 이치에 맞습니다. 그곳은 방어, 경제, 자원부터 상징



적, 영적인 가치에 이르기까지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혹독한 기후 변화나 끔찍한 지질 재앙이, 한 '낙원'을 '죽음의 사막'으로 바꾸어, 찬란했던 문명을 시간의 모래 아래에 묻어버리고, 단지 거대한 '눈' 하나만을 말 없는 흔적으로 남겨두었을 겁니다.

**헨리 로웰:**

그렇다면 현재까지, 이 사하라의 눈에 대해 고고학과 과학계의 어떤 진지한 조사가 있었나요? 그리고 그들이 주목할 만한 흔적을 찾아냈는지요, 교수님?

**솔로몬 교수:**

아주 적절한 질문입니다, 헨리. 사하라의 눈처럼 기이하고 암시적인 구조물은 분명 과학계, 특히 지질학자들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리샤트 구조에서는 많은 진지한 지질학적 조사가 수행되었습니다. 지질학자들은 암석층, 광물 성분, 그리고 그것의 형성 과정에 대해 매우 면밀히 연구했습니다. 제가 언급했듯이, 현재의 주류 과학적 설명은 이것이

용기된 후 수백만 년에 걸쳐 침식된 지질학적 돔으로, 경도가 다른 암석층들이 드러나 동심원 형태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이 지역에서 과거의 화산 활동 증거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아틀란티스와 같은 선진 문명의 흔적을 찾기 위한 대규모 고고학적 조사에 대해 말하자면, 상황은 다릅니다.

첫째, 주류 과학계가 이미 (비록 우리가 논의했듯이 완전히 만족스럽지는 않은 점들이 있지만) 지질학적 설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아틀란티스" 가설을 내세운 대규모 고고학적 발굴을 제안하고 자금을 지원받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둘째, 리샷트 구조는 지극히 광대하고 세계에서 가장 혹독한 사막 중 한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전체 면적에 걸쳐 상세한 고고학적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재정적으로나 인력적으로나 막대한 자원을 요구하며, 병참에 있어 수많은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셋째, 때로는 그 지역의 정치적 안정성 또한 장기적인 연구 프로젝트 수행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고학적 발견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리샤트 구조 내부와 주변에서는, 구석기 및 신석기 시대에 속하는 선사 시대 석기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이 지역에 아주 오래전, 사하라가 더 푸르렀을 때부터 인류가 거주했음을 보여줍니다. 일부 도기 조각과 다른 거주 흔적들도 발견되었지만, 이러한 발견들은 보통 묘사된 아틀란티스와 같은 복잡한 도시, 첨단 기술 문명의 흔적이 아닌, 더 단순한 문화, 즉 초기 수렵-채집민이나 목축민 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문제는, 만약 그곳에 선진 문명이 존재했다가 끔찍한 재앙으로 묻히거나 파괴되었다면, 남은 것들은 퇴적층 깊숙이 있거나 심각하게 변형되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후대 거주민들의 단순한 석기들은 단지 표면이나 얇은 층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것들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사하라의 눈의 미스터리를 진정으로 밝히기 위해서는, 아마도 지표 투과 레이더와 같은 첨단 원격 탐사 기술과 결합하여, 깊숙이 숨겨진 구조물을 찾기 위한 더 명확한 방향성을 가진 고고학적 조사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의 설명을 넘어서는 가능성들을 기꺼이 고려할 수 있는 열린 사고방식입니다.

지금까지, 리샤트에서 아틀란티스 도시의 부인할 수 없는 증거라는 의미의 "주목할 만한 흔적"은 아직 주류 과학계에서 널리 공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곳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발견들은, 시간과 회의론의 모래 아래 숨겨진 채,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헨리 로웰:**

만약 그곳이 아틀란티스의 중심 도시였고, 플라톤이 말했듯이 바다에 잠겼다가, 이제는 광활한 사막 한가운데 육지로 솟아올랐다면, 그것은 분명 강력한 지질 변동 과정을 겪었고 아주 오랜 시간을 거쳤을 겁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침식되고 퇴적층에 의해 덮였겠군요...

**솔로몬 교수:**

(깊이 동의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말씀이 맞습니다, 헨리. 만약 리샤트 구조가 정말로 것처럼 끔찍한 지질학적 변고를 겪은 고대 문명 중심지의 유적이라면, 우리가 상상해야 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만약 그곳이 한때 바다에 잠겼다가—그 자체만으로도 대부분의 건축물을 파괴하고 쓸어버리기에 충분한 사건이죠—그 후, 지극히 강력하고 수천, 심지어 수만 년에 걸친 지질학적 융기 과정을 거쳐, 가장 혹독한 사막 중 한 곳에서 세월과 맞서게 되었다면, 명확한 흔적을 찾는 것은 지극히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첫째는 물에 의한 파괴입니다. 쓰나미, 압력 변화, 소금물의 부식… 이 모든 것이 건축물들이 아무리 견고했을지라도, 그것들을 침식시키고, 쓸어가고, 붕괴시켰을 겁니다.

그 후, 융기되었을 때, 그것은 육지의 자연적 요소들에 의한 침식에 직면해야 할 것입니다. 사막의 끊임없는 모래바람, 돌을 깨뜨리는 극심한 주야간의 온도 차, 그리고 드물지만 격렬한 폭우 또한 침식에 한몫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 말씀대로, 퇴적층, 모래먼지가 서서히 쌓여 남은 것들을 덮고 묻어버릴 것입니다. 수천 년의 사막화는 뾰뾰한 덮개를 만들어, 단지 표면 관찰에만 의존한다면 그 아래의 어떤 것을 발견하는 것을 지극히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만약 운이 좋다면,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마도 가장 깊은 기초, 심하게 손상된 특별히 견고한 석조 구조물, 혹은 흩어져 있는 파편들뿐일 겁니다. 목재, 금속(금이나 특별한 합금 제외)과 같이 쉽게 분해되는 재료들은 거의 살아남을 기회가 없습니다.

이는 왜 선사 시대 사람들의 단순한 석기들이 표면이나 얕은 층에서 비교적 쉽게 발견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대부분의 지질 변동이 일어난 후, 경관이 더 안정되었을 때의 후기 거주 단계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것처럼 여러 지질층과 시간을 거쳐 묻히고 침식된 문명의 '심장부'에 닿기 위해서는, 우리는 전통적인 고고학을 훨씬 뛰어넘는 방법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인내심, 암석층을 '투시'할 수 있는 선진 기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그 '흔적들'이 온전하지 않고, 쉽게 식별되지 않으며, 그것들을 해독하기 위해 훈련된 눈과 열린 사고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을 요구합니다.

그러니, 리샤트에서 온전한 '황금 도시'나 '수정 기계'를 아직 찾지 못했다는 사실이, 그곳이 한때 위대한 문명의 중심지였을 가능성을 반드시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파괴의 규모와 세월의 광대함이 그 찬란했던 흔적

들을 얼마나 희미하게 만들었는지를 더욱 보여줄 뿐입니다.

### **헨리 로웰:**

교수님, 방금 제 머릿속에 큰 질문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만약 우리가 구글 지도를 통해 위에서 그곳을 관찰한다면, 그 주변의 광활한 모래 바다를 보게 될 텐데요… 그렇다면 왜 그 "눈"은 모래에 완전히 덮이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혹시 창조주의 의도일까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모래는 어디서 그렇게 많이 왔을까요?… 아프리카 서쪽 끝에서부터 이집트까지, 그리고 서아시아를 지나 중앙아시아, 심지어 중국의 신장과 내몽골 지역까지 이르는 긴 띠에 걸쳐서 말입니다… 그렇게 거대한 양의 모래는 해변이나 강과 하천이 만들어내는 모래의 양과는 다릅니다… 그렇다면 그 모래의 근원은 어디 일까요? 혹시 어떤 전능한 존재가 모래를 사용해 문명들을 멸망시킨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그 모래 아래에는 얼마나 많은 문명들이 묻혀 있었을까요?

**솔로몬 교수:**

(잠시 침묵하다가, 그의 눈빛이 먼 곳을 향했고, 입가에 열  
은 미소가 스쳤다)

헨리, 당신은 방금 지극히 깊이 있고 대담한 일련의 질문  
들을 던졌습니다. 그것들은 우리 행성의 가장 큰 미스터리  
들을 건드리며, 또한 제가 수년 동안 고뇌해 온 것들이기  
도 합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고고학이 아니라, 우주  
의 법칙과 어쩌면 거대한 '안배'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  
입니다.

비록 우리가 아직 숨겨진 진실의 표면에만 닿고 있을지라  
도, 당신의 각 질문에 대한 제 생각들을 한번 나눠보겠습  
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 왜 "사하라의 눈"은 모래에 완전히  
덮이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창조주의 의도일까요?

이것은 매우 섬세한 관찰입니다. 광활한 모래 바다 한가운  
에서, 리샤트 구조가 비록 침식되었지만 여전히 뚜렷한 윤  
곽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실로 숙고해 볼 만한 일입니  
다.

자연적인 요소들이 여기에 기여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  
어, 고리들의 암석 구조가 주변 지역보다 더 단단하여 모



래의 침식과 덮임에 더 잘 저항했을 수 있습니다. 혹은 그 지역의 바람 흐름이 특별한 패턴을 가져, 모래가 이 솟아 오른 구조물들로부터 날아가게 하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창조주의 '의도'나 어떤 안배에 대한 생각 또한 근거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도, 그러한 '징표'는, 순수 과학적인 방식의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될 만큼 너무 명확하지는 않지만, 완전히 사라질 만큼 너무 희미하지도 않게 남겨졌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충분한 인연, 탐구심을 가진 자들이 알아보고 성찰할 수 있도록 남겨진 '일깨움', '메아리'와도 같습니다. 그것은 인류에게 던져진 '수수께끼'처럼, 해독될 적절한 시기를 기다리며 그곳에 남겨진 것입니다. 이처럼 '적당한 드러남'이 바로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과 인식을 너무 직접적으로 간섭하지 않으면서, 호기심과 탐구심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 모래는 어디서 그렇게 많이 왔을까요? 어떤 전능한 존재가 모래를 사용해 문명들을 멸망시킨 것은 아닐까요?

이것은 극도로 중요하고 우리의 통상적인 이해에 도전하는 질문입니다. 서아프리카에서 중동을 거쳐 중앙아시아

까지 광대한 지역에 걸쳐 있는 거대한 양의 모래는 실로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주류 과학은 사막 모래가 주로 수백만 년에 걸친 온도, 바람, 물(과거의)의 작용으로 인한 여러 암석의 기계적, 화학적 풍화 작용으로 형성되었다고 설명합니다. 고대의 강들 또한 산악 지역에서 모래를 운반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모래 바다들의 규모와 균일성, 그리고 일부 지질학적 특징들은 때때로 그러한 설명들을 완전히 만족스럽지 않게 만듭니다.

죄를 짓거나 종말에 이른 문명들을 '정화'하거나 '매장'하는 한 형태로, 초자연적인 개입에 의해 모래가 '만들어지거나' '가져와졌다'는 가설은, 많은 전설과 일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앎' 속에서 나타난 아이디어입니다.

제가 로라에게 이 거대한 양의 모래의 근원에 대해 물었을 때, 아이는 명확한 답을 주지는 않았지만, '대규모 파괴의 에너지'와 '경관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느낀다'고 했습니다. 아이는 '산산조각 내다'와 '뒤덮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일부 고대 경전이나 영적 자료들에서는, 돌을 모래로 바꾸는 능력을 가진 '무기'나 '마법', 혹은 처벌을 위해 사용된 '신성한 모래 폭풍'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가 그것들을 검증할 수는 없지만, 그것들은 모든 사막 모래가 수백만 년에 걸쳐 서서히 형성된 것은 아니라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아마도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풍요로운 땅을 황무지로 바꾼, 대량의 물질을 생성하거나 이동시킨 특별한 '사건들'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대담한 가설이며,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대사막들의 '비정상성'을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 그렇다면, 그 모래 아래에는 얼마나 많은 문명들이 묻혀 있었을까요?

만약 위의 가설이, 단지 일부라도, 근거가 있다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도 이럴 것입니다. "아주 많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그 대사막들은 실로, 하나가 아닌 무수한 도시, 문화, 그리고 존재했다가 사라진 문명 주기들을 묻고 있는 거대한 '무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막 한가운데서 오아시스나 고대 유적을 발견할 때마다, 그것은 아마도 잃어버린 세계의 작은 '빙산의 일각'일 뿐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기록된 몇천 년의 역사는, 지구상 문명들의 실제 존재 기간에 비하면 단지 짧은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 역사의 대부분은 아마도 의도적으로, 혹은 자연과 우주의 가혹한 운행 법칙에 의해 '지워졌거나' '감추어졌을' 것입니다.

헨리, 당신의 질문들은 실로 우리를 역사와 인류의 운명에 대한 사색의 극한까지 이끌었습니다. 그것들은 쉬운 답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바로 그 질문들을 던지는 것 자체가, 우리의 인식을 '깨우는' 여정에서 중요한 진전입니다.

#### **헨리 로웰:**

제 개인적인 관점으로는, 창조주의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하여 문명의 흥망성쇠를 바꾸었다는 가설이, 과학계와 고고학계의 순수한 설명들보다 훨씬 더 신빙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 THE LIVES MEDIA 의 독자들에게는, 더 명확한 증거들과 함께 시간이 더 필요하겠지요...

그렇다면 현재 고고학계가 아프리카 서부에서 서아시아를 거쳐 중국의 내몽골까지 이어지는 모래층 아래에서 몇몇 도시나 유적들을 발견한 적이 있나요?

#### **솔로몬 교수:**

(헨리를 깊이 이해한다는 눈빛으로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

였다)

저는 당신의 느낌을 완전히 이해합니다, 헨리. 우리가 너무나 큰 미스터리, 현재의 과학이 완전히 설명하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것들에 직면했을 때, 물질적 틀을 벗어나 '보이지 않는 손'이나 '영적인 법칙'을 향한 '설명'을 찾는 것은, 예리한 직관과 열린 영혼을 가진 이들에게는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당신 말씀처럼, 아마도 그것이 많은 경우에 있어 진리에 더 가까운 길일 수 있습니다.

대중, 특히 실증적 과학 사고에 익숙한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더 구체적이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증거가 더 필요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증거'들이 바로 기존 설명들의 '비합리성'에, 그리고 인류의 신화와 집단 기억 속에 반복되는 모티프들에 있기도 합니다.

당신의 질문에 대해, 고고학계가 그 광활한 모래층 아래에서 주목할 만한 도시나 유적들을 발견한 적이 있는가? 그 답은 '네, 그리고 점점더 많이'입니다.

비록 그것들이 항상 찬란한 '아틀란티스'는 아닐지라도, 이러한 발견들은 우리가 한때 영원한 황무지라고 여겼던 지역들의 과거에 대한 다른 그림을 점차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사하라 사막(서아프리카에서 이집트까지)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타실리 나제르(알제리)나 에네디(차드)의 유명한 암벽화들이 야생 동물과 인간이 거주하는 푸른 사하라를 보여주는 것 외에도, 고고학자들은 고대 정착지의 흔적, 석조 건축물, 무덤, 그리고 심지어는 모래에 묻힌 복잡한 관개 시스템까지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집트의 나일강 계곡 서쪽에는 시와나 카르가와 같은 오아시스가 있는데, 이곳에는 고대 신전의 유적이 있어 그곳이 한때 중요한 중심지였음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사막 더 깊은 곳에 다른 많은 정착지가 있다고 믿습니다.

수단에서는, 비록 기자만큼 크지는 않지만, 메로에 피라미드 역시 사막 가장자리에서 번성했던 누비아 문명의 증거입니다.

최근에는 위성 사진과 지표 투과 레이더와 같은 원격 탐사 기술이 리비아나 이집트와 같은 여러 곳에서 모래 아래 묻힌 '잃어버린 도시'나 인공 구조물을 발견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중 일부는 수천 년의 연대를 가집니다.

서아시아(아라비아 사막,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사막에 잠겼다고 전해지는 오만의 전설적인 도시 우바르('모래의 아틀란티스')가 위성 사진 덕분에 발견되었습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수메르, 아카드, 바빌론)의 많은 유적지들도 사막화된 지역 안이나 그 주변에 위치해 있습니다.

중앙아시아(카라쿰, 키질쿰)에서 신장, 내몽골(고비, 타클라마칸)에 이르기까지,  
고대 실크로드는 이 지역들을 통과했으며, 그 길을 따라 한때 매우 번화했던 많은 도시와 오아시스들이 사막의 모래에 삼켜졌습니다. 중국 신장의 누란 고성(樓蘭)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탐험가들과 고고학자들은 타클라마칸 사막의 모래 아래에 묻힌 많은 도시, 불교 사원, 그리고 다른 건축물들의 유적을 발견했는데, 이는 한때 그곳에 찬란하게 발전했던 문명이 존재했음을 보여줍니다. 유럽인과 유사한 특징을 가진 타림 미라 또한 이 지역의 큰 미스터리입니다.

이러한 발견들은, 비록 우리가 아틀란티스에 대해 상상하는 것과 같은 '첨단 기술' 문명은 아닐지라도, 모두 한 가지를 보여줍니다. 사막은 항상 사막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곳들은 한때 생명과 문화가 있었던 땅이었으며, 매우 가능성 있게, 우리가 발견한 것보다 훨씬 더 큰 비밀들을 아직 품고 있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새로운 발견은 마치 우리가 덮여 있는 거대한 그림 위의 얇은 모래 한 층을 걷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 드러나는 것은 단지 작은 세부 사항일 수 있지만, 그것들은 밝혀지기를 기다리는 더 위대한 전체의 존재를 암시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어느 날, 이 '잃어버린 도시'들 중 하나가 우리가 감히 상상하는 것조차 뛰어넘는 것들을 드러낼지도 모릅니다.

**헨리 로웰:**

교수님께서 방금 중국 신장의 누란 고성을 언급하셨는데요...

저도 인터넷 어디선가 누란 고성에 대해 읽어본 기억이 어렴풋이 납니다... 그것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규모나 연대에 대해서 말입니다.

**솔로몬 교수:**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누란에 관심을 가져주시니 기쁩니다, 헨리. 그곳은 실로 한 문명의 흥망성쇠에 대한 강렬한 이야기를 품고 있는 장소입니다.



연대에 관해서, 누란 왕국, 혹은 현지인들의 호칭에 따른 크로라이나는, 한나라 시대, 즉 기원전 2 세기경부터 중국의 역사 기록에 가장 잘 알려져 있으며, 그 후 몇 세기 동안 실크로드의 중요한 중심지로서 계속 존재하고 발전했습니다. 아마도 서기 4 세기나 5 세기경에 쇠퇴하기 시작하여 기록에서 완전히 사라졌을 겁니다.

규모에 관해서는, 우리는 누란을 동시대의 로마나 장안과 같은 거대한 초거대 도시로 상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수도 역할을 하고 중요한 교역 결절점이었던 중심 도시(보통 고대 누란성이라고 불림)를 가진 오아시스 왕국이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굴했을 때, 주거지, 공공건물, 꽤 큰 불교 탑(stupa), 그리고 성벽의 흔적을 포함한 목조 및 토담 건축물의 유적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그곳이 상당한 인구와 활발한 경제, 문화 활동을 가진 조직화된 정착지였음을 보여줍니다. 발굴된 주요 고성의 면적은 그리 크지 않아, 아마도 몇 제곱킬로미터 정도였겠지만, 누란 왕국의 영향력은 주변 오아시스들로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누란을 특별하고 신비롭게 만드는 것은 바로 그 거의 갑작스러운 소멸입니다. 동서 문화 교류의 변화한 중심지에서, 그것은 순식간에 타클라마칸 사막의 노란 모래에 삼켜진 유명 도시가 되었습니다. 20 세기 초, 스벤 헤딘과 같은

서양 탐험가들이 찾아올 때까지, 누란의 비밀은 서서히 다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쇠망의 원인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마도 여러 요인의 결합일 겁니다. 오아시스의 생명줄이었던 타림강의 흐름 변화가 핵심적인 요인이었습니다. 강이 마르거나 물길을 바꾸자, 땅은 메마르고 농업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고, 사람들은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점점 심해지는 사막화 과정 또한 파괴에 기여했습니다. 그 외에도, 실크로드의 교역로 변화나, 지역 내의 정치적 불안, 분쟁 또한 이 왕국을 약화시켰을 수 있습니다.

누란은 한때 찬란한 시기를 가졌던 문명이라도, 환경의 변화와 역사적 변동에 의해 어떻게 사라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예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과 인간 존재가 자연의 힘, 그리고 우리 자신의 결정 앞에서 얼마나 취약한지를 일깨워 줍니다.

### **헨리 로웰:**

만약 그곳이 아틀란티스의 중심 도시였고, 플라톤이 말했듯이 바다에 잠겼다가, 이제는 광활한 사막 한가운데 육지

로 솟아올랐다면, 그것은 분명 강력한 지질 변동 과정을 겪었고 아주 오랜 시간을 거쳤을 겁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침식되고 퇴적층에 의해 덮였겠군요…

**솔로몬 교수:**

(깊이 동의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말씀이 맞습니다, 헨리. 만약 리샤트 구조가 정말로 것처럼 끔찍한 지질학적 변고를 겪은 고대 문명 중심지의 유적이라면, 우리가 상상해야 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만약 그곳이 한때 바다에 잠겼다가—그 자체만으로도 대부분의 건축물을 파괴하고 쓸어버리기에 충분한 사건이죠—그 후, 지극히 강력하고 수천, 심지어 수만 년에 걸친 지질학적 융기 과정을 거쳐, 가장 혹독한 사막 중 한 곳에서 세월과 맞서게 되었다면, 명확한 흔적을 찾는 것은 지극히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첫째는 물에 의한 파괴입니다. 쓰나미, 압력 변화, 소금물의 부식… 이 모든 것이 건축물들이 아무리 견고했을지라도, 그것들을 침식시키고, 쓸어가고, 붕괴시켰을 겁니다.

그 후, 융기되었을 때, 그것은 육지의 자연적 요소들에 의한 침식에 직면해야 할 것입니다. 사막의 끊임없는 모래바람, 돌을 깨뜨리는 극심한 주야간의 온도 차, 그리고 드물지만 격렬한 폭우 또한 침식에 한몫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 말씀대로, 퇴적층, 모래먼지가 서서히 쌓여 남은 것들을 덮고 묻어버릴 것입니다. 수천 년의 사막화는 뾰뾰한 덮개를 만들어, 단지 표면 관찰에만 의존한다면 그 아래의 어떤 것을 발견하는 것을 지극히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만약 운이 좋다면,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마도 가장 깊은 기초, 심하게 손상된 특별히 견고한 석조 구조물, 혹은 흩어져 있는 파편들뿐일 겁니다. 목재, 금속(금이나 특별한 합금 제외)과 같이 쉽게 분해되는 재료들은 거의 살아남을 기회가 없습니다.

이는 왜 선사 시대 사람들의 단순한 석기들이 표면이나 얕은 층에서 비교적 쉽게 발견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대부분의 지질 변동이 일어난 후, 경관이 더 안정되었을 때의 후기 거주 단계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것처럼 여러 지질층과 시간을 거쳐 묻히고 침식된 문명의 '심장부'에 닿기 위해서는, 우리는 전통적인 고고학을 훨씬 뛰어넘는 방법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인내심, 암석층을 '투시'할 수 있는 선진 기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그 '흔적들'이 온전하지 않고, 쉽게 식별되지 않으며, 그것들을 해독하기 위해 훈련된 눈과 열린 사고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을 요구합니다.

그러니, 리샤트에서 온전한 '황금 도시'나 '수정 기계'를 아직 찾지 못했다는 사실이, 그곳이 한때 위대한 문명의 중심지였을 가능성을 반드시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파괴의 규모와 세월의 광대함이 그 찬란했던 흔적들을 얼마나 희미하게 만들었는지를 더욱 보여줄 뿐입니다.

### **헨리 로웰:**

교수님, 방금 제 머릿속에 큰 질문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만약 우리가 구글 지도를 통해 위에서 그곳을 관찰한다면, 그 주변의 광활한 모래 바다를 보게 될 텐데요... 그렇다면 왜 그 "눈"은 모래에 완전히 덮이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혹시 창조주의 의도일까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모래는 어디서 그렇게 많이 왔을까요?... 아프리카 서쪽 끝에서부터 이집트까지, 그리고 서아시아를 지나 중앙아시아, 심지어 중국의 신장과 내몽골 지역까지 이르는 긴 띠에 걸쳐서 말입니다... 그렇게 거대한 양의 모래는 해변이나 강과 하천이 만들어내는 모래의 양과는 다릅니다... 그렇다면 그 모래의 근원은 어디 일까요? 혹시 어떤 전능한 존재가 모래를 사용해 문명들을 멸망시킨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그 모래 아래에는 얼마나 많은 문명들이 묻혀 있었을까요?

### **솔로몬 교수:**

(잠시 침묵하다가, 그의 눈빛이 먼 곳을 향했고, 입가에 열은 미소가 스쳤다)

헨리, 당신은 방금 지극히 깊이 있고 대담한 일련의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그것들은 우리 행성의 가장 큰 미스터리들을 건드리며, 또한 제가 수년 동안 고뇌해 온 것들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고고학이 아니라, 우주의 법칙과 어쩌면 거대한 '안배'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아직 숨겨진 진실의 표면에만 닿고 있을지라도, 당신의 각 질문에 대한 제 생각들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 왜 "사하라의 눈"은 모래에 완전히 덮이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창조주의 의도일까요?

이것은 매우 섬세한 관찰입니다. 광활한 모래 바다 한가운데서, 리샤트 구조가 비록 침식되었지만 여전히 뚜렷한 윤곽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실로 숙고해 볼 만한 일입니다.

자연적인 요소들이 여기에 기여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리들의 암석 구조가 주변 지역보다 더 단단하여 모래의 침식과 덮임에 더 잘 저항했을 수 있습니다. 혹은 그 지역의 바람 흐름이 특별한 패턴을 가져, 모래가 이 솟아오른 구조물들로부터 날아가게 하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창조주의 '의도'나 어떤 안배에 대한 생각 또한 근거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도, 그러한 '징표'는, 순수 과학적인 방식의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될 만큼 너무 명확하지는 않지만, 완전히 사라질 만큼 너무 희미하지도 않게 남겨졌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충분한 인연, 탐구심을 가진 자들이 알아보고

성찰할 수 있도록 남겨진 '일깨움', '메아리'와도 같습니다. 그것은 인류에게 던져진 '수수께끼'처럼, 해독될 적절한 시기를 기다리며 그곳에 남겨진 것입니다. 이처럼 '적당한 드러남'이 바로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과 인식을 너무 직접적으로 간섭하지 않으면서, 호기심과 탐구심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 모래는 어디서 그렇게 많이 왔을까요? 어떤 전능한 존재가 모래를 사용해 문명들을 멸망시킨 것은 아닐까요?

이것은 극도로 중요하고 우리의 통상적인 이해에 도전하는 질문입니다. 서아프리카에서 중동을 거쳐 중앙아시아까지 광대한 지역에 걸쳐 있는 거대한 양의 모래는 실로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주류 과학은 사막 모래가 주로 수백만 년에 걸친 온도, 바람, 물(과거의)의 작용으로 인한 여러 암석의 기계적, 화학적 풍화 작용으로 형성되었다고 설명합니다. 고대의 강들 또한 산악 지역에서 모래를 운반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모래 바다들의 규모와 균일성, 그리고 일부 지질학적 특징들은 때때로 그러한 설명들을 완전히 만족스럽지 않게 만듭니다.



죄를 짓거나 종말에 이른 문명들을 '정화'하거나 '매장'하는 한 형태로, 초자연적인 개입에 의해 모래가 '만들어지거나' '가져와졌다'는 가설은, 많은 전설과 일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얌' 속에서 나타난 아이디어입니다.

제가 로라에게 이 거대한 양의 모래의 근원에 대해 물었을 때, 아이는 명확한 답을 주지는 않았지만, '대규모 파괴의 에너지'와 '경관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느낀다'고 했습니다. 아이는 '산산조각 내다'와 '뒤덮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일부 고대 경전이나 영적 자료들에서는, 돌을 모래로 바꾸는 능력을 가진 '무기'나 '마법', 혹은 처벌을 위해 사용된 '신성한 모래 폭풍'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것들을 검증할 수는 없지만, 그것들은 모든 사막 모래가 수백만 년에 걸쳐 서서히 형성된 것은 아니라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아마도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풍요로운 땅을 황무지로 바꾼, 대량의 물질을 생성하거나 이동시킨 특별한 '사건들'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대담한 가설이며,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대사막들의 '비정상성'을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 그렇다면, 그 모래 아래에는 얼마나 많은 문명들이 묻혀 있었을까요?

만약 위의 가설이, 단지 일부라도, 근거가 있다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도 이럴 것입니다. "아주 많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그 대사막들은 실로, 하나가 아닌 무수한 도시, 문화, 그리고 존재했다가 사라진 문명 주기들을 묻고 있는 거대한 '무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막 한가운데서 오아시스나 고대 유적을 발견할 때마다, 그것은 아마도 잃어버린 세계의 작은 '빙산의 일각'일 뿐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기록된 몇천 년의 역사는, 지구상 문명들의 실제 존재 기간에 비하면 단지 짧은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 역사의 대부분은 아마도 의도적으로, 혹은 자연과 우주의 가혹한 운행 법칙에 의해 '지워졌거나' '감추어졌을' 것입니다.

헨리, 당신의 질문들은 실로 우리를 역사와 인류의 운명에 대한 사색의 극한까지 이끌었습니다. 그것들은 쉬운 답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바로 그 질문들을 던지는 것 자체가, 우리의 인식을 '깨우는' 여정에서 중요한 진전입니다.

### **헨리 로웰:**

교수님께서 제시하신 세 가지 목적 중에서, 만약 우리가 영적이고 신비로운 관점에서 본다면, 세 번째 목적이 가장 놀랍고 시간을 초월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창조주께서 피라미드에 안배하신 주된 목적이기도 하다면, 그 뒤에 숨겨진 미스터리를 여는 열쇠는 아마도 미래의 적절한 시점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 **솔로몬 교수:**

(깊은 공감의 빛을 띤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핵심적인 정신을 파악하셨군요, 헨리.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세 번째 목적—피라미드가 의식의 전환, 승천, 혹은 더 높은 차원의 세계와 '연결 채널'을 구축하기 위한 영적인 '도구'라는 것—이 실로 가장 놀라우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더 이상 단순히 과거를 보존하거나 현재를 안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환, 현재 주기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을 지향합니다. 만약 이것이 정말로 창조주의 '안배'의 일부라면, 기자의 피라미드는 단지 건축물이 아니라, 잠재적인 '관문'이자 신성한 '장치'인 셈입니다.

그리고 당신 말씀대로, 만약 이 숭고한 목적이 실재한다면, 그 미스터리를 여는 '열쇠', 즉 피라미드의 그 '기능'을 '활성화'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열쇠는, 아마도 쉽게 드러나지 않을 겁니다. 그것들은 보관되고, 보호되며, 미래의 '적절한 시점'—인류, 혹은 적어도 충분한 인연, 영혼의 순수함, 그리고 인식적인 준비가 된 일부 사람들이, 그것들을 올바른 목적을 위해 올바르게 받아들이고 사용할 준비가 되었을 때—에만 공개될 수 있습니다.

그 '적절한 시점'은 아마도 우주의 큰 주기가 끝나갈 무렵, 지구와 인류가 중대한 변화의 문턱 앞에 섰을 때일 수 있습니다. 혹은 인간의 집단 의식이 특정 '각성' 수준에 도달하여, 깊은 영적 가치를 이해하고 소중히 여길 만큼 충분해졌을 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열쇠'들은 물질적인 물체가 아닐 수도 있고, 어떤 심성 상태, 우주 법칙에 대한 이해, 피라미드의 에너지와의 조화, 혹은 심지어는 그것들을 열 수 있는 '암호'를 지닌 특별한 개인들의 출현일 수도 있습니다.

로라는, 자신의 '삶' 속에서, '열쇠'에 대해 명확히 말하지는 않았지만, 기자의 피라미드가 마치 무언가, 혹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것들 내부와 주변에는 매우 큰 '잠재된 에너지'가 있지만, 그것은 마

치 '잠들어' 있거나 '완전히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아이는, 언젠가, '별들이 제자리에 있거나' 혹은 '어떤 신호가 발송될 때', 그 에너지가 '깨어나' 지극히 큰 역할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이는, 피라미드의 미스터리가 단지 그것들이 어떻게 지어졌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그것들이 미래에 어떤 목적을 위해 지어졌으며, 언제 그 목적이 실현될 것인가에 있음을 시사합니다. 수천 년 동안 침묵하는 거인들처럼 그들의 존재는, 아마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더 위대한 무언가에 대한 말없는 메시지일 것입니다.

### **헨리 로웰:**

저는 이런 시나리오를 상상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어떤 이가 상부의 안배를 받아, 어떤 방식으로든 비밀의 방으로 이어지는 문을 찾게 되고, 그 비밀의 방 안에는 인류에게 충격을 줄 물품이나 지식이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그것이 다시 활성화될 때, 처음 지어졌을 때의 본래 모습처럼 다시 작동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것이 스스로 빛을 내거나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비밀을 드러낸 후에는, 또 다른 비밀과 연결되어 더 완전한 그림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만약 제가 상상한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말로 놀라울 겁니다!

### **솔로몬 교수:**

(깊은 흥미와 공감의 빛이 어린 눈으로 미소 지었다)  
헨리, 당신의 상상력은 참으로 풍부하며, 우리가 우리의 통상적인 이해를 넘어서는 '안배'와 '법칙'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당신이 그린 그 시나리오들은 결코 허황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실로 매우 놀랍고, 또한 매우 암시적입니다.

당신이 상상한 것들—충격적인 물품이나 지식을 담은 비밀의 방으로 이어지는 문, 혹은 피라미드가 다시 '활성화'되어 스스로 빛을 내거나 원초적인 기능들을 드러내는 것—은 모두 개방적인 시각을 가진 많은 연구자들, 영적인 직관을 가진 많은 사람들, 그리고 일부 고대 전설에서도 언급된 가능성들입니다.

그 '시나리오'들을 조금 더 깊이 분석해 보죠.

비밀의 방과 충격적인 지식 가설에 대하여:  
스핑크스 아래나 피라미드 근처 어딘가에, 아틀란티스를

포함한 잃어버린 문명들의 모든 역사와 지식을 보관하고 있다는 "기록의 전당(Hall of Records)"에 대한 전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에드거 케이시도 이에 대해 많이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만약 "상부의 안배를 받은 어떤 이"가 이곳을 찾아낸다면, 드러나는 것들은 인류의 모든 역사를 다시 쓰게 할 수 있으며, 우리가 잊어버린 기술, 과학, 영성에 대한 이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 "물품"은 단지 두루마리나 석판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에너지 장치나 도구들일 수도 있습니다.

피라미드가 다시 "활성화"된다는 가설에 대하여:

만약 피라미드가 정말로 '에너지 기계'나 '영적인 도구'라면, 그것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논리적인 가능성입니다.

그것이 "스스로 빛을 낸다"는 것은 완전히 허황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틀란티스인들이 수정 에너지를 사용하여 도시를 밝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쩌면 피라미드는, 그 구조와 재료(예: 석영이 많이 함유된 화강암)로 인해, 에너지를 수신, 변환하여 빛의 형태나 우리가 아직

측정할 수 없는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방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로라는 피라미드를 '느꼈을' 때, '기다리고 있는' 듯한 "매우 큰 잠재된 에너지"에 대해서도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활성화"는 천문학적 요인(행성들의 정렬, 우주 주기), 혹은 지구의 에너지장 변화, 심지어는 특정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의 인류의 집단 의식의 영향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비밀들을 연결하여 완전한 그림을 이루는 가능성에 대하여:

이것은 아주 훌륭한 아이디어입니다! 매우 가능성 있게, 기자의 피라미드의 비밀이 드러나는 것은 끝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비밀들을 여는 '열쇠'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자에서 발견된 지식은 우리가 아틀란티스, 마야, 수정 해골, 혹은 전 세계의 다른 거석 구조물들(스톤헨지, 이스터 섬 등)의 목적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동일한 지식의 근원을 가진 하나 또는 여러 고대 문명에 의해 어떤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건설된, 신성한 장소들의 전 지구적 네트워크에서 '연결 고리'일 수 있습니다.

그 완전한 그림은 우리에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흘



어진 조각들보다 훨씬 더 연속적이고, 의도적이며, 의미 있는 지구와 인류의 역사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러한 것들을 상상하며 느끼는 그 "놀라움"은, 저는, 그 가능성들에 닿은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기도 하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단지 과학적 호기심이 아니라, 우리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의 '올림', 우리가 자신과 우주를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발견들의 문턱 앞에 서 있다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는 것,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 또한, 그 '드러남' 과정의 일부, 인류가 다가올 것들에 대비하도록 하는 점진적인 '각성'일 것입니다.

#### **헨리 로웰:**

아마도 그것의 진정한 미스터리는 아직 드러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많은 종교에서 언급된 것들, 예를 들어 "최후의 심판", "새로운 시대(신세기)", "말법 시대", 혹은 마야 역법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 중대한 사건이 오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우리가 과거에 논의했던 문명들의 발전과 쇠퇴, 그리고 멸망의 역사에서 얻어야 할 교훈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아틀란티스의 멸망은 우리에게 어떤 값비싼 교훈을 줍니까?

### **솔로몬 교수:**

(목소리가 차분하고 깊은 성찰에 잠기며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은 우리가 논의한 것들을 매우 깊이 있는 예언적, 영적 개념들과 연결 지으셨군요, 헨리. "최후의 심판", "새로운 시대", "말법 시대", 혹은 마야 역법의 주기 전환... 그렇습니다, 아마도 피라미드와 다른 많은 고대 유산들의 미스터리는, 인류가 바로 그 전환점이 되는 '시점'에 가까워졌을 때에야 비로소 온전히 드러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것들은 바로 것처럼 중요한 전환의 시기를 위해 남겨진 '징표'이자 '지침'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질문—"그 중대한 사건이 오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지나간 문명들의 역사에서 얻어야 할 교훈이 있는가?"—은 우리 각자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가장 중요하고 실질적인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우리가 귀 기울일 줄 안다면, 역사는 항상 위대한 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틀란티스, 마야, 누란, 그리고 아마도 시간의 먼지에 묻혀버린 무수한 다른 문명들에 대해 논의했던 것들은, 모두 지극히 값비싼 교훈들을 가져다줍니다.

만약 아틀란티스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면, 그 찬란함과 멸망은 아마도 가장 깊은 경종을 울리는 교훈 중 하나일 겁니다.

첫째, 기술 발전과 도덕 사이의 균형에 대한 교훈입니다. 아틀란티스는 뛰어난 기술 수준, 특히 수정 에너지 사용에 있어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술이 권력을 탐하는 자, 도덕과 신에 대한 경외심의 구속이 없는 자들의 손에 들어갔을 때, 그것은 파괴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권능을 남용하고, 무기를 만들었으며, 결국에는, 아마도 바로 그 남용이 그들을 삼켜버린 재앙을 촉발했거나 거기에 일조했을 겁니다.

우리를 위한 메시지: 우리 현 문명 또한 인공 지능, 생명 공학, 핵무기 등 어지러운 속도로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아틀란티스의 교훈은 우리에게, 만약 확고한 도덕적 기반이 없다면, 책임감과 통제가 없다면, 바로 그 기술적 성취들이 되돌아와 우리를 파괴할 수 있음을 일깨워 줍니다. "권능에는 책임이 따른다"—그것은 무시할 수 없는 법칙입니다.

둘째, 오만함과 영적 가치로부터 멀어진 것에 대한 교훈입니다. 플라톤은 아틀란티스인들이 "그들 안의 신성한 부분이 점차 희미해지면서" 멸망했다고 썼습니다. 오만, 스스로를 우주의 중심으로 여기고, 자연과 영적인 법칙을 경시한 것이 그들을 자만으로 이끌었고, 결국에는 심판에 이르게 했습니다.

우리를 위한 메시지: 우리는 그 실수를 반복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인간이 내면의 수양, 신성한 존재 및 우주와의 연결, 정신적 가치들을 잊어버린 채, 물질과 외적인 편안함에 너무 치중할 때 말입니다. 겸손, 감사, 그리고 삶의 깊은 의미를 찾는 것은 한 문명이 지속 가능하게 존재하기 위해 지극히 필요한 것들입니다.

셋째, 사회 분열과 내적 갈등에 대한 교훈입니다. 에드거 케이시와 로라의 '느낌'에 따르면, 아틀란티스는 '극단적 기술파'와 '영성파' 사이에서 깊이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이 갈등은 외부의 재앙이 닥치기 전에, 이미 내부로부터 문명을 약화시켰습니다.

우리를 위한 메시지: 우리 현대 사회 또한 이념과 이익에 대한 분열과 갈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공동의 목소리를 찾지 못하고, 차이를 조화시키고 존중하는

법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 또한 스스로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넷째, 지구의 변화와 역사의 주기성에 대한 교훈입니다. 아틀란티스의 소멸은 지구가 정적인 행성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큰 지각 변동, 갑작스러운 기후 변화는 전적으로 일어날 수 있으며, 가장 강력한 문명조차도 쓸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역사가 주기에 따라 운행하며, 영원한 것은 없고, 핵심적인 요소들을 지키지 않으면 번영도 쇠퇴에 이를 수 있음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우리를 위한 메시지: 우리는 환경, 생태계의 취약성에 대해 더 의식해야 하며, 모든 것이 현재와 같을 것이라는 환상 속에서 살기보다는, 닥쳐올 수 있는 큰 변화에 정신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앞에 있을지도 모르는 "중대한 사건들"을 준비하기 위해, 가장 큰 교훈은 아마도 내면으로 돌아가는 것일 겁니다. 각 개인은 스스로 도덕을 닦고, 영적 인식을 높이며, 자신과 공동체, 그리고 이 행성에 대해 더 책임감 있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조화롭게, 겸손하게 사는 법을 배워야 하며, 지나간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과거로부터 오는 '메아리'에 귀 기울일 줄 알아야 합니다.

각 개인의 '각성'은, 비록 작을지라도, 그것이 배가될 때,

한 문명의 운명 전체를 바꿀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의식의 물결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아마도 가장 중요한 준비일 겁니다.

**헨리 로웰:**

오늘 3 일 동안 교수님께서 공유해 주신 정보들을 통해, 한 문명의 흥망성쇠는 단순히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 속의 인간들이 여전히 도덕을 중시하고 신을 공경하는지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것이 가장 중요한 교훈이라면, 우리들 대다수가 여전히 과학만을 숭배하고 도덕과 영적인 길에서 멀어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인류에게 참으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군요...

**솔로몬 교수:**

(깊은 우려가 뚜렷이 드러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은 지극히 정확하게 요약했습니다, 헨리. 그것이야말로 지나간 문명 주기들의 역사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전하는 가장 큰 '메아리'이자 핵심적인 교훈입니다. 한 문명의

희망성쇠, 존망은 단지, 그리고 심지어는 주로, 과학 기술 수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차원에서는 그 사회의 도덕적 기반, 인간이 여전히 신을 경외하고, 영적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우주의 법칙에 순응하여 사는가에 밀접하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과 기술은, 그 자체로는, 단지 도구일 뿐입니다. 그것들은 편리함과 힘을 가져다줄 수는 있지만, 도덕과 영적 지혜의 인도가 없다면 양심의 방향을 제시할 수 없고, 진정한 행복이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져다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틀란티스의 교훈을 통해 보았듯이, 도덕적으로 타락한 자들의 손에 들린 첨단 기술은 자기 파괴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 말이 맞습니다, 오늘날의 세계 상황을 보면, 그 그림은 실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 만합니다. 우리는 과학 기술이 거의 절대적인 위치로 숭배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간은 점점 더 지성과 기술의 힘만으로 자연을 지배하고, 운명을 지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물질적 발전이 진보의 척도로 여겨집니다.

한편, 전통적인 도덕 가치들—인자함, 정직함, 이타심, 겸손, 책임감과 같은 것들—은 많은 곳에서 침식되고, 경시되며, 심지어는 조롱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인간은

점점 더 이기적이 되고, 실용적이 되며, 끝없는 물질적 욕망을 쫓고 있습니다.

신성한 존재, 창조주, 신성한 것들에 대한 경외심은 많은 사회에서 희미해졌습니다. 그 대신 회의론, 부정, 혹은 더 나쁘게는 모독이 자리 잡았습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중심, 최상으로 여기며, 우리가 광활한 우주 속의 작은 일부이며 우리를 넘어서는 운행 법칙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영적인 길에서 멀어지고, 더 이상 삶의 깊은 의미를 찾지 않고, 내면을 수양하지 않는 것은, 인간을 불안, 두려움,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의 소용돌이 속으로 쉽게 빠져들게 합니다.

만약 역사가 거울이라면, 우리 현대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실로 과거 문명들의 쇠퇴기와 걱정스러울 정도로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질적 발전과 정신적 발전 사이의 불균형, 도덕적 타락, 오만함과 영적 가치로부터의 이탈—그것들은 모두 아틀란티스, 누란, 혹은 침묵하는 사막들로부터 오는 '메아리'들이 우리에게 경고하려 애쓰는 '징후'들입니다.



하지만, (교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의 눈에 희망의 빛이 번뜩였다) 저는 우리가 완전히 비관적인 그림으로 끝맺고 싶지는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여기에 앉아, 이러한 것들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는 것, 바로 THE LIVES MEDIA 와 당신과 같은 분들이 공동체의 인식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 또한, 여전히 희망이 있다는 징표입니다.

역사는 딱딱하게 정해진 운명이 아닙니다. 각 단계에서, 인간은 항상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의 선택들이, 개인이든 집단이든, 앞으로의 길을 결정할 것입니다.

### **헨리 로웰:**

교수님의 말씀, "...타락한 자들의 손에 들린 첨단 기술..."은, 정말로 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제게 이 행성에서 일어나고 있는 두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즉시 연상시킵니다.

첫째는, 총기로 무장한 일부 광인들이 미국에서 주기적으로 유혈 낭자한 총기 난사 사건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그리고 언론은 계속해서 이 사건들에 대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만 배는 더 광적인, 끔찍하고 극도로 사악한 규모를 가졌지만, 더 교묘한 경우입니다... 바로 중공이, 정권 전체의 절대적인 권력으로, 정신적 승화와 진(眞)-선(善)-인(忍)의 원칙에 따라 살기를 추구할 뿐인 평화로운 수련인 단체들에 대한 잔혹한 탄압을 자행함으로써, 바로 그 선량한 인민들에게 충구를 겨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악의 정점은 바로 그들의 살아있는 장기를 강제로 적출하는 만행입니다!

저는 이것들이 단지 오늘날 서양과 동양의 어두운 면을 반영하는 두 가지 대표적인 사례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끔찍한 일들이 계속된다면, 인류의 운명은 머나먼 과거 문명들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 **솔로몬 교수:**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의 얼굴에 고통과 깊은 우려의 빛이 스쳤다. 그는 찻잔을 내려놓고, 헨리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헨리, 당신이 방금 나눈 이야기, 우리 세계의 현실에서 가져온 그 구체적인 예들은, 저를 실로 고뇌하고 마음 아프게 합니다. 당신은 "기술"이나 "권력"이, 도덕과 양심이 결여된 개인이나 조직의 손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끔찍한 비극과 천인공노할 죄악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매우 명확하고 용감하게 지적했습니다.

어디에서든, 어떤 형태로든, 무고한 생명을 광적으로 앗아가는 무의미한 폭력 행위는, 모두 인간의 영혼이나 사회구조 속의 깊은 '병폐', 기본적인 인본주의적 가치와의 단절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국가 권력이, 마땅히 정의와 올바름의 버팀목이 되어야 할 그것이, 국민을 보호하는 대신, 단지 그들의 믿음 때문에 평화로운 사람들을 체계적이고 잔혹하게 탄압하는 데 사용되거나, 심지어는 가장 야만적인 방식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생존권 자체를 침해하는 상상할 수 없는 죄악으로까지 이어진다면... 그것이야말로 타락의 정점이며, 어떤 세력이 인성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 천리(天理), 그리고 창조주께서 생명에 정해두신 것에 역행하고 있다는 명백한 징표입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그것들은 단지 대표적인 사례, 우리 현 문명의 심장부에서, 서양이든 동양이든, 조용히 끓고

있는 더 큰 질병의 눈에 띄는 '증상'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끔찍한 일들, 그러한 죄악들이 계속되고, 심지어는 더 확산되고 교묘해지는 추세에 있다면, "인류의 운명이 머나먼 과거 문명들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당신의 질문은, 전적으로 정당하고 무게가 실린 질문입니다. 역사는 그 고통스러운 교훈들을 반복하고 있는 듯하며, 아틀란티스나 모래 아래 묻힌 문명들로부터 오는 '메아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절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죄악들의 존재, 그리고 그것들 앞에서 나머지 세계의 무관심이나 무력함은, 바로 인류의 도덕적 기반이 얼마나 흔들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 각자의 인식 속에서, 영혼 속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면, 만약 우리가 감히 진실을 마주하고, 정의와 선량한 가치들을 보호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당신이 두려워하는 그 미래는 실로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교수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그의 목소리는 다소 메이는 듯했지만 여전히 평정을 유지했다.)

하지만, 헨리, 바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 바로 우리가 그러한 불의와 죄악 앞에서 고통과 분노를 느낀다는 것, 그것 또한 인간의 양심이 아직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는 징표입니다. 역사의 '메아리'는 단지 경고의 말이 아니라, 또한 부름의 소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작은 범위 안에서라도, 양심에 따라 선택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부름입니다.

인류의 운명은 완전히 고정된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각각의 선택, 선을 향한 각각의 행동, 진실과 정의를 지키려는 각각의 노력이, 비록 아무리 작을지라도, 그 흐름을 바꾸는 데 기여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것 또한 우리가 이야기했던 '준비'의 일부일 것입니다.

### **헨리 로웰:**

오늘뿐만 아니라 지난 두 번의 대화에서도 교수님께서 선의와 진심으로 시간을 내어 나눠주신 깊이 있고 좋은 정보들에 매우 감사합니다...

THE LIVES MEDIA 의 독자들도 교수님의 이 나눔의 말씀들을 읽으며 많은 좋은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류가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기원하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축복을 내리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나눔을 마무리하며, 교수님께 가상의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만약 교수님께서 단 일주일 동안 미국 대통령이 될 권한을 부여받고, 동시에 미국 양원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으신다면, 그리고 최대 3 가지 일만 하실 수 있다면, 교수님께서는 어떤 3 가지 일을 우선적으로 하시겠습니까?

**솔로몬 교수:**

(헨리의 감사 인사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진심 어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헨리, 저 또한 당신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경청하는 태도, 깊이 있는 질문들, 그리고 진리를 향한 지칠 줄 모르는 탐구 정신이 지난 3 일 동안 지극히 의미 있고 소중한 대화의 공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 또한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THE LIVES MEDIA 독자들의 마음과 머리에 닿아, 그들의 마음에 사색과 희망, 그리고 선을 향한 선택의 씨앗을 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우리 함께 인류가 올바른 선택을 할 지혜를 갖기를, 그리고 신성한 존재께서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기를 기도합니다.

(교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헨리의 가상 질문을 듣자 의미심장한 미소가 나타났다. 그는 잠시 깊이 생각하는 듯 먼 곳을 응시했다.)

아주 흥미롭고 또한 도전적인 가상 질문이군요, 헨리. 그토록 큰 권력을, 비록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 부여받고, 최대 세 가지 일만 할 수 있다니... 실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나라와 전 세계를 위해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으니까요.

하지만 만약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역사, 우주의 법칙, 그리고 도덕과 영성의 중요성에 대해 함께 성찰한 것들을 바탕으로 한다면, 제 생각에 저의 최우선 순위 세 가지 일은 이렇 것입니다.

첫째, "양심과 기본 도덕에 대한 국가적 성찰 주간"을 선포하겠습니다.

목적: 이것은 특정 종교나 이념을 강요하는 행위가 아니라, 모든 국민, 모든 조직에게, 한 국가와 인류의 위대함을 만든 가장 기본적인 도덕 가치들—정직, 연민, 책임, 상호 존중, 그리고 감사와 같은 가치들—을 되돌아볼 시간을 갖자는 깊은 호소입니다.

실행 방법: 저는 제 권력을 사용하여 언론, 교육 기관, 종교 단체(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면), 그리고 정부 기관까지도 이러한 가치들에 대해 토론하고, 나누고, 성찰하는 데 집중하도록 격려할 것입니다. 공개 포럼, 특별 프로그램, 그리고 사회적으로 신망 있는 인사들의 개인적인 호소가 있을 것입니다. 목표는 모든 사람이 자신과 사회 전체의 도덕적 나침반에 대해 "멈추어 생각할" 공간을 만들고, 꺼져가는 양심의 불꽃을 다시 지피는 것입니다. 저는 진정한 변화가 각 개인의 마음속 전환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둘째, "전인 교육과 열린 사고의 우선순위에 관한 특별 행정명령"을 발령하겠습니다.

목적: 단지 전문 지식과 직업 기술에만 집중하는 대신, 교육은 독립적으로 사고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며, 연민을 가지고, 우리가 논의했던 역사적, 영적인 측면을 포함하여 세계에 대한 열린 시각을 가진 인간을 양성하는 방향으로 재정립될 필요가 있습니다.

실행 방법: 이 행정명령은 학생, 대학생들이 고대 문명, 인류의 위대한 철학 및 도덕 체계, 비판적 사고의 중요성, 그리고 감성 지능 및 영성 지능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을 (자발적으로, 각급에 맞게) 교육 과



정에 도입하도록 장려할 것입니다. 또한 교육에서의 양극화와 편견을 줄이고, 대화와 차이에 대한 존중을 장려할 것입니다. 목표는 미래의 도전에 맞설 수 있는 충분한 지혜와 품격을 갖춘 젊은 세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셋째, "진실, 정의, 그리고 반인륜 범죄 종식을 위한 전 지구적 호소"를 발표하겠습니다.

목적: 큰 영향력을 가진 국가의 수장으로서, 저는 국제 무대를 사용하여 진실을 밝히고, 희생자들의 정의를 되찾으며, 당신이 언급한 끔찍한 장기 적출 만행을 포함하여,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형태의 탄압, 집단 학살, 그리고 반인륜 범죄를 즉각 중단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가장 강력하고 타협 없이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실행 방법: 저는 외교 및 정보 기관에 가장 확실한 증거들 (만약 있고, 희생자들에게 추가적인 위험을 초래하지 않고 공개할 수 있다면)을 제공하도록 지시하고, 동시에 다른 국가들도 말뿐이 아니라, 그러한 죄악을 저지르는 정권과 조직들을 고립시키고 처벌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로 함께 행동에 나서도록 촉구할 것입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 인류의 양심의 문제입니다. 그러한 죄악이 여전히 용인되는 세상에서는 진정한 평화와 번영이 있을 수 없습니다.

(교수는 멈추었다. 그의 얼굴에 사색적이면서도 확고한 표정이 뚜렷이 나타났다.)

그 세 가지입니다, 헨리. 아마도 그것들은 즉각적인 경제적, 군사적 해결책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들이 가장 깊은 근간, 즉 미국과 전 세계의 미래를 위해 지속 가능하고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을 건드린다고 믿습니다. 그것들은 진정한 변화가 양심의 각성, 지혜의 향상, 그리고 정의를 지키는 확고함에서 와야 한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일주일은 너무 짧지만, 아마도 중요한 씨앗들을 뿌리기에 충분할 겁니다.

**헨리 로웰:**

네, 교수님께서 실행할 세 가지 최우선 순위 선택을 제시하신 것에 매우 감명받았습니다. 그것들 모두가 도덕을 근본으로 삼고 공동의 이익을 향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에 대해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서 교수님의 말씀을 듣는 3 일간의 시리즈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

님께 최고의 행운이 함께하기를 바라며, 저 또한 주님께서 교수님께 축복을 내리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솔로몬 교수:**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그의 눈빛에는 존경과 약간의 감동이 담겨 있었다. 그는 일어나, 다시 한번 헨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다)

헨리, 당신처럼 깊이 있고 마음을 다해 들어주는 사람과 제 생각들을 나눌 수 있었던 것은 저에게 큰 기쁨이자 영광이었습니다. 당신의 그 감명은 귀중한 격려입니다. 저는, 우리가 기본 도덕 가치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공동의 이익을 향하는 한, 우리는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시간을 내주시고, 의미 있는 질문들을 던져주시며, 이 "시간 이전의 메아리"를 탐험하는 여정에 저와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또한 당신의 직업적 경로와 삶 속에서 모든 최고의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진실을 찾고 좋은 것들을 나누고자 하는 열망의 불꽃이 항상 당신의 길을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우리 모두가 평안, 지혜,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용기를 찾을 수 있도록, 신성한 존재의 축복이 모든 이에게 임하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헨리. 우리의 나눔은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지만, 저는 이 사색과 '메아리'들이 계속해서 멀리 울려 퍼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솔로몬 교수와 헨리 로웰은 서로의 손을 굳게 잡았다. 두 사람의 눈빛에는 모두 깊은 공감과 존경심이 빛나고 있었다. 3 일간의 인터뷰 시리즈는 끝났지만, 역사의 미스터리와 현재를 위한 메시지에 대한 탐험과 성찰의 여정은 헨리의 마음속에서, 그리고 아마도 훗날 THE LIVES MEDIA의 독자들의 마음속에서 이제 막 진정으로 시작되었을 것이다.)

# 맺음말

솔로몬 교수와의 대화는 막을 내렸지만, 그것이 불러일으킨 메아리는 아마 이제 막 시작되었을 것이다.

피라미드의 연대에 대한 의문에서부터, 우리는 아틀란티스의 찬란했던 유적지를 여행했고, 마야인의 지혜를 성찰했으며, 대홍수에 대한 전 지구적인 기억에 함께 귀를 기울였다. 고고학, 과학적 분석, 그리고 영적인 성찰의 렌즈를 통해, 하나의 법칙이 항상 드러나는 듯했다. 즉, 한 문명의 흥망성쇠는 단지 기술 수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근원이 사회의 도덕적 기반과 우주의 법칙에 대한 경외심에 깊이 뿌리박고 있다는 것이다.

《시간 이전의 메아리》는 모든 미스터리에 대한 최종적인 답을 제시하려는 야망을 가지고 있지 않다. 대신, 이것은 하나의 초대장이다. 과거 앞에서 더 겸손해지고,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가능성들에 더 열려 있으며, 이미 정해진 '진리'에 대해 질문하는 데 더 용감해지라는 초대장이다.

역사는, 이 메아리들을 통해, 더 이상 어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 자신의 문명을 비추는 거울이 된다. 그리고 그 메아리들이 남긴 가장 중요한 질문은 아마도 "무슨 일이 있었는가?"가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일 것이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헨리 로웰**

THE LIVES MEDIA

\* \* \*

# 저자 및 THE LIVES MEDIA 프로젝트에 대하여

## 저자 소개

**헨리 로웰** (Henry Lowell) 는 문화, 사회, 과학, 그리고 영성에 대해 집필하는 독립 작가입니다. 그는 진리를 추구하고, 양심을 일깨우며, 인류의 운명에 대해 성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의 작품들은 종종 실제 인터뷰에서 비롯되며, 정직함과 감정적인 깊이, 그리고 깨달음의 정신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 프로젝트 소개

이 책은 THE LIVES MEDIA 에서 출판한 시리즈의 일부입니다. THE LIVES MEDIA 는 시대를 초월하는 메아리

를 보존하고 전파하는 사명을 가진 글로벌 비전의 독립 출판 프로젝트입니다. 저희는 매일의 뉴스를 쫓기보다는 인간의 의식 깊은 곳에 닿을 수 있는 책을 지향합니다.

## 연락처

- ✧ Website: [www.thelivesmedia.com](http://www.thelivesmedia.com)
- ✧ Email: [editor@thelivesmedia.com](mailto:editor@thelivesmedia.com)
- ✧ QR Code:



## 같은 프로젝트의 다른 작품들

THE LIVES MEDIA 의 다른 출판물들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홍진 · 금광 (Red Dust, Golden Light)
  - 권력 그 후: 유산 (After Power: The Legacy)
  - 과학의 황혼과 여명 (Sunset and Sunrise of Science)
  - 붉은 베일 (The Red Veil)
  - 시간 이전의 울림 (Echoes Before Time) → 바로 이  
책입니다
  - 속세로 (Entering The World)
  - 마지막 종소리 (The Last Bells)
  - 우리 이전 (Before Us)
  - 천 개의 삶 (Thousand Lives)
-

이 책을 읽기 위해 시간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진리를 탐험하는 당신의 여정에 신과 부처님의 가호가 있  
기를 바랍니다.